

이 보고서는 특정 시기에 어떤 말이 새롭게 쓰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 방법의 한계로 모든 신어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실린 말이라고 해서 국립국어원이 표준어로 인정하거나 사용을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2015-01-23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10-01

2015년 신어

연구 책임자명

남 길 임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15년 신어'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5년 4월 ~ 2015년 12월

2015년 12월

연구책임자: 남길임(경북대학교)

연구 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남길임

공동 연구원 김덕호, 안미애

연구 보조원 서은영, 안주현, 이수진, 최준, 홍미주, 현영희

[머 리 말]

1994년 국가 주도의 신어 조사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 신어가 출현하는 매체, 신어 생성을 주도하는 언중 등 신어를 둘러싼 언어 환경의 변화와 언어 분석 방법론의 발달로 그간 신어 조사 사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대중 매체로 구성된 웹 크롤링 말뭉치를 구축함으로써, 신어의 빈도를 조사하고 과거 신어 조사 사업 결과물에 대한 통시적 사용 추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전 신어 조사 사업과 변별성을 가진다. 올해 경북대학교 신어 조사팀에서 주력한 신어 조사 사업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웹 기반 신어 추출기와 연구진이 별도로 구축한 웹 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하여 2015년 신어 후보 목록을 수집하고 이의 빈도 목록을 구하였다. 연구진은 웹 기반 신어 추출기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인터넷 대중 매체 139개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걸러진 신어 후보를 전수 검토한 후, 개별 신어의 빈도와 사용 양상을 정리하였다. 신어의 빈도는 연구진이 별도로 구축한 웹 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해 계수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빈도 3 이상을 보이는 단어와 구를 신어로 수집하여 자료집에 수록하고, 빈도 2 이하의 신어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신어 조사 사업에서 처음으로 과거 신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신어의 사용 추이를 조사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2005·2006년에 수집된 신어 930여 개로, 본 사업팀에서는 이들이 현재(2015년 6월 기준)까지 지난 10여 년간 매년 어떤 추이를 가지고 쓰이고 있는지를 빈도와 기사 건수, 연도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빈도 2 이하의 신어를 자료집에 수록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개인어와 구분이 어렵고 사회성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이다. 사회성을 획득한 신어와 개인어를 구분하는 빈도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빈도는 늘 모호한 경계의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 신어 조사 사업에서 2번 이하로 온라인 대중 매체에 등장하여 실리지 못한 신어라도 향후 3 이상의 빈도를 얻게 되면 자료집에 등재될 것이라

는 점에서 빈도의 기준을 융통성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신어를 수집하고 신어의 사용 추이를 분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우리말 자료의 기록과 보전을 위해서이다. 한글 창제 이후 제한적으로 활용되다가 갑오경장에 이르러 공문서를 기록하는 문자로서 지위를 획득한 ‘한글’의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서, 해마다 새로이 생겨나는 우리말 신어의 수집과 보전 역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국립국어원과 경북대학교 신어 조사 사업팀은 우리말 자료의 주기적인 조사와 수집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 왔다.

다음으로, 신어의 수집과 분석의 이유는 신어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다. 인터넷과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신어’의 생성과 유통 주기는 이전과 다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어의 처리와 해석 역시 전지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어는 일정한 사회적 맥락과 배경 속에서 탄생하기 마련이며, 그 탄생의 배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언어학자뿐만이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신어 자료를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 가지 분명하게 강조해 둘 것은 이 자료집에 수록된 신어는 지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새로이 등장한 말이며, ‘표준어’로 권장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 중에는 신어 자료집의 신어를 권장할 만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여기 수록된 신어는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 새로 유통되기 시작한 어휘의 목록으로, 있는 그대로의 언어 현상을 기술한 것임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둔다. 이들 신어는 향후 사용 빈도나 지속성 여부 등 장기적인 고찰을 통해 선택적으로 사전에 등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와 결과물은 경북대학교 신어 조사팀 연구진들의 수고를 통해 완성되었다. 올해는 특별히 2015년도 신어 조사 외에 2005·2006년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와 웹 크롤링 말뭉치 구축 및 검색 도구의 개발 등 연구와 작업량이 어느 해보다 많은 해였다.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 신어 추출기의 성능을 보완하고 연구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해결을

모색해 준 국립국어원과 다이퀘스트 시스템 개발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5년 12월

남 길 임

[국 문 초 록]

‘2015년 신어’ 조사 사업은 신어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우리말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 기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신어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국어 어휘 자료를 풍부하게 하고 언어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계층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보 공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국민 언어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진이 수행한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신어 수집

- 신어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2015년 신어 후보 목록 추출
- 위 2015년 신어 후보 목록 중, 해당 기간(2014. 7.~2015. 6.)에 최초 출현한 『우리말샘』 미등재어를 신어로 수집

(2) 2015년 신어의 정보 기술 및 등록

- 2015년 신어의 형태, 뜻풀이에 관한 정보 기술 및 용례 수집
- 『우리말샘』 정보 구조 형태로 신어 분과에 등록

(3) 2005·2006년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

- 기 구축된 신어 조사 자료(2005년 408항목, 2006년 530항목)의 조사 시점부터 현재(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사용 추이 분석
-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의 목록 및 특징 분석

(4) ‘2015년 신어 조사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 표제어, 원어, 뜻풀이, 용례 등이 기술된 최종 결과물 제출
- 2005·2006년 신어의 사용 추이 분석 결과 분류된 신어의 유형별 특징 등이 기술된 최종 결과물 제출

핵심어: 2015년 신어, 신어 추출기, 2005년 신어, 2006년 신어, 신어 사용 추이

[Abstract]

‘New Words of 2015’ has been plann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collect and record the data of the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with our ongoing survey and supervision. This periodic collection of meaningful data will not only serve Korean users with convenience but also eliminate inequality in sharing information in the society, which consequently will activate opportunities for open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The result will also enrich lexical resources of the Korean language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linguistic investigations and academic researches.

Contents of our survey are as follow:

(1) Collecting new words of 2015

- abstracting candidates of new words of 2015 by utilizing the new-word investigating system of Urimalsaem
- collecting new words among unregistered words that appear newly in Urimalsaem during the specific period of time (July 2014 ~ June 2015) from the list of candidates of new words of 2015

(2) Describing and registering the information of new words of 2015

- describing information and collecting examples of forms and meanings of new words of 2015
- listing new words on the compiler in the given form of Urimalsaem

(3) Investigating usage shifts of new words of 2005 and 2006

- analysing the shifts of usages for the previous 10 years from 2005/2006

(408 items in 2005, 530 items in 2006) to 2015

- analysing the list and characteristic factors of new word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used for the previous 10 years

(4) Reporting the results of 'New Words of 2015'

- submitting the final report on entries, origins, meanings, and usages of the collected new words
- submitting the final report on typical characteristics of new words classified from the analysis of the usage shifts of new words of 2005/2006

Key words: New words of 2015, New words extraction tool, New words of 2005, New words of 2006, usage shifts of new words

2015년 신어 조사 사업 요약

I. 2015년 신어

경북대학교 연구팀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 모두 478개의 매체를 조사하여 신어와 미등재어를 수집하였다. 또, 인터넷 기사와 방송 뉴스 중 신어를 포함한 기사의 전문을 웹 크롤링한 말뭉치를 활용하여 수집된 신어의 빈도를 계수하였다.

2015년도에 조사된 신어의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단어가 구에 비해 2배 정도 많이 출현하였고 일반어가 전문어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풍부하게 생산되었다. 품사별로 보면, 신어의 대부분은 명사이며, 신어로 조사된 일반어 구와 전문어 구가 모두 명사구이므로, 신어의 약 98.6%가 명사 또는 명사구라고 할 수 있다.

조어법별로는, 복합어가 91.11%를 차지하며 이 중 합성어가 66.11%로 가장 생산적이다. 합성어 중에서는 어근이나 접사가 아닌 단어의 일부가 결합하는 ‘혼성’이 약 2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원어가 단일한 신어보다는 두 종류 이상의 원어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경우가 약간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원어와 복합원어를 통틀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2015년 신어의 생산에 기여한 경우는 각각 92개, 178개, 166개로 나타나 ‘한자어 > 외래어 > 고유어’ 순으로 2015년 신어 생산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신어 조사 사업에서는 전문어와 일반어에 이원적인 분류를 통해 개별 어휘들의 사용 분야를 조사하였다. 2015년 신어의 전문어 73개 중 사회 분야 신어가 전체 전문어의 약 4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뒤로 경제, 패션, 의학 전문어가 많이 나타났다. 2015년 신어의 일반어 204개 중 ‘사회생활’에 속하는 것이 약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간’과 ‘삶’ 영역에 속하는 신어가 많이 나타났다.

II. 2005·2006년 신어 사용 추이 조사

본 사업에서는 2005년과 2006년에 조사된 신어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여년간의 사용 추이를 조사하고, 개별 항목들의 사용 추이의 유형을 공통적인 경향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신어는 2005년 신어 408개와 2006년 신어 530개이다. 조사 당해 연도(2005년, 2006년)부터 현재(2015년 6월 기준)까지 160개 내외의 언론 매체에서 2005·2006년 신어가 출현한 연도별 빈도 및 기사 건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의 ‘총빈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사용 분포’, 그리고 ‘기사 건수’의 기준을 마련하여, 총빈도 20회 이상, 10건 이상의 기사에서 출현하며 연도별로 5개 년 이상에 분포하여 출현하는 신어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로 판별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신어 가운데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는 664개로 약 70% 이상에 달하며, 연도별로 조사되는 신어의 2/3 가량이 조사 시기를 전후로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소멸되는 임시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를 제외한 2005년 신어 108개와 2006년 신어 146개를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신어를 대상으로 조사 시점부터 현재(2015년 6월)에 이르기까지의 사용 추이에 따라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등으로 하위 구분한다.

총 938개의 신어 가운데 77개가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분류되었고, 111개의 신어가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마지막으로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66개가 분류되었다.

차 례

I. 2015년 신어 조사

일러두기	21
2015년 신어의 유형	37
2015년 신어	53
2015년 신어	109
ㄱ	111
ㄴ	115
ㄷ	119
ㄹ	122
ㅁ	124
ㅂ	129
ㅅ	132
ㅇ	140
ㅈ	149
ㅊ	151
ㅋ	153
ㅌ	156
ㅍ	158
ㅎ	161

II. 2005·2006년 신어 사용 추이 조사

2005·2006년 신어 사용 추이 조사	167
------------------------------	-----

<부록1> 표제어 찾아보기	195
<부록2> 표제어 역순 찾아보기	201
<부록3> 표제어 빈도순 찾아보기	207
<부록4>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년 신어의 사용 빈도	213
<부록5>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6년 신어의 사용 빈도	217

표 차례

I. 2015년 신어 조사

<표 1> 신어 추출기 대상 매체	21
<표 2> <표 1> 외 포털 사이트 검색 대상 매체	22
<표 3> 빈도 조사 대상 매체	23
<표 4> 외래어 언어명 약어	28
<표 5> 전문 분야 분류	31
<표 6> 신어의 분포	37
<표 7> 품사별 신어의 분포	37
<표 8> 조어법별 신어의 분포	38
<표 9> 접두사 목록	40
<표 10> 접미사 목록	40
<표 11> 원어에 따른 신어의 결합 유형	42
<표 12> 원어 결합 유형에 따른 신어의 유형	44
<표 13> 전문 분야에 따른 신어의 유형	45
<표 14> 일반어 신어의 의미 영역 분류	46
<표 15> 의미 영역 분류	48
<표 16> [+사람]을 나타내는 신어	50

II. 2005·2006년 신어 사용 추이 조사

<표 1> 신어의 사용 분야 분류	185
<표 2> 2005·2006년 신어의 사용 분야별 빈도	187
<표 3>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2006년 신어의 사용 분야별 빈도 ..	188
<표 4>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2006년 신어의 고빈도 사용 분야와 예	190

그림 차례

<그림 1> 2005년 신어의 사용 빈도_고빈도순	172
<그림 2> 2006년 신어의 사용 빈도_고빈도순	172
<그림 3> ‘당개 낭인’의 사용 추이	174
<그림 4> ‘금사빠’의 사용 추이	174
<그림 5> ‘손펼침막’의 출현 빈도 추이	179
<그림 6> ‘생리공결제’의 출현 빈도 추이	180
<그림 7> ‘생동성’의 출현 빈도 추이	182
<그림 8> ‘월드컵증후군’의 출현 빈도 추이	183

I . 2015년 신어 조사

일러두기

표제어

1. 수집 및 수록 범위

1) 이 자료집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 모두 478개 매체(신어 추출기에서 검색되는 139개의 매체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 가능한 339개 매체)에 등장한 신어를 조사하고 신어의 어휘 사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2) 조사 대상 매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원일보, 게임동아, 경향신문, 골닷컴, 공감코리아, 국민일보, 기자협회보, 나일론미디어, 내일신문, 노컷뉴스, 뉴데일리, 뉴스엔, 뉴스와이어, 뉴스토마토, 뉴시스, 뉴시스와이어, 데일리안, 동아일보, 디스패치, 디지털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레몬트리, 레이디경향, 로이터, 리빙센스, 마이데일리, 매경게임진,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 매일신문, 머니위크, 머니투데이, 무비스트, 무비위크, 문화일보, 미디어오늘, 민기자닷컴, 베스트베이비, 베스트일레븐, 베이비트리, 부산일보, 블로터닷컴, 빌보드코리아,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소년한국일보, 스포츠, 스타뉴스, 스타투데이,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한국, 스포탈코리아, 시사INLive, 시사저널, 시티라이프, 신동아, 신화사연합뉴스, 씨네21, 아시아경제, 아이뉴스24, 에센, 엑스포츠뉴스, 엔터미디어, 엠파이트, 여성동아, 여성신문, 여성조선, 여성중앙, 연합뉴스, 연합뉴스보도자료, 연합뉴스포맥스, 오마이뉴스, 오토타임즈, 우먼센스, 월간산, 이데일리, 이동진닷컴,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플러스, 이코노믹리뷰, 일간스포츠, 일다, 일요신문, 전자신문, 점프볼, 제이피뉴스, 조선비즈, 조선일보, 조세일보, 조이뉴스24,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중앙SUNDAY, 중앙일보, 참세상,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코메디닷컴, 쿠키뉴스, 티브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팝뉴스, 포모스, 프레시안, 한겨레, 한겨레21, 환경비즈니스, 한국경제, 한국경제TV,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헤럴드생생뉴스, 헬스조선, 10아시아, AP연합뉴스, bnt뉴스, EBS, enews24, EPA연합뉴스, imbc, IT동아, KTV, MBC TV, MBN, MBN TV, MK스포츠, OSEN, SBS CNBC TV, SBS TV, SBSE!, TV리포트, YTN TV, ZDNetKorea

<표 1> 신어 추출기 대상 매체

가스신문, 가톨릭뉴스, 가톨릭신문, 강원도민일보, 강원신문, 건설경제신문, 건설타임즈, 게임메카, 게임포커스,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신문,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매일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경제투데이, 경제풍월, 광주MBC, 광주드림,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교수신문, 국방일보, 국제뉴스, 국제섬유신문, 국제신문, 굿모닝충청, 그린테일리, 글로벌이코노믹, 금강일보, 기호일보, 김해뉴스, 김형준칼럼, 네이버연예, 농민신문, 농촌여성신문, 뉴스1, 뉴스Y, 뉴스메이커, 뉴스엔미디어, 뉴스웨이, 뉴스위크, 뉴스컬처, 뉴스타운, 뉴스타파, 뉴스핌, 뉴스한국, 대구MBC,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시티저널,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대한금융신문, 대한변협신문, 더벨, 더사이언스, 더팩트, 더피알, 데이터넷, 데이터뉴스, 데일리NK, 데일리메디, 데일리벳, 데일리팜, 데일리한국, 독서신문, 동아오토, 동양일보, 디스이즈게임, 디아이투데이, 디자인정글, 디트뉴스24, 딜라이트닷컴, 딴지일보, 라디오코리아, 라포르시안, 레디앙, 로이슈, 르몽드, 마이프라이데이, 매일경제TV, 매일일보, 맥스무비,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칼트리뷴, 메디컬투데이, 메디파나뉴스, 메트로신문, 무등일보, 무비조이, 무카스, 물류신문사, 미국의소리, 미디어스, 미디어잇, 미디어펜, 미래한국, 미주중앙일보, 민족의학신문, 민중의소리, 박동희칼럼, 박문성칼럼, 배국남닷컴, 법률신문, 법률저널, 법보신문, 베리타스알파, 베이비뉴스, 베타뉴스, 보안뉴스, 불교공뉴스, 불교닷컴, 불교신문, 뷰스앤뉴스, 브레이크뉴스, 브레인미디어, 브레인박스, 브릿지경제, 비주얼다이브, 비즈니스위치, 비즈니스포스트, 빅뉴스, 새누리당, 새전북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파이낸스, 서형욱칼럼, 세정신문, 소방방재신문, 소방방재청재난정보,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수원일보, 슈어, 스타데일리뉴스, 스타일닷컴, 스틸엔메탈뉴스, 스포츠Q, 스포츠월드, 슬로우뉴스, 시민일보, 시사오늘, 시사위크, 시사제주, 시사포커스, 시선뉴스, 시크뉴스, 신아일보, 썬썬, 씨넷코리아, 아리랑TV, 아시아경제신문,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투데이, 아웃도어뉴스, 아이티데일리, 아이티투데이, 아주경제, 아크로팬, 안동MBC, 앳스타일, 야쿠리포트, 약사공론, 약업신문, 어패럴뉴스, 업코리아, 에너지경제, 에이블뉴스, 에이빙뉴스, 엔지니어링데일리, 엘르, 연합뉴스,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울산종합일보, 월간마인더스, 월간암, 월간중앙, 월간현대경영, 월스트리트저널, 위클리오늘, 위키트리, 유니온프레스, 유코피아, 의학신문, 의협신문, 이뉴스투데이, 이버즈, 이코노미21, 이코노미조선, 이투뉴스, 이투데이, 인민망, 인벤, 인천일보, 인터뷰365, 인터풋볼, 일요서울, 일요시사, 입정국정소식지공감, 자유선진당, 잡앤조이, 장애인신문, 재외동포신문, 전기신문,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일보, 전업농신문, 정책브리핑, 제민일보,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 제주일보, 조선닷컴인포그래픽스, 주간무역, 주부생활, 줌인스포츠,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신문, 지피코리아,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채널A, 채널에스, 천지일보, 청년의사, 청와대, 초이스경제, 최훈MLB카툰, 충남일보,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컨슈머타임스, 케이벤치, 코나스, 코리아넷, 코리아쉬핑가제트, 코리아헬스로그, 크리스

천투데이, 키즈맘, 테크노아, 테크홀릭, 톱스타뉴스, 통일뉴스, 통일신문, 통합진보당, 투데이에너지, 파운드매거진, 패션비즈, 패션저널, 팩트TV, 평화방송, 포브스코리아, 폴리뉴스, 프라임경제, 하이닥, 한강타임즈, 한국교육신문, 한국금융신문, 한국기독교공보,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신문, 한국대학신문, 한국보험신문,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섬유신문, 한국야구위원회, 한국주택신문, 한국프로축구연맹, 한라일보, 함께걸음, 허핑턴포스트, 헤드라인제주, 헤럴드팝, 현대경제신문, 현대축산뉴스, 화이트페이퍼, 환경tv, 환경미디어, 환경일보, allure, BBS뉴스, CCTV뉴스, CEO스코어데일리, CIOBIZ+, CIOKorea, CNB뉴스, CNB저널, EBN, G1, GQ, G밸리, ITWorld, JTBCTV, J골프, KBSTV, KBS연예, KNN, KNS뉴스통신, KoreaITTimes, KTV국민방송, MTN, M이코노미뉴스, NSP통신, OBS, OBSTV, PAsports, PC사랑, PD저널, RPM9, SBSfunE, SBSGolf, SBSSports, SSTV, TBC대구방송, tbs교통방송, THEAsiaN, topclass, TV조선, VOGUE, VOGUEgirl, WKBLTV, Y-STAR, YTN라디오, YTN사이언스

<표 2> <표 1> 외 포털 사이트 검색대상 매체

- 3) 2015년 신어 조사에서는 다음의 대상 매체에서 조사 대상 기간 내에 수집된 신어가 등장하는 기사문 전체를 웹 크롤링한 말뭉치를 구축하여 신어의 빈도를 계수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개인어와의 구별이 어렵고 충분히 사회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저빈도어를 제외하고 말뭉치에서 빈도 3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어만을 수록하였다.

enews24, JTBC GOLF, JTBC TV, KBS TV, KBS 연예, MBC TV, MBC 연예, MBN, MK스포츠, OBS TV, OSEN, SBS CNBC, SBS CNBC TV, SBS funE, SBS TV, TV리포트, TV조선, YTN, YTN TV, ZDNet Korea, 게임메카, 경향신문, 골닷컴, 골프다이제스트, 국민일보, 노컷뉴스, 뉴스1, 뉴스엔, 뉴스위크, 뉴시스, 데일리e스포츠, 데일리안, 동아일보, 디스이즈게임, 디스패치, 디지털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레이디경향, 마니아리포트, 마이데일리,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 머니위크, 머니투데이, 몬스터짐, 문화일보, 미디어오늘, 바스켓코리아, 베스트일레븐, 블로터,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타뉴스,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타임스, 스포탈코리아, 스포티비뉴스, 시사IN Live, 신동아, 씨네21, 아시아경제, 아이뉴스24, 아이즈 ize, 앳스타일, 엑스포즈뉴스, 엠파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오마이뉴스, 월간 산,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 인벤, 인터풋볼, 일간스포츠, 일다, 전자신문, 점프볼, 조선비즈, 조선일보, 조이뉴스24,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중앙SUNDAY, 중앙일보, 채널A, 테니스코리아, 텐아시아, 티브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포모스, 포포투, 풋볼리스트, 프레시안, 하키뉴

스 코리아, 한겨레, 한겨레21, 한경비즈니스, 한국경제, 한국경제TV, 한국일보, 헝그리앱, 헤럴드POP, 헤럴드경제
--

<표 3> 빈도 조사 대상 매체

- 4) 이 자료집에 수록한 2015년 신어의 수는 신어 추출기 신어 51개, 직접 수집 신어 226개로 총 277개이다.

2. 수집 원칙

- 1) 조사 대상 기간 내에 처음 등장한 말로, 『우리말샘』에 등재되지 않은 최신 어휘를 신어로 수집한다.
- 2)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거나, 기존의 말을 새로운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 생성된 어휘를 신어로 수집한다.
- 3) 새로운 개념, 직종, 첨단 학문 등이 도입되면서,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전문어적인 성격을 띤 새로운 어휘를 신어로 수집한다.
- 4) 최근 신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융합, 축약, 탈락 현상에 의한 약어를 신어로 수집한다.
- 5)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와 형태는 같지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어휘도 신어로 수집한다.
- 6)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어휘를 신어로 수집한다.
- 7) 단어뿐만 아니라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들도 신어로 수집한다.
- 8) 출현 빈도 3 이상의 신어를 수집한다.

3. 수집 방법

1) 신어 추출기 신어

① 정의

‘신어 추출기 신어’란 신어 조사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신어를 가리킨다.

② 선정 방법

(가)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 모두 139개(<표1>)를 대상으로 하여 신어 조사 시스템을 통해 신어 후보 목록을 추출하였다.

(나) (가)에서 수집된 신어 후보 목록은 위 <표1>과 <표2>의 매체를 통해 해당 기간(2014. 7. 1. ~ 2015. 6. 30.)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2) 직접 수집 신어

① 정의

‘직접 수집 신어’란 신어 추출기를 통해 충분히 수집될 수 없었던 어휘들, 신문 기사, 잡지 등을 검토하여 수작업으로 직접 수집한 신어를 가리킨다.

② 수집 방법

(가) 신어 추출기에서 누락된 신어 후보 목록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위 ‘신어 추출기 신어’가 포함된 기사를 우선 검토하였다. 신어는 또 다른 새로운 신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새로운 신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나) 조금 더 직접적인 신어 검색 방법으로, 위 <표1> 및 <표2>의 기사를 대상으로 직접 ‘신조어, 신어, 은어, 유행어, 줄임말, 합성어, 파생어, 준말’ 등의 검색어를 포함한 기사를 찾고, 관련된 기사에 포함된 어휘를 검토하였다.

(다) 주제별로 다양한 신어 후보 목록의 확보를 위해 주제별 기사 목록을 검토하였다.

예) 건강/다이어트, 디자인, 문화산책, 사진/카메라, 생활Tip, 애완/반려, 여행/맛집, 연애, 원예/정원, 육아/출산, 인테리어, 자기계발, 자녀교육, 자동차, 재테크, 책, 취미, 테크, 패션/뷰티, 푸드/레시피, 피플, 쇼핑.

(라) 각종 온라인 신어사전 목록을 검토하여 신어 추출기 신어 목록에서 누락된 신어 후보를 수집하였다.

(마) (가)~(라)에서 수집된 신어 후보 목록은 위 <표1>과 <표2>의 매체를 통해 해당 기간(2014. 7. 1. ~ 2015. 6. 30.)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3. 제시 원칙

1) 표제어 제시 방법은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2) 표제어는 모두 주표제어로 제시하였다.

3) 표제어는 한글로만 표기하였다. 관용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도 한글로 표기하였다.

4) 표제어 내부에는 ‘-’, ‘^’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거나 띄어 쓰는 방법으로 표제어의 직접 구성 성분을 보여 주었다.

① ‘-’를 사용하여 단어 내부의 구조를 보여 주었다.

육-질, 쿡-방, 문송-하다, 걸-크러시, 단짠-단짠

② 전문어 구 표제어의 경우 ‘^’을 사용하여 띄어쓰기 단위와 결합 구조를 보여 주었다.

뉴^노멀^붐, 메신저^증후군, 시맨틱^머신, 호모^솔리타리우스

③ 일반어 구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통해 표제어 내부의 구조를 보여 주었다.

랜선 이모, 빙수 한류, 패스트 리빙, 화석 선배

④ 혼성어로서 표제어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파티스트(<영>▼←party artist), 포레듀케이션(<영>←forest education)

5) 표제어는 각각 자모순으로 배열하되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자모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초성자: ㄱ, ㆁ, ㄴ, ㄷ, ㄷ,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ㅊ, ㅋ,
ㅌ, ㅍ, ㅎ

② 중성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③ 종성자: ㄱ, ㆁ,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ㅌ, ㅍ, ㅎ

형태 정보

1. 제시 원칙

1) 형태 정보는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2) 형태 정보에는 한자어나 외래어의 원어 정보와 어종 정보, 발음·활용 정보, 품사 정보를 포함하였다.

3) 형태 정보란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단, 외래어는 해당 언어의 띄어쓰기 단위를 기준으로 띄어 썼다.

문송-하다(文悚하다)

시맨틱^머신(<영>semantic machine)

2. 원어 정보

1) 고유어로만 구성된 표제어의 경우 원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흔-슬 (O)

흔-슬(흔슬) (X)

2) 한자어는 대응 한자를 밝히고 외래어는 해당 언어명을 ‘< >’ 안에 약어로 쓰고 뒤에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차애(次愛)

그로서런트(<영>grocerant)

리너기스트(<독>linergist)

언어명	약어	언어명	약어
그리스 어	그	에스파냐 어	에
네덜란드 어	네	이탈리아 어	이
노르웨이 어	노	인도네시아 어	인
독일어	독	일본어	일
라틴 어	라	중국어	중
러시아 어	러	체코 어	체
루마니아 어	루	타이 어	타
말레이 어	말	터키 어	터
몽골 어	몽	페르시아 어	페
베트남 어	베	포르투갈 어	포
불가리아 어	불	폴란드 어	폴
산스크리트 어	산	프랑스 어	프
세르보크로아트 어	세	헝가리 어	헝
스웨덴 어	스	히브리 어	히
아랍 어	아	힌디 어	힌
영어	영		

<표 4> 외래어 언어명 약어

3) 외래어에 대응 한자가 있는 경우는 ‘[]’ 안에 따로 표시하였다.

낫-닝겐(<영>not<일>ningen[人間])

서상커(<중>shesangke[奢尙客])

- 4) 우리말에서 발음이 달라진 한자어에는 달라진 발음이 포함된 형태 뒤에 ‘▽’를 붙여 구별하였다.

다만, 유행어 성격의 신어에 대한 변한 한자음의 경우, 해당 한자음 뒤에 ‘▽’를 사용하되, ‘OOO’의 변형한 말이라는 정보를 뜻풀이에서 제시한다.

강력크하다(強力▽하다): ‘강력하다001’를 변형한 말.

- 5) 우리말에서 발음이 달라졌거나 축약된 후 발음이나 철자가 변한 외래어의 경우에는 원형을 제시하고 그 앞에 ‘<←’를 붙여 표시하며, ‘<언어명 약어>←원어’의 형식으로 밝혔다.

공감툰(共感<영>←cartoon), 프리콘(<영>free←concert)

- 6) 우리나라에서 외래어를 활용하여 새로 만든 단어나 구는 그 앞에 ‘▼’를 붙여 구별하였다.

렌트^리치(<영>▼rent rich), 임팩트볼^측정법(<영>▼impact ball測定法)

- 7) 5)와 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와 ‘<←’의 순서로 표시하였다.

키즈시즘(<영>▼kids←racism), 트윈노믹스(<영>▼←twins economics)

3. 어종 정보

- 1) 표제어와 원어 정보 다음에는 원어를 구성하는 어종 정보를 제시하였다. 원어는 고유어는 ‘고’, 한자어는 ‘한’, 외래어는 각 언어명의 첫 글자를 이용하여 약어로 표시하였다.

- 2) 표제어 구성 정보에서 제시한 ‘-’는 어종 표시에서는 ‘+’로 바꾸어 제시하였고, 표제어의 ‘^’은 어종 표시에서도 ‘^’으로 제시하였다. 표제어 구성 정

보의 띄어쓰기를 나타내는 공백은 ‘_’로 제시하였다.

여자-여자(女子女子) 한+한

온라인^카니발라이제이션(<영>online cannibalization) 영^영

히든 시티(<영>hidden city) 영_영

- 3) 표제어의 직접 구성 성분이 두 개 이상의 언어로 되어 있을 때는 ‘()’ 안에 각각의 어종을 표시하였다.

항메르스^물질(抗<영>MERS物質) (한+영)^한

핵-노잼(核<영>no 잼) 한+(영+고)

4. 발음 · 활용 정보

- 1) 모든 단어에 발음 표시를 하였다. 다만, 외래어, 외래어가 포함된 단어, 단어 이상의 단위에 대해서는 발음을 표시하지 않았다.

고-답이 고+고 [고다비]

공감툰(共感<영>←cartoon) 한+영

빙수 한류(氷水韓流) 한_한

해먹-남(해먹男) 고+한 [해명남]

- 2) 활용 정보는 ‘[]’ 안에 제시하였으며, 활용형의 발음도 함께 제시하였다.

커엽다 고 [커엽따] [커여워[커여워], 커여우니[커여우니]]

튀-맥(튀麥) 고+한 [튀맥] [튀맥만[튀맥만]]

5. 품사 정보

- 1) 「명」은 명사, 「동」은 동사, 「형」은 형용사, 「부」는 부사, 「구」는 구를 나타낸다.

고-답이 고+고 [고다비] 「명」

앵-까다 고+고 [앵까다] 「동」

여자여자-하다(女子女子하다) 한+고 [여자여자하다] 「형」

현실 소름(現實소름) 한_고 「구」

전문 분야 정보

- 1) 전문 분야 정보는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 2) 특정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표제어는 해당 분야의 명칭을 ‘『』’ 안에 제시하였다.
- 3) 전문 분야는 해당 뜻풀이 앞에 표시해 두었다.

메신저^강박증(<영>messenger強迫症) 영^한 『의학』 메신저 사용으로 인해…….

- 4)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가톨릭	건설	건설IT	건축
경제	고유	고적	공업
광업	교육	교통	국방
군사	기계	기독교	논리
농업	동물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불교
사회	생물	선박	수공
수산	수학	식물	심리
약학	언론	언어	역사
연영	예술	우주통신	운동
음악	의학	인명	임업
전기	정치	종교	지리
지명	책명	천문	철학
출판	컴퓨터	통신	패션
한의학	항공	해양	행정
화학	환경		

<표 5> 전문 분야 분류

뜻풀이

- 1) 뜻풀이는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 2) 모든 표제어는 직접 뜻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3) 뜻풀이는 어휘의 개념적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 설명을 그 뒤에 제시하였다. 부가 설명은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서술형으로 제시하였다.

칠포^세대(七抛世代) 한^한 『사회』 생활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을 포기한 세대. 연애, 결혼과 출산,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의 다섯 가지를 포기한 ‘오포 세대’가 취업과 희망도 포기한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 4) 약어의 뜻풀이는 “‘원말’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혼-술 고+고 [혼술] 「명」 ‘혼자 먹는 술’을 줄여 이르는 말.

- 5) 동의어는 뜻풀이 정보의 마지막에, ‘=’ 뒤에 제시하였다.

등짐 들살이 고_고 「구」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산과 들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여행. =배낭 도보 여행(背囊徒步旅行).

용례

- 1) 용례는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 2) 모든 표제어에 용례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문장 단위의 용례가 없는 경우에는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 3) 용례는 ‘㉠’ 뒤에 제시하였다.

- 4) 용례는 원칙적으로 출처가 분명한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 5) 조사 대상 기간에 쓰인 용례를 제시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에 쓰인 용례보다 조사 대상 기간 이후에 쓰인 용례가 표제어의 실제 쓰임을 더 잘 보여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후에 쓰인 용례를 제시하였다.
- 6) 용례에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표제어로 있는 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적절한 용례가 없을 시 미등재어가 일부 포함된 용례를 제시하였다.

카레-국(<영>←curry國) 영+한 「명」 ‘인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도의 대표 음식인 ‘카레’에 나라를 의미하는 한자어 ‘국(國)’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이외에 중국은 대륙, 미국은 천조국, 러시아 불곰국, 캐나다 단풍국, 인도 {카레국}, 네덜란드 풍차국 등 대부분 음식, 건물, 국기 등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붙여진 별명이다. 《텐아시아 2014년 12월》

- 7) 표제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용례는 선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적절한 용례가 없을 시 제한적으로 용례로 제시하였다.

우젤귀(宇젤귀) 한+고+고 [우:젤귀] 「명」 ‘우주에서 제일 귀여움’을 줄여 이르는 말. 『비슷한 뜻으로 ‘우젤예’, ‘{우젤귀}’는} 각각 우주에서 제일 예쁘다, 우주에서 제일 귀엽다는 말입니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 8) 제시한 용례에서 내용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기는 모두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서 제시하였다.
- 9) 용례에서 고유명사가 나타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성씨는 ‘O’, 이름은 ‘OOO’로 교체하여 제시하였

고, 단체명이나 기업명, 상품명 등의 기타 고유명은 ‘OO’로 교체하여 제시하였다.

얼굴 몰아주기 고_고 「구」 여러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을 위해, 나머지가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함. 또는 그런 행동. 『공개된 사진에서 000을 제외한 00 멤버들은 {얼굴 몰아주기를} 위해 얼굴을 망가뜨리고 있다. 《텐아시아 2015년 1월》

- 10) 용례의 출전은 ‘《 》’ 안에 제시하였다. 신문, 잡지, 방송 등의 기사의 경우, ‘매체명’, ‘발행년’, ‘발행월’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인구론(人九론) 한+한+고 [인구론] 「명」 ‘인문계 졸업생의 90퍼센트가 논다’를 줄여 이르는 말. 인문계 학생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한 O 모 씨는 “나도 놀고 동기도 놀고, 선배도 놀고 있으니 {인구론이란} 말이 과장은 아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한국일보 2014년 10월》

어원

- 1) 어원은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 2) 약어의 어원을 밝히는 경우 용례 뒤에 제시하였다.

- 3) ‘【 】’ 안에 해당 원어의 어원을 제시하였다.

펠비지(<영>pelvage) 영 「명」 골반과 그 주위의 오목하게 팬 부분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골반을 뜻하는 펠비스(pelvis)와 가슴골을 뜻하는 클리비지(cleavage)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000는 물론 00의 000까지, 이들이 {펠비지를} 드러내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보그 2015년 2월》 【←pelvis+cleavage】

- 4) 원어의 일부가 약어인 경우는 그 약어의 어원을 밝혔다.

메르스^불황(<영>MERS不況) 영^한 『사회』 메르스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불황. 전염성이 강한 메르스가 유행하여 사람들이 되도록 외출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경제 활동이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상태를 이른다. 『{메르스 불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르스 사태는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아시아경제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5) 약어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약어를 어원에서 밝히지 않았다.

랜선 맘(<영>LAN線<영>mom) (영+한)_영 「구」 육아 예능 따위의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들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통신망인 ‘랜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요즘 {랜선 맘들이} 열광하는 아가는 단연 탤런트 000 씨의 세쌍둥이 아들 000·000·000다. 《중앙일보 2015년 1월》 【2014년 10월 신어】

기타

- 1) 신어의 경우, 자료에서 처음 출현하는 연, 월 정보를 ‘【 】’ 안에 넣어 용례 출전 다음에 제시하였다.

화석 선배(化石先輩) 한_한 「구」 졸업을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졸업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남아 있는 선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실제로 대학생 10명 중 6명은 {화석 선배들} 보며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 2015년 3월》 【2015년 3월 신어】

- 2) 부록 1에서는 자료집에 수록된 표제어 전체를 첫 음절 초성을 기준으로 배열한 가나다순 색인을 제시하였다.
- 3) 부록 2에서는 자료집에 수록된 표제어 전체를 마지막 음절 초성을 기준으로 배열한 역순 색인을 제시하였다.

- 4) 부록 3에서는 자료집에 수록된 표제어 전체를 높은 빈도 기준으로 배열한 빈도순 색인을 제시하였다.

2015년 신어의 유형

2015년도에 조사된 신어는 단어와 구(句)를 포함하여 모두 277개이다. 이 중 단어는 180개(65%)이고, 구는 97개(35%)로 단어가 구에 비해 2배 정도 많이 출현한다. 또한 일반어는 204개(73.6%), 전문어는 73개(26.4%)로 전문어보다는 일반어가 신어로 더 풍부하게 생산되었다.

분류	단어		구		계
	일반어 단어	전문어 단어	일반어 구	전문어 구	
수(개)	152	28	52	45	277
비율(%)	54.87	10.11	18.77	16.25	100

<표 6> 신어의 분포

2015년 신어의 유형을 품사, 조어법, 원어, 전문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품사별 분포와 조어법에 따른 분포는 총 277개의 신어 중 단어만(180개)을 대상으로 삼았고, 원어별 분포와 전문 영역별 분포는 단어와 구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1. 품사에 따른 신어의 유형

2015년도 신어 중 구를 제외한 단어를 품사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계
수(개)	176	1	3	180
비율(%)	97.78	0.56	1.67	100

<표 7> 품사별 신어의 분포

신어의 대부분은 명사이며, 신어로 조사된 일반어 구와 전문어 구가 모두

명사구이므로, 신어의 약 98.6%가 명사 또는 명사구라고 할 수 있다. 명사 외에는 동사, 형용사가 나타나는데 이들의 생산성은 명사에 비해 극히 낮다. 동사와 형용사 4개 중 2개가 접미사 ‘-하다’가 붙어 파생된 것이다.

2. 조어법에 따른 신어의 유형

신어 중 구를 제외한 단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어법에 따라 구분하면, 먼저 단일어와 복합어(합성어,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단일어의 경우 ‘생성’과 ‘차용’으로 구분하고, 합성어는 ‘합성’, ‘혼성’, ‘축약’으로, 파생어는 ‘접두 파생’, ‘접미 파생’으로 나누었다.

조어법에 따른 신어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류		수(개)	비율(%)	예	
단일어		생성	4	2.22	남협, 여협, 차애, 커업다
		차용	12	6.67	리너지스트, 우버링, 인셉셔널 즘, 창위랍토르
복합어	합성어	합성	42	23.33	단짠단짠, 맛깁패, 엄지맘, 엉 덩이턱
		혼성	49	27.22	고답이, 모루밍, 블라팅, 잉문 학
		축약	28	15.56	내로남불, 몽실, 인구론, 현눈
	파생어	접두	4	2.22	개노답, 개노잼, 개이득, 항메 르스
		파생			
		접미	41	22.78	다람쥐족, 문송하다, 설명충, 육질
계		180	100		

<표 8> 조어법별 신어의 분포

구를 제외한 단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신어를 조어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2015년에는 단일어 16개(8.89%)와 복합어 164개(91.11%)의 신어가 생

성되었다. 단일어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생성’과 외국어에서 들어온 ‘차용’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어는 대부분 ‘그로서런트(grocerant), 인셉션니즘(inceptionism), 엔터타이징(entertising)’에서와 같이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적었을 때 글자 모양이 ‘귀엽다’와 비슷해서 쓰는 말인 ‘커엽다’가 고유어 단일어이고 ‘남협, 여협, 차예’는 한자어 단일어이다. ‘서상커(shēsangke[奢尙客])’는 중국어에서 온 말이고, ‘리너기스트(linergist)’는 독일어에서 온 말이다.

신어의 조어 유형 중에는 합성어가 66.11%로 가장 많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의 유형이 약 23%, 두 단어 또는 어근이 결합하되 단어 또는 어근의 일부만이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혼성’의 유형이 약 27%, 단어 및 구나 절을 줄여서 표현한 ‘축약’의 유형이 약 16%를 차지한다.

‘혼성’에는 두 단어 중 한 부분만 줄여든 ‘옥밍아웃(옥<영>←coming-out)’, ‘친구-느님(親舊느님)’, ‘문구-부심(文具負心)’과 같은 유형과 두 단어 중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만을 결합하여 만든 ‘모루밍(<영>▼←mobile showrooming)’, ‘잉-문학(剩文學)’, 그리고 두 단어의 일부가 결합하였으나 경계를 알기 어려운 ‘맨스플레인(<영>man’s←explain)’, ‘파티스트(<영>▼party←artist)’와 같은 유형이 있다.

‘축약’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 이르는 말인 ‘내로남불’, ‘인문계 졸업생의 90퍼센트가 논다’를 줄여 이르는 말인 ‘인구론’, ‘현실 눈물’을 줄여 이르는 말인 ‘현눈’, ‘미용실’과 ‘지하철’을 줄여 이르는 ‘몽실’, ‘자철’ 등이 있다. 축약어는 하나의 단어부터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들을 갖춘 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단위들을 줄여서 만드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축약의 예로든 ‘몽실’, ‘자철’은 각각 한 단어를 줄인 말이고, ‘현눈’은 단순 명사구를 줄인 것이며, ‘인구론’은 하나의 완결된 문장처럼 사용되는 단위가 줄어든 경우이다.

신어의 조어 유형 중 파생어는 약 25%이며, 접두 파생어에 비해 접미 파생어가 압도적으로 많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접두 파생어는 모두 4개로 고유어 접두사 ‘개-’와 한자어 접두사 ‘항-’에 의해 생성되었다.

분류	접두사	수(개)	예
고유어	개-	3	개-노답, 개-노잼, 개-이득
한자어	항(抗)-	1	항-메르스
합계		4	

<표 9> 접두사 목록

접미 파생어는 22.78%로 신어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소수의 생산력이 높은 접미사가 신어 생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족’, ‘-녀’, ‘-남’의 3개 접미사를 포함한 단어가 22개로 접미 파생어 전체의 약 53.66% 정도를 차지한다.

분류	접미사	수(개)	예
고유어	-질	2	욱질, 궁예질
	-하다	2	문송하다, 여자여자하다
한자어	-족(族)	12	셀프기프팅족, 메이비족, 썸포족, 야누스족
	-남(男)	5	사이다남, 인테리어남, 탄산남, 해먹남
	-녀(女)	5	런피스녀, 머슬녀, 사이다녀, 심쿵녀
	-계(界)	2	부먹계, 짭맥계
	-권(圈)	2	숲세권, 맥세권
	-설(說▽)	2	연애설, 카스설
	-충(蟲)	2	설명충, 진지충
	-국(國)	1	카레국
	-법(法)	1	팔통법
	-심(心)	1	냥심
	-인(人)	1	뇌섹인
	-자(者)	1	반퇴자
	-화(化)	1	우버화
외래어	-어(er)	1	옥커
계		41	

<표 10> 접미사 목록

접미사는 한자어 접미사가 13개(36개 단어), 고유어 접미사가 2개(4개 단어), 외래어 접미사가 1개(1개 단어)로 모두 16개(41개 단어)이다. 한자어 접미사는 ‘-족’, ‘-녀’, ‘-남’이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이 3개의 한자어 접미사에 의해 만들어진 신어 22개가 전체접미 파생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전체 신어의 약 8%를 차지하는 양이다. 2014년 신어 조사의 결과에서 ‘-남(男), -녀(女), -족(族)’는 2012년부터 꾸준히 많은 어휘를 파생시키며 신어 생성에서 높은 생산력을 보인 접미사라고 보고되었는데 2015년에도 이들 접미사는 여전히 높은 어휘 생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래어 접미사로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접사 ‘-어(er)’가 1개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 되었다.

3. 원어에 따른 신어 유형

원어에 따른 신어 유형을 분석하여 신어 생산에 기여하는 원어의 결합 유형 및 결합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2015년 신어에서는 원어가 단일한 것이 132개(47.65%), 두 종류 이상의 언어가 복합된 것이 145개(52.3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단일원어보다 복합원어의 비율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어		수(개)	비율(%)	결합 유형
단일 원어	고유어	17	6.14	고, 고+고, 고+고+고+고
	한자어	47	16.97	한, 한+한, 한+한+한
	외래어	68	24.55	외, 외+외, 외+외+외
계		132	47.65	
복합 원어	고+외	14	5.05	고+외, 외+고, 고+외+고
	고+한	47	16.97	고+한, 한+고, 한+고+한
	한+외	71	25.63	외+한, 한+외, 외+한+외, 한+외+한
	고+외+한	13	4.69	고+외+한, 고+한+외, 외+고+한, 외+한+고, 한+고+외, 한+외+고, 고+외+고+한, 외+한+고+한+외
계		145	52.35	
합계		277	100	

<표 11> 원어에 따른 신어의 결합 유형

위 표를 보면 단일원어의 경우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는 약 3배, 외래어는 약 4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합원어에서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한 신어가 2015년 신어 전체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2015년 신어의 생산에 기여한 경우는 각각 92개, 178개, 166개로, 2015년 신어 생산에 기여한 정도는 ‘한자어 > 외래어 > 고유어’ 순임을 알 수 있다.

원어의 결합 유형에 따라 신어의 유형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단일원어로 이루어진 신어 중 고유어만으로 구성된 단어 중 ‘커엽다’를 제외한 나머지 16개의 신어는 모두 두 개 이상의 고유어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한자어로만 구성된 단어는 ‘여자여자(女子女子)’와 같은 복합어와 ‘달관(達觀)세대(達觀世代), 화석 선배(化石先輩)’와 같은 구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들 단어들은 ‘한자어+한자어’ 결합으로 한자 단일어종 어휘의 약 87.23%(41개)를 차지한다. 한자어가 하나 또는 세 개 이상 결합한 단어는 6

개로 한자 단일어중 어휘의 약 12.76%를 차지한다.

외래어로만 구성된 단어의 대부분은 ‘파티스트(<영>▼party←artist)’, ‘잉글리시^푸어(<영>english poor)’와 같이 영어 단어가 신어 생성에 관여한 경우이다. ‘셰프테이너(<프>chef<영>←entertainer)’, ‘낫-닝겐(<영>not <일>ningen[人間])’과 같이 영어와 프랑스 어, 일본어가 함께 사용된 경우가 있고, ‘리너지스트(<독>linergist)’, ‘서상커(<중>shēsangke[奢尙客])’, ‘호모^솔리타리우스(<라>homo solitarius)’와 같이 독일어, 중국어, 라틴 어에서 온 신어도 존재한다.

둘 이상의 원어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신어는 ‘외래어+한자어(41개)’, ‘고유어+한자어(22개)’, ‘한자어+외래어(20개)’, ‘한자어+고유어(16개)’ 순으로 많이 나타난다. 두 개의 원어가 결합된 신어가 전체 복합원어의 약 90.34%를 차지하고 세 개의 원어가 결합된 신어가 약 9.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어	수(개)	비율(%)	예
단일 원어	고유어	17	6.14	끼끼빠빠, 등짐 들살이, 엉덩이턱, 커엣다
	한자어	47	16.97	달관 세대, 차애, 탄산담, 화석 선배
	외래어	68	24.55	리너기스트, 서상커, 잉글리시 푸어, 호모 솔리타리우스
복합 원어 (혼종어)	외+한	41	14.80	메이비족, 메신저 피로 증후군, 어번 그라니족, 우버화
	고+한	22	7.94	개이득, 숲세권, 씬포족, 튀맥
	한+외	20	7.22	내적 댄스, 인생템, 퇴직 크레바스, 항메르스
	한+고	16	5.78	복세편살, 여자여자하다, 인구론, 현실 소름
	한+고+한	9	3.25	심쿵 유발자, 편도족, 심쿵사, 취업깡패
	한+외+한	9	3.25	뇌섹녀, 피캥스족, 항메르스 물질, 핵노답
	고+외	8	2.89	겨터파크, 떳덕후, 엄지맘, 칼업땃
	외+고	4	1.44	덕무룩, 딤빡, 카툰튀, 커퀴
	고+한+외	4	1.44	쉽표 마케팅, 외발 전동 휠
	고+외+고	2	0.72	개노잼, 사바사
	고+외+한	2	0.72	개노답, 한큐 가전
	외+고+한	2	0.72	스펙 깡패, 케이 깡패
	한+외+고	2	0.72	여덕몰이, 핵노잼
	외+한+외	1	0.36	랜선 맘
	한+고+외	1	0.36	중고나라 론
	고+외+고+한	1	0.36	내로남불
	외+한+고+한+외	1	0.36	엔분의 일 잡
계		277	100	

<표 12> 원어 결합 유형에 따른 신어의 유형

4. 사용 분야에 따른 신어의 유형

사용 분야의 분류는 일차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분류를 따랐는데 2015년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의 62가지 영역 중 14개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어 신어가 조사되었다. 2015년에 전문 분야에서 나타난 신어는 모두 73개로 전체의 26.35%를 차지한다. 각 전문 분야에 따른 신어의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영역	수(개)	비율(%)	예
사회	32	11.55	노키즈 존, 메르스 피난민, 피딩족, 혁신 기리기
경제	14	5.05	뉴 노멀 붐, 온라인 카니발라이제이션, 우버화, 컨슈니어
패션	9	3.25	눔 코어 룩, 래시 팬츠, 웨깅스, 아웃플래킷
의학	6	2.17	메신저 강박증, 메신저 피로 증후군, 카페인 우울증, 항메르스 물질
건설	2	0.72	뱅머신 측정법, 임팩트볼 측정법
컴퓨터	2	0.72	리얼터 테크, 인셉서니즘
공업	1	0.36	프릿 밀봉
군사	1	0.36	플레세트탄
기계	1	0.36	시맨틱 머신
동물	1	0.36	창위랍토르
법률	1	0.36	허특법
연영	1	0.36	당천 영화
운동	1	0.36	덩키 킥
지리	1	0.36	삼한 사미
일반	204	73.65	고답이, 단짠단짠, 여자여자하다, 치킨각
합계	277	100	

<표 13> 전문 분야에 따른 신어의 유형

‘노키즈 존, 혁신 기리기’와 같은 사회 분야의 신어가 전체 전문어의 43.84%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카니발라이제이션, 우버화’와 같은 경제 분야 전문어가 19.18%로 사회 전문어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었다. ‘눔 코어 룩,

웨딩스'와 같은 패션 분야에서도 9개(12.33%)의 신어가 생산되었는데, 이를 통해 2015년에 유행한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등을 알 수 있다. 의학 분야에서도 6개의 신어가 생산되어 전체 전문어의 8.22%를 차지했는데 그 중 '메신저 강박증, 메신저 증후군, 메신저 피로 증후군, 카페인 우울증'의 4개의 신어가 메신저나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사용에 따른 병증을 가리키고 있어 스마트 기기 사용의 부작용에 대한 현대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외에도 '임팩트볼 측정법, 뱅머신 측정법'과 같이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나, '리얼터 테크, 인셉서니즘'과 같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2015년의 건설, 컴퓨터 등의 전문 분야 신어로 발견되었다.

한편, 2015년 신어의 73.65%가 특정 전문 분야가 아닌 일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2015년 신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어들이 어떤 의미 영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별도의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반어의 의미 영역 분류를 위해 국립국어원(2014)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3단계)'의 '고급' 단계 의미 범주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활용하였다.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인간	유형	사람의 종류, 신체 부위
	상태	체력 상태, 감각, 용모, 감정, 성격, 태도, 능력
	행위	신체 행위, 신체에 가하는 행위, 생리현상, 인지 행위, 소리
삶	유형	친족, 가족 행사, 여가 도구, 여가시설
	상태	삶의 상태, 병과 증상
	행위	삶의 행위, 일상 행위, 치료 행위, 여가 활동
식생활	유형	음식, 채소, 곡류, 과일, 음료, 식재료, 조리 도구, 식생활 관련 장소
	상태	맛
	행위	식사 및 조리 행위
의생활	유형	옷, 착용물, 의생활 관련 장소
	상태	의복 착용 상태

	행위	의복 착용, 미용 행위
주생활	유형	건물 종류, 주거 형태, 주거 지역, 가구, 가전제품, 일상용품, 주택 구성
	상태	주거 상태
	행위	주거 행위, 집안일
사회생활	유형	인간관계, 소통 수단, 교통수단, 교통이용 장소, 매체, 직장, 직위, 직업, 사회 행사
	상태	사회생활 상태
	행위	사회생활 행위, 교통 이용 행위, 직장생활, 언어 행위
경제생활	유형	경제 행위 주체, 전공과 교과목, 교육기관, 학교 시설, 학습 관련 사물, 학문 용어
	상태	경제 상태
	행위	경제행위
교육	유형	교수 학습 주체, 전공과 교과목, 교육기관, 학교 시설, 학습 관련 사물, 학문용어
	상태	-
	행위	교수 학습 행위, 학문 행위
종교	유형	종교, 종교 장소, 종교인, 종교어, 종교 대상, 종교 사물
	상태	-
	행위	종교 행위
문화	유형	문화 활동 주체, 무형 문화, 유형문화, 문화생활 장소
	상태	-
	행위	문화 활동
정치와 행정	유형	공공 기관, 사법 및 치안 주체, 무기
	상태	정치 치안 상태
	행위	정치 및 행정, 사법 치안
자연	유형	지형, 지표면 사물, 천체, 자원, 재해
	상태	기상 및 기후
	행위	-
동식물	유형	동물, 곤충, 식물, 동물의 부분, 식물의 부분
	상태	-

	행위	동식물 행위, 소리
개념	모양과 성질	모양, 성질, 속도
	빛과 색	밝기, 온도, 색깔
	수와 양	수, 세는 말, 양, 정도, 순서, 빈도
	시간과 위치	시간, 시간 단위, 위치 및 방향, 지역
	지시	지시, 접속, 의문, 인칭
통신 및 게임	통신	인터넷 활동, 휴대전화,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게임	게임 활동, 게임 아이템

<표 14> 일반어 신어의 의미 영역 분류

위의 범주를 활용하여 일반어 신어 204개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미 영역	수(개)	비율(%)	예
사회생활	61	29.90	길 과장, 길끼빠빠, 썸맥, 핵공감
인간	56	27.45	너섹 남녀, 심폭, 펠비지, 현미
삶	25	12.25	노푸, 복세편살, 증거 중독, 커피 냅
문화	14	6.86	굿즈덕, 문구덕, 빙수 한류, 쿡방
경제생활	12	5.88	모루밍, 서상커, 푸드테크, 히든 시 티 티켓팅
의생활	8	3.92	립퀴드, 인생템, 카하이오일, 코스멀 틱
주생활	7	3.43	맥세권, 본 네이처 가전, 숲세권, 패 스트 리빙
통신및게임	5	2.45	랜선 맘, 랜선 이모, 짤줍, 흠마
교육	4	1.96	잉문학, 타이거 티처, 포레듀케이션, 화석 선배
정치와 행정	4	1.96	공간혼, 구타혼, 물뽕, 딸통법
개념	3	1.47	너섹 지수, 카레국, 히든 시티
식생활	3	1.47	단짠단짠, 밀프렙, 튀맥
전체	204	100	

<표 15> 의미 영역 분류

일반어 신어 중에는 ‘인간관계, 직장, 사회생활 행위, 언어 행위’ 등의 의

미를 포함하는 의미 영역인 ‘사회생활’에 속하는 것이 약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람의 종류, 신체, 감각, 용모, 감정, 태도’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 영역인 ‘인간’에 속하는 것이 약 27.45% 정도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친족, 여가, 일상 행위, 병과 증상’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 영역인 ‘삶’에 속하는 신어가 일반어 신어의 12.25%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일반어 신어의 약 70%가 ‘인간, 사회생활, 삶’의 3가지 의미 영역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굿즈덕, 쿡방’과 같은 문화 활동 주체나 유형/무형 문화 등의 ‘문화’ 영역의 신어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 모바일로 제품을 구매하는 일인 ‘모루밍’과 음식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를 피하는 일인 ‘푸드테크’와 같은 ‘경제생활’ 영역의 신어가 각각 6.86%, 5.88%로 조사되었다. 의생활(3.92%), 주생활(3.43%), 통신 및 게임(2.45%), 교육(1.96%), 정치와 행정(1.96%), 개념(1.47%), 식생활(1.47%)의 의미 영역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남길임 외(2015)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사람과 집단’을 의미하는 어휘가 매년 조사되는 신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도 277개의 신어 중 약 1/3에 해당하는 96개의 신어가 ‘사람과 집단’을 의미하는 [+사람] 신어로 조사되었다. [+사람] 신어 중 전문어는 28개, 일반어는 68개이다. [+사람] 신어가 속한 전문 분야는 ‘사회(21개)’, ‘경제(6개)’, ‘패션(1개)’로 나타났다. 일반어인 [+사람] 신어는 ‘사회생활(24개)’, ‘인간(18개)’, ‘삶(8개)’, ‘문화(6개)’, ‘경제생활(4개)’, ‘의생활(3개)’, ‘통신 및 게임(3개)’, ‘교육(2개)’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분야/영역	수(개)	비율(%)	예
전문어	사회	21	21.88	달관 세대, 메르스 피난민, 혁신기러기, 호모 솔리타리우스
	경제	6	6.25	인텔리슈머, 철벽 소비자, 컨슈니어, 크로스 쇼퍼
	패션	1	1.04	리너기스트
일반어	사회생활	24	25.00	고답이, 길 과장, 베이크부커, 친구느님
	인간	18	18.75	뇌섹인, 실물 깡패, 인테리어남, 청순 보스
	삶	8	8.33	곰맘, 골목길 순례자, 편도족, 혼밥남
	문화	6	6.25	굿즈덕, 문구덕, 성덕, 소품덕
	경제생활	4	4.17	서상커, 쓸로몬, 엄지맘, 증거 중독자
	의생활	3	3.13	런피스녀, 패터니스타, 패테
	통신 및 게임	3	3.13	랜선 맘, 랜선 이모, 홈마
	교육	2	2.08	타이거 티처, 화석 선배
합계		96	100	

<표 16> [+사람]을 나타내는 신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사회와 사람을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2015년 신어에서도 [+사람] 의미를 가지는 신어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이 ‘사회’ 영역에서 나타났다. ‘달관 세대’, ‘호모 솔리타리우스’와 같은 ‘사회’ 분야의 전문어 신어와 ‘길 과장’, ‘친구느님’과 같은 ‘사회생활’ 영역의 일반어 신어를 합하면 [+사람] 신어의 약 절반에 가까운 어휘가 ‘사회’ 영역에서 생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뇌섹인’, ‘실물 깡패’ 등 ‘인간의 종류, 감정, 외모, 인지’와 관련되는 ‘인간’ 영역의 신어가 [+사람] 신어에서 약 19%로 나타났다. ‘친족, 일상생활, 여가’ 등과 관련되는 ‘곰맘, 골목길 순례자’와 같은 ‘삶’ 영역의 신어가 그 뒤를 이었고, ‘경제’ 전문어와 ‘경제생활’ 영역의 일반어를 합했을 때, ‘경제’ 관련 신어가 [+사람] 신어에서 ‘삶’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관련 영역에서 나타난 [+사람] 신어의 경우 ‘물건을 구매할 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구매하는 소비자’인 ‘철벽 소비자’, ‘지혜로운 왕인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처럼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인 ‘솔로몬’, 주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비교하는 소비자’를 가리키는 ‘증거 중독자’처럼 대부분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불황이라는 외적인 상황과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실용주의와 합리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신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굿즈덕, 문구덕, 소품덕, 성덕’ 등 이른바 ‘덕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화’ 영역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특정 대상이나 분야에 탐닉하는 사람들인 ‘덕후’가 유무형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로서 부각되기 때문이다. [+사람] 신어 중 ‘패션’ 및 ‘미용’과 관련된 영역인 전문분야 ‘패션’과 일반 의미 영역 ‘의생활’에는 전문어 신어인 ‘리너기스트’와 일반어 신어인 ‘런피스녀, 패터니스타, 패테’가 포함되었다. 독일어에서 들어온 말인 ‘리너기스트’는 반영구 화장 전문가를 뜻하며, 미용과 관련된 전문 직종이 최근 새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말이다. ‘의생활’ 영역에서는 특히 ‘런피스녀’를 주목할 만하다. ‘런피스녀’는 ‘러닝화와 원피스를 함께 착용한 여자’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를 통해 이전 연도에 조사된 ‘노힐족, 운도녀’와 같이 올해도 여전히 실용성을 강조하는 유행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신어

- 빈도순 -

셀카 봉(<영>←self camera棒) 영_한 「구」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을 때 멀리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용하는 긴 막대 모양의 기기. ¶긴 봉 형태로 휴대 전화와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셀카 봉의} 원리라면 셀카 렌즈는 렌즈의 배율을 조절해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영역을 넓힌다. 《더팩트 2015년 2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4956>

망콩 리턴(망콩<영>return) 고_영 「구」 자사 여객기에 탑승한 항공사 임원이 자신에게 실수를 저지른 승무원의 과실을 문제 삼아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가게 한 일. 또는 그런 사건. 2014년 12월 5일에 자사 여객기에 탑승한 항공사 임원이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건과류 제품을 자신에게 봉지째 제공한 승무원의 과실을 질책하는 중에 해당 승무원을 두둔한 다른 직원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도록 기장에게 지시하여 막 출발한 비행기를 제자리로 되돌아가도록 운항하게 한 사건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OOO 부사장은 이른바 {망콩 리턴을} 놓고 월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일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이투데이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3637>

쿡-방(<영>cook放) 영+한 「명」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여 주는 방송. ¶냉장고를 소재로 {‘쿡방’의} 신기원을 이룰 관전 포인트 세가지를 공개한다. 《티브이리포트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3240>

뇌섹-녀(腦<영>←sexy女) (한+영)+한 「명」 ‘뇌가 섹시한 여자’를 줄여 이르는 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재치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를 가리킨다. ¶OOO는 지난 17일 방송된 종합 편성 채널 OO…에 출연해 유창한 중국어와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미적분까지 풀어내는 {‘뇌섹녀’의} 모습으로 대중의 호감을 샀다. 《티브이데일리 2015년 3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471>

핵-존심(核尊心) 한+한 [핵존심] 「명」 어떤 일에 대해 절대로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화장은 {‘핵존심’을}

사수하는 방법이라는 여고생들의 변(辯)을 들어 본다. 《중앙일보 2015년 10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969>

놈^코어^룩(<영>norm←hardcore look) 영^영^영 『패션』 지극히 평범하고 편안한 옷이나 소품들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멋을 표현한 옷차림.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무심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면 {놈 코어 룩으로} 코디를 완성해 보자. 《파이낸셜뉴스 2014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822>

노푸(<영>no←shampoo) 영+영 「명」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 머리를 감음. 『할리우드 스타들의 탈모 방지법 {노푸가} 화제다. 《데일리한국 2014년 12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807>

달관^세대(達觀世代) 한^한 『사회』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세대. 취직이나 결혼, 내 집 마련 따위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무기력한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OOO OO대 사회학과 교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눈높이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들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달관 세대라} 일컬었다. 《한국일보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698>

메신저^증후군(<영>messenger症候群) 영^한 『의학』 과도한 메신저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 이르는 말. 회사나 직장 따위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함으로써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메신저 강박증이 대표적이다. =메신저 피로 증후군(<영>messenger疲勞症候群). 『{메신저 증후군이란} 스마트폰 메신저를 업무에 이용하는 회사들이 증가하며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다. 《동아일보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652>

머슬-녀(<영>muscle女) 영+한 「명」 근력 운동으로 근육질의 몸매를 가꾼 여자. 『가녀린 몸매의 청순녀 대신 근육질의 건강한 몸매를 가진 {머슬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5년 5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533>

인구론(人九론) 한+한+고 [인구론] 「명」 ‘인문계 졸업생의 90퍼센트가 논다’를 줄여 이르는 말. 인문계 학생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한 O 모 씨는 “나도 놀고 동기도 놀고, 선배도 놀고 있으니 {인구론이란} 말이 과장은 아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한국일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43>

셰프테이너(<프>chef<영>←entertainer) 프+영 「명」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갖추고 방송 활동을 하는 요리사. ¶요리 실력은 기본, 엔터테이너의 끼와 재능을 겸비한 {셰프테이너들이} 브라운관을 누비며 시청자들의 오감을 자극 중이다. 《스포츠동아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422>

메르스^불황(<영>MERS不況) 영^한 『사회』 메르스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경제 불황. 전염성이 강한 메르스가 유행하여 사람들이 되도록 외출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경제 활동이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상태를 이른다. ¶{메르스 불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르스 사태는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시아경제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70>

숲세-권(金勢圈) (고+한)+한 [숲세권] 「명」 주변에 숲이나 공원 따위의 녹지 공간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 ¶단지 인근에 자연 녹지가 존재해 도심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뉴스웨이 2015년 5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349>

요섹-남(料<영>←sexy男) (한+영)+한 「명」 ‘요리를 하는 섹시한 남자’를 줄여 이르는 말. ¶가수 OOO가 능수능란한 요리 솜씨로 ‘{요섹남’에} 등극했다. 《스포츠동아 2015년 7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344>

밴드 게이트(<영>bend gate) 영_영 「구」 물체에 힘을 주면 쉽게 휘어지는 현상. ‘구부리다’라는 뜻의 ‘밴드(bend)’와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事件)’의 ‘게이트(gate)’를 결합하여 만든 말로, 약한 힘에도 잘 휘어지는 특정 회사의 휴대 전화 모델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규범 표기는 ‘밴드 게이트’이다. ¶OO와 OO가 힘을 가하면 구부러진다는 {밴드 게이트} 논란이 확산되자 OO이 “극히 드문 일이며 일상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327>

뇌섹(腦<영>←sexy) 한+영 「명」 ‘뇌가 섹시함’을 줄여 이르는 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재치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OOO은 최근 OO을 통해 “{뇌섹이} 없는 1차원적 섹시함은 일시적, 뇌는 섹시하나 에너지 없는 몸이라면 인생은 노잼.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삶, 핵잼!”이라는 글과 함께 OO 6월 호에 실린 사진 한 컷을 남겼다. 《이데일리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22>

코르스(<영>←Korea MERS) 영 「명」 중동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이 한국에서 확산된 것을 이르는 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에서 중동을 의미하는 엠이(ME) 대신 한국을 의미하는 케이오(Ko)를 합성한 말로, 2014년 5월 20일 첫 환자가 확진을 받았다. ¶메르스 단어에서 ‘중동’이란 뜻의 약어 엠이(ME)를 떼고 한국이라는 약어를 붙여서 ‘{코르스}로’ 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티브이조선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267>

셀카 렌즈(<영>←self camera lens) 영_영 「구」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을 때 사용하는 렌즈. ¶OOO이 사용한 {셀카 렌즈는} 렌즈의 배율을 조절해 넓은 영역을 찍을 수 있다. 《더팩트 2015년 2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263>

맛-깡패(맛깡牌) 고+(고+한) [맛깡패] 「명」 매우 맛이 좋은 음식이나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맛깡패라} 불리는 OOO 셰프가

중화요리 대가 000 셰프를 꺾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간스포츠 2015년 4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238>

탄산-남(炭酸男) 한+한 [탄 : 산남] 「명」 탄산음료를 마신 것처럼,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남자. 『000의 냉장고에는 그의 별명 ‘탄산남’에』 걸맞게 탄산음료가 가득해 시선을 끌었다. 《오에스이엔 2014년 10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213>

반퇴^시대(半退時代) 한^한 『사회』 조기 퇴직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야 하는 시대. 『{반퇴 시대에는} 퇴직 전까지 노후의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고단한 삶을 피하기 어렵다. 《중앙일보 2015년 2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202>

얼굴 몰아주기 고_고 「구」 여러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을 위해, 나머지가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함. 또는 그런 행동. 『공개된 사진에서 000을 제외한 00 멤버들은 {얼굴 몰아주기를} 위해 얼굴을 망가뜨리고 있다. 《텐아시아 2015년 1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96>

애슬레저^룩(<영>athleisure look) 영^영 『패션』 운동복을 일상복처럼 입는 옷차림. 『윙업 라인은 최근 아웃도어, 스포츠, 패션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 모든 분야가 합쳐져 일상 속으로 들어온 ‘{애슬레저 룩}’을』 겨냥한 것이다. 《브릿지경제 2015년 3월》 【←athletic+leisure】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94>

패스트 리빙(<영>fast living) 영_영 「구」 유행이나 계절에 따라 거실 따위의 공간을 빠르고 간편하게 바꾸어 장식하는 일. 또는 그런 용품. 『합리적인 금액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스트 리빙}’이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2015년 7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75>

맨스플레인(<영>←man's explain) 영+영 「명」 어떤 사건이나 사물 따위에 대해 설명하는 남자. 주로 상대가 여성일 때 자신이 잘 아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잘난 체하며 설명하는 남자를 의미한다. 『여성이 뭘 모른다고 생각해 시시콜콜 설명하면서 아는 체하는 남성을 일컫는 말이 {맨스플레인이다}. 《이투데이 2015년 5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156>

엄지-맘(엄지<영>mom) 고+영 「명」 아이를 돌보면서 모바일 쇼핑을 즐기는 어머니.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모바일로 유아용품, 생활품 등을 구매하는 이른바 ‘{엄지맘}’이 크게 증가하면서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2015년 5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52>

핵-노잼(核<영>no잼) 한+(영+고) 「명」 매우 재미가 없음. 또는 그런 일. 『동생 000과 00에 동반 출연한 000이 일명 ‘{핵노잼}’을 걱정해 눈길을 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51>

등짐 들살이 고_고 「구」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산과 들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여행. =배낭 도보 여행(背囊徒步旅行). 『1박 이상의 야영에 필요한 장비를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산과 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여행을 뜻하는 단어인 백패킹(backpacking)의 순화어로는 ‘배낭 보도 여행’, ‘{등짐 들살이}가 선정됐다. 《내일신문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147>

왕-면봉(王綿棒) 한+한 [왕면봉] 「명」 매우 크고 굵은 면봉. 『최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5개의 {왕면봉을} 모아 기자가 직접 사용해 봤다. 《레이디경향 2015년 5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45>

어번^그래니(<영>urban granny) 영^영 『사회』 도시적이고 세련된 할머니. 주로 자신의 건강과 외모 따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중년 이상의 여성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새로운 소비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어번 그래니에} 대해서 들어 봤는가? 《스포츠투데이 2015년 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137>

심쿵 유발자(心쿵誘發者) (한+고)_한 「구」 심장이 쿵쿵거리며 세게 뛰거나 쿵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거나 멋지거나 귀엽다는 느낌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특유의 마초적인 카리스마 속에 드러나는 그의 이 같은 연기 아우라는 가히 여심을 흔들 만한 ‘{심쿵 유발자}’의 매력’을 후끈하게 뿜어내고 있다는 평이다. 《한국경제티브이 2014년 9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32>

피딩-족(<영>FEEDing族) 영+한 「명」 『사회』 손주를 돌볼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육아를 즐기며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조부모. 또는 그런 무리. 『OO 백화점이 2월을 맞아 ‘손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근 ‘{피딩족}’의 구매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구매가 명절 시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2015년 2월》 【FEED: financial, enjoy, energetic, devoted】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30>

프리콘(<영>free←concert) 영+영 「명」 콘서트를 이용하는 관객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콘서트. 『보컬리스트 OOO이 화이트데이 특별 공연인 ‘{프리콘}’을 예고했다. 《스포츠서울 2015년 3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124>

전동 휠(電動<영>wheel) 한_영 「구」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바퀴. 『OO은 평형을 스스로 잡아 주는 자이로 센서 기술이 적용된 {전동 휠}을 선보이고 있으며, OO는 서서 타는 전동 스쿠터의 원조 격인 기업이다. 《테이터넷 2015년 4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120>

푸드-테크(<영>food tech) 영+영 「명」 음식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꾀하는 일. 『이 제품은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소와 칼로리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회사 측은 임베디드, 웹, 모바일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푸드테크}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에이빙뉴스 2015년 3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14>

칠포^세대(七拋世代) 한^한 『사회』 생활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을 포기한 세대. 연애, 결혼과 출산,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의 다섯 가지를 포기한 ‘오포 세대’가 취업과 희망도 포기한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많은 청년이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얻지 못해 이른바 ‘{칠포 세대’가} 되고 있다. 《문화일보 2015년 4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110>

연필^거지(鉛筆거지) 한^고 『사회』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연필 따위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특정 가구 판매점에서 상품 정보를 메모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연필을 몰래 가져가는 손님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다. 『가구 매장 OO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매장에 비치한 연필을 가져가는 ‘{연필 거지’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03>

쉽포-족(쉽拋族) 고+한 [쉽 : 포족] [쉽포족만[쉽 : 포종만]] 「명」 『사회』 쉽을 포기한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휴식을 포기할 정도로 바쁘고 고달픈 삶을 사는 현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쉽을 포기할 정도로 각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업계별 {쉽포족에게} 힐링을 가져다 주는 세대별 마케팅도 급증하는 추세다. 《스포츠조선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01>

솔로몬(솔←Solomon) 고+영 「명」 지혜로운 왕인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처럼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과 취향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공유’라는 대안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소비를 모색한다. 《이코노믹리뷰 2014년 12월》 【←쓰-+Solomon】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96>

연애-고자(戀愛鼓子) 한+한 [여 : 내고자] 「명」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을 고자에 빗대어 이르는 말. 『OO은 {연애고자인} 두 남녀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이

야기에 코믹함을 더해 솔직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2015년 5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94>

취업 강패(就業强牌) 한_ (고+한) 「구」 취업에 유리하거나 취업을 잘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요즘 공대생을 ‘취업 강패’라고 부른다. 《동아일보 2015년 2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92>

증거 중독(證據中毒) 한_한 「구」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에 집착하는 병적 상태. 『소비자들이 ‘증거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경제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85>

립퀴드(<영>▼←lipstick liquid) 영 「명」 입술에 색을 내면서 영양과 윤기도 주는 화장품. 립스틱과 립글로스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화장품이다. 『(립퀴드는)…고체 립스틱의 발색력과 액체 립글로스의 광택감은 물론 립 틴트의 지속력을 모두 지닌 새로운 제형의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울경제 2015년 3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84>

배낭 도보 여행(背囊徒步旅行) 한_한_한 「구」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산과 들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여행. =등짐 들살이. 『배낭여행을 가리키던 백패킹은 ‘배낭 도보 여행’ 또는 ‘등짐 들살이’로, 인터넷 뱅킹 보안 기술의 하나인 오티피(OTP)는 ‘일회용 비밀번호’로 각각 순화했습니다. 《케이비에스티브이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84>

욱-질 고+고 [욱질] 「명」 앞뒤를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나 하는 짓. 『(욱질을) 계속하는 쪽은 편할지 몰라도 당하는 이들은 골병이 든다. 《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80>

야누스-족(Janus族) 영+한 「명」 『사회』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신(神)인 야누스처럼 낮에는 직장 일에 열중하고 퇴근 후엔 활동적인 레포츠

를 즐기며 일상과 대비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부류. 『{야누스족 이} 많아지면서 일부 스키장은…새벽까지 개장 시간을 늘리고, 폐장 때 무료 셔틀을 운영하는 등 이들을 겨냥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경제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70>

화석 선배(化石先輩) 한_한 「구」 졸업을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졸업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남아 있는 선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실제로 대학생 10명 중 6명은 {화석 선배를} 보며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 2015년 3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69>

덕-무룩(<영>duck무룩) 영+고 「명」 표정이나 느낌이 시무룩한 오리. 『OO 호수 고무 오리 OO이 첫날부터 시무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덕무룩이란} 별명까지 나온 상황이다. 《시사위크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67>

개-이득(개利得) 고+한 [개 : 이득] [개이득만[개 : 이득만]] 「명」 아주 큰 이익을 얻음. 또는 그 이익. 『여기 앉아서 OO 선배님들의 라이브도 듣고 {개이득이다}. 《오에스이엔 2015년 9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66>

뇌섹 남녀(腦<영>←sexy男女) (한+영)_한 「구」 ‘뇌가 섹시한 남자와 여자’를 줄여 이르는 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재치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킨다. 『6월 15일 방송된 OO 월화 드라마 OO 19회에서는 ‘{뇌섹 남녀}들의’ 두뇌 게임과 함께 주변 인물들의 갈등도 소용돌이치며 숨 쉴 틈 없는 쫄깃한 전개를 선보였다. 《뉴스엔 2015년 6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64>

노키즈^존(<영>no kids zone) 영^영 『사회』 영유아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 내 아이만을 우선시하는 부모의 이기주의에 반발하거나 아이와 동행하지 않은 다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영유아나 아동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카페나 음식점 따위를 의미한다. 『일부 식당 카페 등에서 5세 미만 아동은 출입 금지하는 {노키즈 존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민일보 2014년 8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59>

심장 폭행(心臟暴行) 한_한 「구」 심장에 폭행을 가함. 보는 사람의 심장에 무리를 줄 만큼 아름답거나 멋있거나 귀여움의 정도가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연말에 {심장 폭행이라니}.”, “진짜 너무 예쁘잖아.” 등의 큰 호감을 보였다. 《스타뉴스 2014년 12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59>

카톡튀(<영>←camera톡튀) 영+고 「명」 카메라의 렌즈가 툭 튀어나오게 디자인함. 또는 그런 디자인의 핸드폰. 『올 하반기 스마트폰 디자인의 최대 이슈는 ‘{카톡튀}다}. 《조선비즈 2014년 10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59>

딸통-법(딸通法) (고+한)+한 [딸통뽀] [딸통법만[딸통뽀만]] 「명」 불법 음란물의 소지 또는 유통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비꼬아 이르는 말. 2015년 4월 16일부터 발효된 전기 통신 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인 소위 ‘단통법’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딸통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열 시스템이다. 《블로터 2015년 4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58>

핵-잼(核冪) 한+고 [핵잼] 「명」 매우 재미가 있음. 또는 그런 일. 『‘꿀벅지’를 통해 잘 알려진 ‘꿀’, ‘개이득’을 통해 알려진 ‘개’, ‘{핵잼}을’ 통해 알려진 ‘핵’ 등은 동사와 명사를 가리지 않고 접두어로 사용된다. 《머니투데이 2015년 3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57>

메신저^강박증(<영>messenger強迫症) 영^한 『의학』 과도한 메신저 사용으로 인해 메신저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메신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질환. 회사나 직장 따위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함으로써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증상을 말한다. 『메신저 증후군이란 {메신저 강박증이라고도} 하며 스마트폰 메신저를 업무에 이용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서울경제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52>

랜선 맘(<영>LAN線<영>mom) (영+한)_영 「구」 육아 예능 따위의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들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통신망인 ‘랜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요즘 {랜선 맘들이} 열광하는 아가는 단연 텔런트 000 씨의 세쌍둥이 아들 000·000·000다. 《중앙일보 2015년 1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8>

메뚜기-족(메뚜기族) 고+한 [메뚜기족] [메뚜기족만[메뚜기종만]] 「명」 『사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사 모으는 사람이나 무리를 낚잡아 이르는 말. 판매 수량에 제한이 있는 담배를 낚개로 사서 모으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 다니는 모습을 메뚜기가 뛰는 모습에 빗댄 말이다. 『최대한 담배를 확보하려고 업체를 도는 흡연자들을 두고 {메뚜기족} 또는 다람쥐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48>

스웨그^룩(<영>swag look) 영^영 『패션』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면서 편안하고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는 옷. 또는 그런 옷차림. 『20대 사이에서는 정형화되지 않은 자기 고유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여유 있게 표현하는 스타일인 ‘{스웨그 룩’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디어펜 2015년 5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48>

담배^재테크(담배財<영>tech) 고^(한+영) 『경제』 담뱃값이 인상될 것에 대비해 미리 다량의 담배를 사재기한 후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 그 담배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내년 담뱃값 인상 전 담배를 사재기했다 되팔자는 일명 {담배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테

일리한국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45>

래시^가드^룩(<영>rash guard look) 영^영^영 『패션』 래시 가드로 몸매와 각선미를 강조하는 옷차림. 주로 해변이나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할 때 입는다. 『스포츠웨어 전문 브랜드 OO는 배우 OOO를 공식 모델로 내세워 {래시 가드 룩을}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43>

딘치-족(<영>←dinner lunch族) 영+한 「명」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 사이에 점심과 저녁을 겸해서 밥을 먹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외식업계는 {딘치족이} 등장한 이유를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서 찾는다. <매일경제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40>

중고나라 론(中古나라<영>loan) (한+고)_영 「구」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중고 물품을 이용해 사기를 쳐 돈을 버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중고나라 론'이란} 단어를 검색하자 중고 물품 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부산일보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9>

문송(文悚) 한+한 [문송] 「명」 '문과라서 죄송'을 줄여 이르는 말. 인문계 출신 대학 졸업자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중에서도 '인구론'(인문계 대졸자 90%가 논다)과 '{문송'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인문계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의 취업난은 극히 열악하다. <뉴스토마토 2015년 5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8>

설명-충(說明蟲) 한+한 [설명충] 「명」 알 만한 내용을 지루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설명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니 이미 {설명충이} 돼 버린 기분이다. <미디어오늘 2015년 1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38>

스펙 깡패(<영>←specification깡牌) 영_(고+한) 「구」 매우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뿐만 아니라 000은 ‘세계 5대 은행’으로 꼽히는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 인턴을 수료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영어·스페인어·독일어 등 4개 국어 구사가 가능한 소위 ‘스펙 짱패’다.』 《헤럴드팝 2015년 3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8>

잉글리시^푸어(<영>english poor) 영^영 『경제』 취업을 위한 영어 공부에 과도한 교육비를 지출해 가난한 사람. 또는 그런 현상. 『지속되는 취업난 속 경제적 빈곤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에듀 푸어에 이어 {잉글리시 푸어도} 등장했다.』 《천지일보 2014년 12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38>

곰-맘(곰<영>mom) 고+영 「명」 군대에 있는 아들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를 하는 어머니.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성을 뜻하는 ‘곰신’에 엄마를 뜻하는 ‘맘(mom)’이 결합된 말이다. 『최근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군 생활 중인 아들을 위해 위문 용품을 사는 {곰맘이} 늘어났다.』 《동아일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37>

의경^고시(義警考試) 한^한 『사회』 의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 의경이 되기가 매우 어려움을 ‘고등 고시’에 빗대어 이르는 말. 『의경에 합격하기 위해 채수나 삼수를 하는 응시자도 있다. 이 때문에 {의경 고시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중앙일보 2015년 6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37>

메신저^피로^증후군(<영>messenger疲勞症候群) 영^한^한 『의학』 과도한 메신저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 이르는 말. 회사나 직장 따위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함으로써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메신저 강박증이 대표적이다. =메신저 증후군(<영>messenger症候群). 『메신저 증후군은…{메신저 피로 증후군} 혹은 메신저 강박증이라고도 한다.』 《동아일보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6>

노푸-족(<영>no←shampoo族) 영+한 「명」 『사회』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 머리를 감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노푸 방법이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노푸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즈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5>

사이다-녀(<영>cider女) 영+한 「명」 청량음료의 하나인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여자. 『특히 000는 최대의 악녀 000을 연기하는 000의 기를 누르는 연기로 {사이다녀라는} 평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2015년 8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35>

여자-여자(女子女子) 한+한 [여자유자] 「명」 아주 여성스러움. 『이젠 습관이 돼서 저절로 한쪽 눈이 감겨요. 그러다가...요즘은 의식적으로 눈을 감지 않으려고 해요. 콘셉트가 {여자유자랄까}. <헤럴드경제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35>

외발 전동 휠(외발電動<영>wheel) 고_한_영 「구」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외발 바퀴. 『언제부터인가 {외발 전동 휠을}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해 주위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다. <시엔비뉴스 2015년 6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4>

컨슈니어(<영>←consumer engineer) 영+영 「명」 『경제』 물건을 구매할 때, 전문가 못지않은 자격이나 지식을 갖추고 물건의 성분과 품질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 『전문가 못지않은 기술과 의식으로 무장한 이들을 가리켜 ‘{컨슈니어’라고} 부른다. <월간마이더스 2015년 3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34>

플레셋-탄(<프>flechette彈) 프+한 「명」 『군사』 많은 수의 작은 화살을 큰 탄알 속에 넣어 만든 포탄. 큰 탄알이 폭발하면 작은 화살이 튀어 나가서 살상·파괴의 범위가 넓어진다. 『22일 OO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OO이 OO를

공격할 때 집속탄의 일종인 ‘{플레세트탄’을} 사용해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다. 《경향신문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34>

골반 강패(骨盤강패) 한_ (고+한) 「구」 허리가 가늘고 골반이 커서 허리에서 골반까지의 선이 예쁜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최근 뒤태의 아름다움이 주목받으면서 ‘애플 힙’, ‘{골반 강패}’ 등과 같은 단어가 등장했다. 《국제뉴스 2015년 6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3>

옥커(辱<영>er) 한+영 「명」 옥을 잘하는 사람. 『OOO는 식사 시간 동안 술한 비속어를 쏟아 냈고 진정한 {옥커의} 면모를 보였다. 《뉴스엔 2014년 10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33>

반퇴^세대(半退世代) 한^한 『사회』 조기 퇴직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세대.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은퇴 시기는 앞당겨져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며 계속 직업을 가져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하지만 직장생활에만 익숙해진 {반퇴 세대들은} 사업 경험이 전무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경제 2015년 3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2>

여혐(女嫌) 한 [여혐] 「명」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함. 『{여혐은} 전파력이 높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동아일보 2015년 9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2>

모루밍(<영>▼←mobile showrooming) 영 「명」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뒤, 쇼핑은 모바일로 하는 일. 『최근에는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쇼루밍을 넘어 {모루밍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2014년 11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31>

삼한^사미(三寒四微) 한^한 『지리』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자주 끼는 기후 현상. 7일을 주기로 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 미세먼지가 낀다는 뜻이다. 『특히 올겨울에는 {삼한 사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

면서 클렌징과 보습의 중요성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스포츠조선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1>

임팩트볼^측정법(<영>▼**impact ball測定法**) 영^한 『건설』 2.5kg 정도의 고무공을 이용하여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중량 충격음 1등급의 경우 뱅머신 측정법으로는 40dB을 충족하면 되지만 {임팩트볼 측정법}은} 37dB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신문 2015년 8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1>

카하이-오일(kahai<영>oil) 영 「명」 카카이(cacay) 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최근 아마존의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카하이오일} 기존 아르간오일의 아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화장품 원료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경제 2015년 2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31>

편도-족(便도族) (한+고)+한 [편도족] [편도족만[편도종만]] 「명」 ‘편의점 도시락족’을 줄여 이르는 말.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생긴 말이다. 『1인 가구 증가 같은 인구 구조 변화 및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편도족}’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일보 2015년 5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30>

겨터파크(겨<영>←water park) 고+영 「명」 겨드랑이에서 흥건하게 나는 땀을 워터파크에 빗대어 이르는 말. 『{겨터파크}는} 겨드랑이와 워터파크의 합성어로 겨드랑이 땀이 물이 쏟아지듯 나올 때 쓰는 말이다. 《국민일보 2015년 7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29>

서상커(<중>shesangke[奢尙客]) 중 「명」 세련된 취향과 높은 구매력을 갖추어 비싸고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는 중국인 관광객. 『돈을 아끼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거물이 있다. 엄청난 구매력을 자랑하는 이들은 {서상커라고} 불린다. 《동아일보 2014년 12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29>

인생템(人生<영>←item) 한+영 「명」 평생 쓰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잘 맞는 물건. 『커버력과 지속력 그리고 수분감까지 더해진 제품이라면 {인생템으로} 삼아라. <한국경제 2015년 6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29>

발 셀카(발<영>←self camera) 한_영 「구」 셔터를 발로 눌러서 찍은 것처럼 품질이 낮은 셀프 카메라. 또는 그런 사진. 『특히 000은 훈남 외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일명 ‘{발 셀카}의’ 면모가 보이는 셀카 실력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뉴스투데이 2015년 3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28>

실물 강패(實物强牌) 한_(고+한) 「구」 사진이나 영상 따위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나은 물건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 실물다 봤는데, 000 {실물 강패임}. <뉴스엔 2015년 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28>

심쿵-녀(心쿵女) (한+고)+한 [심쿵녀] 「명」 심장이 쿵쿵거리며 세게 뛰거나 쿵 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거나 귀여운 여자. 『000의 여성스러운 파스텔톤 스타일링을 배우면 나도 {심쿵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스포츠조선 2015년 3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28>

우버-화(Uber化) 영+한 「명」 『경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하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사(Uber Technologies Incorporated)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차 프로그램에서 유래한 말로, ‘우버’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손님과 자신의 차로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수 있는 택시 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우버화로} 다양한 사업 기회와 고용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있지만, {우버화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시사인라이브 2015년 5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28>

카스-설(▼←Kakao Story說▽) 영+한 「명」 ‘카스설’을 변형한 말로,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스토리(Kakao Story)’에서, 자신이 경

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의 생각을 남에게 일러 주는 말. 주로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내어 ‘카카오스토리(Kakao Story)’에 게재하는 글을 가리킨다. 『그룹 OO이 주인공인 {카스썰의} 작가 OOO 양은 “예전에는 글짓기 연습을 해도 평가받을 기회가 없어 내게 소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카스썰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4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27>

개-저씨 고+고 [개:저씨] 「명」 행실이 나쁘거나 매우 못된 성인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OOO은 {개저씨란} 낙인이 찍히며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 사건의 대표 주자가 돼 버렸다. 《스타뉴스 2014년 12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26>

혼밥-남(혼밥男) 고+고+한 [혼밥남] 「명」 ‘혼자 밥을 먹는 남자’를 줄여 이르는 말. 『그는 화장실의 ‘{혼밥남’에서부터} 대학생들이라면 공감할 팀 프로젝트, 고학력 인문학도들의 고단한 취업난 등 다양한 소재를 잘 버무려 냈다. 《엑스포츠뉴스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26>

연애-썰(戀愛說▽) 한+한 [여:내썰] 「명」 ‘연애설’을 변형한 말로, 자신이 연애를 하면서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남에게 일러 주는 말. 『실제 연애 경험담으로 솔직하고 리얼하게 그려진 이 웹툰은…누구나 겪어 봤을 {연애썰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2030 세대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며 팬덤을 형성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5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25>

낮-닝겐(<영>not<일>ningen[人間]) 영+일 「명」 외모나 능력 따위가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또는 그런 사람. 『이날 멤버들은 10대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 {낮닝겐의} 의미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뉴스1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24>

튀-맥(튀麥) 고+한 [튀맥] [튀맥만[튀맥만]] 「명」 튀김과 맥주를 아울러 이

르는 말. 『‘치맥’이 ‘튀맥’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4년 10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24>

사이다-남(<영>cider男) 영+한 「명」 청량음료의 하나인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남자. 『OO는 시청자들의 답답했던 속을 뽕 뚫리게 하는 {사이다남}, 탄산남의 등장을 예고하며 누리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스웨이 2015년 5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23>

크로스^쇼퍼(<영>cross shopper) 영^영 『경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파워와 같이 서로 다른 환경이나 영역을 넘나들며 물건을 사는 사람.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쇼핑을 즐기는 {크로스 쇼퍼가} 증가하면서 유통 채널 간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주간동아 2014년 12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23>

샵쥬 고 [샵쥬] 「명」 ‘시아버지’의 준말. 『이어 OOO는 “경쟁력이 없는 언어는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라며 “{샵쥬}를} 아느냐. 주부들 사이에서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다. 잠깐 유행처럼 지나가는 그들만의 문화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엑스포츠뉴스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22>

여덕-몰이(女<일>←otaku[御宅]몰이) (한+일)+고 「명」 여자 연예인이 여성팬들을 몰고 다니는 일. 『OO은 걸그룹 아이돌 중에서도 ‘{여덕몰이}’의} 대가로 손꼽힌다. 《톱스타뉴스 2015년 4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22>

파티스트(<영>▼←party artist) 영+영 「명」 파티의 기획, 연출, 진행 파워의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국내 최초의 {파티스트} OOO이…국내 1호 {파티스트로} 웨딩업계 및 우리나라 전체에 파티 문화를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되었다. 《한국경제티브이 2015년 5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22>

반퇴-자(半退者) 한+한 [반: 퇴자/반: 뤼자] 「명」 『사회』 조기 퇴직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 『또 {반퇴자들} 상당수가 임시직에 종사하는 등 노동의 질도 열악해, 노동 시장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비에스 2015년 2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20>

샐러리데이팅(<영>◀salaryman dating) 영+영 「명」 샐러리맨을 위해 짝을 찾아 주고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 『싱글 직장인을 위한 {샐러리데이팅} OO가 올해 5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지 1주년이 된다. <아크로팬 2015년 5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20>

셀카 고자(<영>◀self camera鼓子) 영_한 「구」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평소 OO는 셀카를 못 찍어 {셀카 고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이번 셀카도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아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한강타임즈 2014년 12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9>

셀-만화(說▽漫畫) 한+한 [셀만화] 「명」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소재로 한 만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만화이다. 『특히 ‘{셀만화}’라는 짧은 카툰은 웹툰에서 나름의 고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한국 2015년 7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9>

윈윈^페이(<영>win-win pay) 영^영 『사회』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알맞은 임금을 지급하고, 피고용자는 노동한 대가로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것. 『이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합심해서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윈윈 페이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티엔티브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9>

메르스^폐기물(<영>MERS廢棄物) 영^한 『사회』 메르스로 인하여 생긴 의료 폐기물. 『{메르스 폐기물로} 인해 추가 전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하고 안

전한 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뉴시스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8>

물-뺱(物뺱) 한+고 [물뺱] 「명」 ‘물적 피해 뺱소니’를 줄여 이르는 말.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고 몰래 달아나는 짓을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물뺱은} 지역 주민의 생활 현실을 보여 주는 지표.”라며 “보다 명확한 처벌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8>

세이프슈머(<영>safe←consumer) 영+영 「명」 『경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소비자 {세이프슈머들이}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인증받은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일보 2014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8>

청순 보스(淸純<영>boss) 한_영 「구」 매우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청순하기가 보스(boss) 급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그의 청순하면서도 남자다운 이중적 매력에 시청자들은 ‘{청순 보스’라는} 애칭까지 새롭게 만들어 내며 그의 매력을 콕콕 짚어 내고 있다. <한국경제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17>

포레듀케이션(<영>←forest education) 영+영 「명」 숲 따위와 같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교실에서 행해지는 교육보다 신체 발달이 더 잘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이나 사회성도 더 키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교육 방식이다. 『교실 안에서만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자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나 사회성, 창의성 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숲과 교육의 합성어인 ‘{포레듀케이션’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비에스시엔비시티브이 2015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7>

뇌섹-인(腦<영>←sexy人) (한+영)+한 「명」 ‘뇌가 섹시한 인간’을 줄여 이르는

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재치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요즘은 {뇌섹인어} 인기라면서요? 《코메디닷컴 2015년 5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덕-페이스(<영>duck face) 영+영 「명」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오리처럼 입을 빼죽 내미는 표정. 또는 그런 표정을 한 얼굴. 『최근 셀카를 찍으며 입술을 내미는 표정을 의미하는 {덕페이스가}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 온라인판에 신조어로 등재됐다. 《중앙일보 2014년 12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랜선 이모(<영>LAN線姨母) (영+한)_한 「구」 육아 예능 따위의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들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통신망인 ‘랜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남의 아이를 자신의 조카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000·000의 수족구병에 “아기들 많이 힘들고 아팠겠다.”,···“{랜선 이모} 마음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엑스포츠뉴스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리너기스트(<독>linergist) 독 「명」 『패션』 반영구 화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OO는 향후에도 세미나를 꾸준히 열어 {리너기스트} 배출을 위한 길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티브이 2015년 9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문송-하다(文悚하다) 한+고 [문송하다] 「형」 문과라서 죄송하다. 인문계 출신 대학 졸업자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인구론, {문송합니다}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문 계열 학생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코노믹리뷰 2015년 6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뱅머신^측정법(<영>▼bang machine測定法) 영^한 『건설』 7.3kg 정도의 타이어를 이용하여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층간 소음 바닥 자재 평가 방법으로 기존 {뱅머신

측정법} 외에 임팩트볼 측정법을 추가로 도입했다. 《뉴데일리 2015년 3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16>

증거 중독자(證據中毒者) 한_한 「구」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에 집착하는 사람.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비교하는 소비자를 주로 가리킨다. 『제품 설명서 없는 물건은 도통 구입하려 하지 않는 ‘{증거 중독자}’들도} 기업을 곤혹스럽게 하는 존재들이다. 《아시아경제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16>

한복 여행가(韓服旅行家) 한_한 「구」 한복을 입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요즘 한복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모여면서 한복을 입고 여행을 떠나는 {한복 여행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케이티브이국민방송 2015년 7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6>

귀염-사(귀염死) 고+한 [귀 : 염사] 「명」 어떤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너무 귀여워서 죽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죽을 만큼 어떤 대상이 귀엽다고 느끼는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OOO이 {귀염사} 유발하는 꿀벌 소녀로 변신했다. 《한국경제티브이 2015년 5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5>

냥-집사(냥執事) 고+한 [냥집싸] 「명」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양이 애호가들의 커뮤니티에선 고양이를 키우는 자신들을 {냥집사라고} 부른다. 《한겨레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5>

다람쥐-족(다람쥐族) 고+한 [다람쥐족] [다람쥐족만[다람쥐종만]] 「명」 『사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사 모으는 사람이나 무리를 낚잡아 이르는 말.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 판매 수량에 제한이 있는 담배를 낚개로 사서 모으는 행위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한곳에서 1인당 파는 담배의 양을 제한하자 편의점을 돌며 도토리 모으듯 2~3갑씩 담배를 사 모으는 {다람쥐족이} 등장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다. 《스포츠경향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5>

사바사(사<영>←by사) 고+영+고 「명」 ‘사람 바이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사람에게 따라서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OOO OO OOO, {사바사} 케바케.”, “OOO OO OOO, 그럼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 하시든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5>

셀프기프팅-족(<영>self gifting族) 영+한 「명」 『사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선물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셀프기프팅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다. 《이데일리 2015년 1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5>

해먹-남(해 먹男) 고+한 [해명남] 「명」 음식을 직접 해서 먹는 남자. 주로 조리 과정이 단순하지 않은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남자를 의미한다. 『라면을 끓여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냉동식품을 데워 먹는 수준에 그쳤던 ‘혼자 먹는 남자’들이 ‘{해먹남’으로} 진화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15>

경포감(警抛監) 한+한+한 [경 : 포감] 「명」 ‘경정 승진을 포기한 채 정년퇴직을 기다리는 경감’을 줄여 이르는 말. 10년 이상 경정으로 승진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경정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정년퇴직만을 기다리는 경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찰청이 정년만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경포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다. 《뉴데일리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4>

궁예-질(弓裔질) 한+고 [궁예질] 「명」 어떤 사실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멋대로 추측하고 판단하는 짓. 자신이 상대방의 몸가짐이나 얼굴 표정 따위로 속마음을 알아내는 기술인 관심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궁예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이들의 이런 애매한 범행은 종종 룸메이트 사이에 {궁예질이} 난무하게 만들기도 한다. 《위키트리 2014년 11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4>

센-송(<일>sen[鮮]棟) 일+한 「명」 자신이 한국인인 사실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 ‘조선인’의 일본식 발음인 ‘조센진’과 ‘죄송’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총 3만 2,289표 중 1만 7,560표를 얻은 ‘{센송’은}…일부 한국 젊은이들이 자신의 자괴감과 열등의식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고를 치거나 일본과 관련된 글의 댓글에 해당 단어가 달리면서 유행어가 되었다. 《아주경제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4>

심멧 주의(心멧注意) (한+고)_한 「구」 앞으로 보게 될 장면 따위가 심장이 멎을 만큼 놀라울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주로 게시물에 아주 멋지거나 아름다운 연예인의 사진 또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거나, 너무 무섭거나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독자나 시청자가 놀라지 않게 미리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주의를 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교복을 입은 OOO는…벽에 기대어 그윽한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는 치명적인 매력까지 선보이며 {심멧 주의}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 《매일신문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14>

핵-공감(核共感) 한+한 [핵공감] 「명」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매우 크게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배우 OOO이 OO 드라마 OO에서 매회 시청자들의 ‘{핵공감’을} 이끌어 내는 ‘명대사 제조기’가 되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5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4>

걸-크러시(<영>girl crush) 영+영 「명」 여성이 자신의 매력으로 다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음. 『OO은 지난 2월 OO를 통해 ‘{걸크러시’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며 국내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3>

심쿵-사(心쿵死) (한+고)+한 [심쿵사] 「명」 심장이 쿵쿵거리며 너무 세게 뛰거나 쿵 하고 내려앉아서 죽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가슴이 세

게 될 만큼 어떤 대상이 아름답거나 멋지거나 귀엽다고 느끼는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OO OOO의 OOO에 대한 진심이 묻어나는 에필로그가 공개돼 시청자들의 ‘{심쿵사’를} 유발했다. 《스포츠투데이 2015년 6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3>

여자여자-하다(女子女子하다) 한+고 [여자여자하다] 「형」 아주 여성스럽다. 『OOO은 29일 자신의 OO에 “...내가 {여자여자해} 보이는 법, 반목음, 샤랄라 원피스 그리고……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라는 글과 함께 암전한 모습의 사진을 한 장 게재했다. 《오에스이엔 2015년 6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3>

핵-노답(核<영>no答) 한+(영+한) 「명」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거나 아예 없음. 또는 그런 일. 『관객들의 외면을 받아도 ‘{핵노답’으로} 일관할지 지켜볼 일이다. 《매일경제 2015년 4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3>

혁신^기러기(革新기러기) 한^고 『사회』 혁신 도시에 거주하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 주로 공공기관이 혁신 도시로 이전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된 공공기관 근무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많은 ‘{혁신 기러기’를} 양산하고 있다. 《일요신문 2015년 6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3>

혼-술 고+고 [혼술] 「명」 ‘혼자 먹는 술’을 줄여 이르는 말. 『이 유형의 사람들 다수는 혼밥의 자유로움, 혼밥의 편함 등을 내세우면서 혼밥의 고독을 ‘{혼술’로} 감당해 가고 있다. 《한국일보 2015년 8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13>

취켓팅(取<영>←ticketing) 한+영 「명」 다른 사람이 취소한 차표나 입장권 따위의 표를 삼.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공연계에서는 {취켓팅이} 벌어지는 콘서트가 진짜 인기 공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뉴스24 2014년 11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펠비지(<영>pelvage) 영 「명」 골반과 그 주위의 오목하게 팬 부분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골반을 뜻하는 펠비스(pelvis)와 가슴골을 뜻하는 클리비지(cleavage)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OOO는 물론 OO의 OOO까지, 이들이 {펠비지}를 드러내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보그 2015년 2월> 【←pelvis+cleavage】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펫 부머(<영>pet←baby boomer) 영_영 「구」 애완동물에 관심이 있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베이비 붐 세대. 주로 은퇴한 후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베이비 붐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펫 부머}’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머니위크 2014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피캉스-족(皮<프>←vacance族) (한+프)+한 「명」 『사회』 피부과 병원에서 피부 치료를 받으며 여름휴가를 보내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바캉스 대신 피부과로 바캉스를 떠나는 ‘{피캉스족}’이 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해먹-방(해먹放) 고+한 [해먹방] 「명」 음식을 직접 해서 먹는 행위를 보여 주는 방송. 『‘먹방’을 넘어 ‘{해먹방}’이 뜨고 있는 지금, OO와 OO는 ‘먹방’을 관통하는 문화 코드를 분석해 봤다. <머니투데이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험블브래그(<영>humblebrag) 영 「명」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함. 또는 그런 일. 『지난해 옥스퍼드 사전에 오른 신조어 가운데 {험블브래그라는} 단어가 있다. <중앙일보 2015년 8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힘-희롱(힘戲弄) 고+한 [힘희롱] 「명」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 또는 그런 행위. 『{힘희롱을} 저지른 주체는 대부분 ‘높은 사람’, ‘배운 사람’이었다. <조선비즈 2015년 1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2>

낄끼-빠빠 고+고+고+고 [낄끼빠빠] 「명」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함’
를 줄여 이르는 말. 『투자의 기본은 {낄끼빠빠다}.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과감히 빠져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뉴시스 2015년 3월》 【2015년 2월 신
어】 <2015년 빈도: 11>

노-이해(<영>no理解) 영+한 「명」 이해를 하지 못함. 또는 이해가 되지 않음.
『영화를 봤는데 기대만큼 재밌지 않을 때 “이 영화가 왜 평점에서 높은 점수
를 받았는지 정말 {노이해다}.”라고 말한다. 《헬스조선 2014년 9월》 【2014
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1>

안전 이별(安全離別) 한_한 「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이
별. 『사랑도 이별도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 이별’이라는} 단
어가 등장했다. 《일요신문 2015년 10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
도: 11>

인텔리슈머(<영>▼←intelligent consumer) 영+영 「명」 『경제』 물건을 살 때
똑똑하고 총명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 『최근 가격은 물론
디자인, 성능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지는 {인텔리슈머가} 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11>

짤-줍 고+고 [짤줍] [짤줍만[짤줍만]] 「명」 다른 사람이 게시한 그림 파일
을 내려받음. 또는 그런 일. 『OOO은 “단체 채팅방에...사진만 올라오면 다들
‘{짤줍’이라면서} 다 퍼갔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4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1>

찍먹-계(찍 먹界) 고+한 [찍먹계/찍먹계] 「명」 탕수육을 먹을 때에 튀긴 소고
기나 돼지고기 위에 소스를 부어 먹는 것에 반하여, 튀긴 고기를 소스에 찍
어 먹는 사람들의 부류. 『“바삭바삭한 식감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찍먹계의} 주장이다. 《국민일
보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11>

차애(次愛) 한 [차애] 「명」 두 번째로 사랑하고 아낌. 『나에게 {차애란}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애들은 다 예쁜데 어떻게 {차애를} 만들 수가 있어? 《톱스타뉴스 2015년 3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11>

프릿^밀봉(<영>frit密封) 영^한 『공업』 두 개의 판 사이에 넣은 유리를 레이저로 녹여서 두 개의 판을 단단히 붙여 꼭 봉함. 『기존에는 전통적인 오엘이디(OLED) 밀봉 방식으로…{프릿 밀봉과} 에지(edge) 밀봉이 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박막 밀봉과 접착 필름 밀봉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디넷코리아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1>

효과툰(效果<영>←cartoon) 한+영 「명」 소리나 영상 따위로 그 장면에 알맞은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실감이 나게 만든 만화. 『OO는 최근 선보인 ‘웹툰 효과 에디터’라는 저작 도구로 만들어진 웹툰을 ‘{효과툰’이라} 이름 붙였다. 《블로터 2015년 9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1>

개-노답(개<영>no答) 고+(영+한) 「명」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거나 아예 없음. 또는 그런 일. 『요즘 애들이 당신 같은 사람 보고 뭐라는 줄 알아? 노답. {개노답}. 당신, {개노답이야}. 《엑스포즈뉴스 2015년 9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0>

메르스^피난민(<영>MERS避難民) 영^한 『사회』 메르스를 피하여 가는 사람. 전염성이 강한 메르스가 유행하여 메르스가 발병하지 않은 지역으로 옮겨 가는 사람을 이른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피해 수도권에서 대구, 경북으로 오는 ‘{메르스 피난민’이} 줄을 잇고 있다. 《매일신문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0>

인생-샷(人生<영>shot) 한+영 「명」 한평생 길이 남을 만큼 잘 나온 사진.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폰카로 {인생샷}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보여 주고 싶을 정도의 인물 사진은 만들 수 있다. 《동아일보 2015년 5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0>

창위랍토르(<영>changyuraptor) 영 「명」 『동물』 백악기 전기에 살던, 하늘을 나는 육식 공룡. 몸길이는 1.3m 정도이며, 온몸이 긴 깃털로 덮여 있다. 무게는 4kg 정도이며, 꼬리가 매우 길다. 하늘을 나는 공룡 중에서 몸집이 큰 편에 속한다. 『긴 날개를 가졌다는 뜻의 중국어를 따서 ‘{창위랍토르’라} 명명된 이 공룡은 마치 복엽기처럼 몸 양옆에 한 쌍씩의 날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2014년 7월》 [←changyu[長羽]+raptor]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0>

포텐 가전(<영>←potential家電) 영_한 「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가전제품. 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기능이 있거나 기대보다 성능이 더 좋은 가전제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 {포텐 가전으로} OO 청소기 OO가 꼽힌다. 《메트로신문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0>

골목길 순례자(골목길巡禮者) 고_한 「구」 여러 골목길을 찾아다니며 관광하는 사람. 소자본과 다양한 문화로 재탄생된 골목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골목길을 관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OOO 교수가 이끄는 OO대 OO 센터는…{골목길 순례자들이} 2015년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측했다. 《뉴시스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9>

그로서런트(<영>grocerant) 영 「명」 식재료를 파는 식품점과 그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음식점이 함께 있는 가게. 『고급 입맛에 맞추자니 비싸고 대중 집에서 해 먹자니 맛이 없다. ‘{그로서런트’는} 이런 고민을 가진 소비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다. 《광주드림 2014년 12월》 [←grocery+restaurant]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9>

길 과장(길課長) 고_한 「구」 출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과장 직위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과장 직위의 공무원을 이르는 말이다.
 ¶2012년 7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세종시에 근무하
 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 입길에 자주 오르는 말이 {길 과장이나} 길 국장이
 다. 《연합뉴스 2015년 5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9>

내적 댄스(内的<영>dance) 한_영 「구」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 속으로만 추
 는 춤. ¶음악 팬들은 이들의 노래를 {내적 댄스}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라고
 한다. 《스타서울티브이 2014년 12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9>

뉴^노멀^붐(<영>new normal boom) 영^영^영 『경제』 초저금리로 인해 유동 자
 금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 거품을
 형성하는 현상.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인 ‘뉴 노멀(new
 normal)’에 거품 형성을 뜻하는 ‘붐(boom)’이 결합된 말이다. ¶{뉴 노멀 붐
 은}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저금리·저성장 흐름이 오
 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매일경제 2015년 1
 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9>

밀-프렙(<영>meal prep) 영+영 「명」 일정 기간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는
 일. 식단에 따라 재료 준비나 조리 따위를 한 번에 몰아서 하여 식사할 때에
 는 미리 준비해 둔 음식을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밀프렙을} 위해선 우선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의 영양소가 균형을 이
 루도록 식단을 짜고 그에 맞게 식재료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조세일보
 2014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9>

반퇴^자산(半退資産) 한^한 『사회』 반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산.
 ¶또 {반퇴 자산은} 환금성을 따져야 한다.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
 도 수익이 없다면 노후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중앙일보 2015년 2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9>

셀-고(<영>←self camera鼓) 영+한 「명」 ‘셀카 고자’를 줄여 이르는 말.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이다. 『가수 000이 자신이 {셀고임을} 인증했다. 《오에스이엔 2015년 6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9>

쉐깅스(<영>◀←shape leggings) 영 「명」 『패션』 배와 허리, 다리의 결점을 감추어 맵시를 내거나 하체의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 입는 레깅스. 『{쉐깅스는}…특수한 소재 또는 특수 직조법으로 만들어 신고 있기만 해도 몸매가 보정되는 레깅스를 가리킨다. 《코메디닷컴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9>

어번^그래니족(<영>urban granny族) 영^(영+한) 『사회』 도시적이고 세련된 할머니. 또는 그런 할머니들의 무리. 주로 자신의 건강과 외모 따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을 이르는 말이다. 『‘신세대 할머니’라고도 불리는 {어번 그래니족은}…특히 젊음을 되찾기 위한 외모 관리에 큰 관심을 보인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9>

엔분의 일 잡(<영>n分の 一<영>job) (영+한+고)_한_영 「구」 일정한 소속이 없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나 집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식. 『과거에는 자신의 재능·경험 등을 포함한 일체의 노동력을 하나의 조직에 속하도록 해서 사실상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조직에 ‘바치는’ 고용 형태였다면, ‘{엔분의 일 잡}은’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재능·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개인·조직·프로젝트 등에 나눠서 배분하는 식으로 일하는 방식이다. 《더스쿠프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9>

온라인^카니발라이제이션(<영>online carnibalization) 영^영 『경제』 온라인상에서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이는 오프라인 고객의 대체이며, 온라인상에서의 상품 판매로 인한 수수료나 광고비 등은 오히려 늘어나 수익률을 잠식하는 현상.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은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포커스 - 201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에서 {온라인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중소기업이 ‘경계’해야 할 5대 이슈의 하나로 선정했다. 《노컷뉴스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9>

우버링(Ubering) 영 「명」 『경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일.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사(Uber Technologies Incorporated)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차 프로그램에서 유래한 말로, ‘우버’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손님과 자신의 차로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수 있는 택시 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 OO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우버링}이다.』 <울산매일신문 2014년 11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9>

케미 강패(<영><←chemistry강牌) 영_(고+한) 「구」 서로 매우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O OOO, 유부남들은 어떻게 ‘{케미 강패}’가 됐나? <뉴스엔 2015년 2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9>

히든 시티(<영>hidden city) 영_영 「구」 히든 시티 티케팅을 할 때,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실제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인 경유지를 이르는 말.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바로 ‘{히든 시티}입니다.』 <시선뉴스 2015년 8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9>

히든 시티 티케팅(<영>hidden city ticketing) 영_영_영 「구」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에 하차하지 않고 경유지에 하차함으로써 더 싼 값에 항공권을 구매하는 방법. 실제 목적지로 바로 가는 항공권보다 실제 목적지를 경유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항공권이 더 싼 때 후자를 선택하여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은 편도 티켓에 한해서 실제 목적지로 가는 티켓을 구입하는 대신 실제 목적지를 경유지로 하는 좀 더 싼 티켓을 구입한 후 경유지에서 다음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 ‘{히든 시티 티케팅}’ 전략으로 인터넷 항공 티켓 중개를 맡아 왔다. <라디오코리아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9>

길 국장(길局長) 고_한 「구」 출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국장 직위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국장 직위의 공무원을 이르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장관들이 세종 청사 집무실을 비우거나 외면하는 동안은 정부 세종 청사에서 소위 ‘길 과장’, ‘{길 국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뉴데일리 2015년 6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8>

냥-심(냥心) 고+한 [냥심] 「명」 고양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OO는 {냥심을} 자극하는 게임답게 고양이의 모션도 잘 되어 있다. <동아일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8>

덩키^킵(<영>donkey kick) 영^영 『운동』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등을 평평하게 고정하고 한쪽 다리의 허벅지를 등과 수평이 되게 들어 올려 발끝을 수직으로 밀었다 당겼다 하는 운동. 당나귀가 뒷발질하는 모양에서 유래한 동작이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덩키 킵} 운동을 한다. 당나귀가 뒷발질을 하는 것 같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한겨레 2015년 6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8>

맥세-권(←McDonald勢圏) (영+한)+한 「명」 특정 패스트푸드업체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세권’에 빗대어 이르는 말. 『대학가에서는 OO 햄버거 배달 가능 지역을 일컫는 ‘{맥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이를 벤치마킹한 경쟁업체는 주문 전화번호까지 비슷하게 만들었다. <한국일보 2015년 5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8>

메이비-족(<영>maybe族) 영+한 「명」 『사회』 선택을 할 때 잘 결정하지 못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저자가 보기에 {메이비족은} 주의력 결핍과 결단력 박약이라는 공통의 증상을 앓고 있다. <국민일보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8>

문구-부심(文具負心) 한+한 [문구부심] 「명」 자신이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구류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 『보통 {문구부심은} 만년필과 다이어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주간동아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8>

부먹-계(부먹界) 고+한 [부먹계/부먹께] 「명」 탕수육을 먹을 때에 튀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 것에 반하여, 튀긴 고기 위에 소스를 부어 먹는 무리. 또는 그런 부류의 사람. 『{부먹계는} “소스의 양을 조절하면서 부으면 가장 완벽한 상태로 탕수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국민일보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8>

애정템(愛情<영><-item) 한+영 「명」 『패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옷이나 소품. 『개인 OO에 평소 사용하는 제품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린 그는 ‘오늘도 내 피부를 책임져 주는 {애정템’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경제 2015년 10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8>

앵-까다 고+고 [앵까다] 「동」 ((주로 ‘앵까네’ 꼴로 쓰여))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하다. =거짓말하다. 『‘핵노잼’, ‘{앵까네}’, ‘버카충’.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쓰입니다. 《엠비엔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8>

엉덩이-턱 고+고 [엉 : 덩이턱] [엉덩이턱[엉 : 덩이턱만]] 「명」 엉덩이 모양처럼 한가운데가 오목하게 팬 턱. 『어렸을 때부터 갈라진 턱 끝 모양이 고민이었던 OOO 씨는 최근 자신과 같은 턱 유형을 가리켜 ‘{엉덩이턱’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됐다. 《헤럴드경제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8>

외발형 전동 스쿠터(외발形電動<영>scooter) (고+한)_한_영 「구」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외발 스쿠터.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들인 이 물건은 ‘외발 전동 휠’, ‘{외발형 전동 스쿠터}’ 혹은 ‘통발이’로도 불린다. 《주간조선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8>

요리사노바(料理←Casanova) 한+이 「명」 요리를 잘해서 여러 이성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 『두 사람은 이날 ‘{요리사노바}’의 면모도 과시했다. 《오에스이엔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8>

지여인(地女人) 한+한+한 [지여인] 「명」 『사회』 ‘지방대 출신의 여자 인문대생’을 줄여 이르는 말. 『30대 그룹 인사 담당 임원을 만날 때마다 ‘{지여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 2015년 4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8>

지옥불^반도(地獄불半島) (한+고)^한 『사회』 지옥의 불이 있는 반도라는 뜻으로,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금 여긴 헬조선, {지옥불 반도다}. 《국민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8>

한큐 가전(한<영>cue家電) (고+영)_한 「구」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가전제품. 주로 기능은 많지만 사용법이 간단한 가전제품을 이르는 말이다. 『‘{한큐 가전}’이란 버튼을 누르면 음식 조리부터 빨래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등 간편한 사용법과 빠른 작동 시간을 강점으로 내세운 가전제품을 말한다. 《스포츠조선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8>

항-메르스(抗<영>MERS) 한+영 「명」 『의학』 메르스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그 바이러스를 죽임. 『OO 메르스에 대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OO 메르스, 전국으로 퍼지나?”, “OO 메르스, 메르스 전파 무서워.”, “OO 메르스, {항메르스의} 효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남일보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8>

헬-조선(<영>hell朝鮮) 영+한 「명」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결합하여 만든 말로,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비유적

로 이르는 말. 『입시 지옥, 취업 지옥, 생계 지옥을 겪는 젊은 세대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한 지 꽤 되었다. 《경향신문 2015년 8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8>

고-답이 고+고 [고다비] 「명」 ‘고구마 답답이’를 줄여 이르는 말. 찢 고구마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목이 메는 느낌처럼 생각이나 행동이 매우 갑갑하게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그 사람 참 {고답이네}.”에서 ‘{고답이}’는 마치 고구마를 먹었을 때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와이티엔티브이 2015년 10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7>

공간-흔(空間痕) 한+한 [공간흔] 「명」 범죄 현장에 남겨진 혈흔 중에서 특정 물체의 모양만큼 혈흔이 비어 있는 흔적. 피의자가 혈흔이 남겨진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도주한 경우, 혈흔이 그 물건의 모양만큼 비어서 남게 되는 흔적을 말한다. 『피가 튀거나 뿌려지는 방향에 있던 물체가 막아서는 바람에 벽·바닥 등, 그 부분만 혈흔이 없는 현상인 ‘{공간흔’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던 000이 지친 모습을 보이자 O 분석관이 나섰다. 《중앙일보 2015년 2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7>

놀-족(놀族) 고+한 [놀 : 족] [놀족만[놀 : 종만]] 「명」 『사회』 일이나 업무 따위를 놀이처럼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일과 놀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지 않고 일을 재미있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나 무리를 이르는 말이다. 『20대는 {놀족이다}. 일상을 놀이처럼, 놀이를 일상처럼 즐긴다. 《마이데일리 2015년 3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7>

딤-빡(<영>deep빡) 영+고 「명」 매우 성이 나서 화가 남. 또는 그런 상태. 『시작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져든 것도 무색하게 연신 죽어 나가는 나의 분신을 보며, 오기가 생기다 못해 어느 순간부터 {딤빡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전자신문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7>

렌트^리치(<영>▼rent rich) 영^영 『사회』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급등하

는 전세 보증금 때문에 전셋값과 월셋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 주로 고가 월세 거주자를 이르는 말이다. 과도한 전셋값이나 월셋값 지출로 가난해져 살기 어려운 세입자를 의미하는 ‘렌트 푸어’에 상대되는 말이다. 『임대차 시장이 월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강남의 고가 월세 거주자, 이른바 {렌트 리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7>

베이그부커(<영>vaguebooker) 영 「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따위에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불명확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 글을 쓰는 사람. 『올해 초 페이스북이 꼴불견 이용자 10대 유형을 내놓은 바 있다. {베이그부커가} 대표적이다. 일부러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띄워 관심을 끄는, 일종의 ‘낙시꾼’이다. 《서울신문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7>

심폭(心暴) 한+한 [심폭] [심폭만[심풍만]] 「명」 ‘심장 폭행’을 줄여 이르는 말. 보는 사람의 심장에 무리를 줄 만큼 아름답거나 멋있거나 귀여운 정도가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O 오빠는 잘생겨서 {심폭을} 당했다. 《케이비에스엔에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7>

여혐-혐(女嫌嫌) 한+한 [여혐혐] 「명」 『사회』 여혐 현상을 싫어하고 미워함. 『갑을 논쟁으로까지 번진 빈부 갈등, 여혐· {여혐혐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남녀 갈등, 취업난 등으로 촉발된 세대 갈등,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문제로도 꼽히는 이념과 지역 갈등 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서울경제 2015년 8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7>

인테리어-남(<영>interior男) 영+한 「명」 실내를 장식하는 일을 하는 남자. 또는 그런 일을 즐기는 남자. 『원시 시대부터 수렵하는 존재였던 남성이 그루밍족에서 요섹남, 요리남으로, 이어 {인테리어남으로} 변화해 가는 현상은 저성장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으로도 읽힌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7>

코스멀틱(<영>▼←cosmetic multi) 영+영 「명」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 【{코스멀틱으로} 화장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노하우를 살펴보자. <아시아투데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7>

트윈노믹스(<영>▼←twins economics) 영+영 「명」 『경제』 쌍둥이와 관련된 경제 활동이나 전략. 쌍둥이를 의미하는 ‘트윈스(twins)’와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쌍둥이 출산을 역대 최고…{트윈노믹스}가 뜬다. <세계일보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7>

현-눈(現눈) 한+고 [현 : 눈] 「명」 ‘현실 눈물’을 줄여 이르는 말. ‘ππ’ 따위를 타자로 입력하여 눈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흘리는 눈물을 가리킬 때 쓰인다. 【방송이 끝난 후 누리꾼들은 에스엔에스 등을 통해…“OOO 진짜 짝내 나서 {현눈} 났음.” 등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한국경제티브이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7>

공감툰(共感<영>←cartoon) 한+영 「명」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나 주제를 가진 웹툰. 【O 작가의 OO은 생활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생각들을 명쾌하게 그려 내 독자들로부터 공감 100%의 {공감툰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 <민중의소리 2015년 4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6>

구타-흔(毆打痕) 한+한 [구타흔] 「명」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치고 때린 흔적.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구타흔과} 후두부의 폭행 흔적에 비춰 볼 때 25개월 된 아이가 건딜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인 구타 행위가 이뤄졌음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6>

떳-덕후(떳<일>←otaku[御宅]) 고+일 「명」 자신이 한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집착하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는 사람. ‘떳떳하다’의 ‘떳’과 ‘오덕후’의 ‘덕후’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떳덕후}, 놀족, 썸맥. 2015년 20대 트렌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여성신문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6>

래시^팬츠(<영><←rash guard pants) 영^영 『패션』 래시 가드로 만든 바지. 주로 서핑이나 수영 따위와 같은 물놀이를 할 때 입는 바지로 자외선 차단율이 높고 탄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 활동하기 편하면서 다리 전체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한다. 『레깅스처럼 발목까지 딱 붙는 바지는 {래시 팬츠라고} 부른다. <이데일리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6>

썸-맥(<영><←something脈) 영+한 「명」 정계, 재계, 학계 따위에서 형성된 사람들 사이의 약한 유대 관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놀죽이란 '일상의 놀이화, 놀이의 일상화'를 뜻하며 몇덕후란 '몇몇한 덕후가 뜬다', {썸맥은} '넓고 얇고 짧게 만나는 썸타는 인간관계'를 말한다. <내일신문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6>

철벽^소비자(鐵壁消費者) 한^한 『경제』 물건을 구매할 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구매하는 소비자. 『전문가나 다름 없는 {철벽 소비자}, 자칭 타칭 '컨슈니어'라고 불리는 이들의 소비 생활은 아주 특별하다. <헤럴드경제 2015년 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6>

친구-느님(親舊느님) 한+고 [친구느님] 「명」 친구를 높여 이르는 말. 『OO 개 그우먼 OOO가 알미운 {친구느님으로} 변신했다. <엑스포츠뉴스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6>

패터니스타(<영>patternista) 영 「명」 옷감의 무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 대중의 선망을 받으며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패턴’에 한층 더 힘을 준 이번 시즌 주력 제품들을 잘 활용한다면 필드 위 ‘{패터니스타’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오에스이엔 2015년 3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6>

남혐(男嫌) 한 [남혐] 「명」 남성을 싫어하고 미워함. 『본보가 650여 명에게 설문 조사해 이성 혐오를 다룬 이유는 '도대체 여혐, {남혐이} 왜 번지는지, 그

해법은 뭔지’에 대해 단편적 사례나 전문가 분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싶어서였다. 《동아일보 2015년 9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5>

내로-남불(내<영><←romance남不) 고+영+고+한 「명」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 이르는 말. 남에게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안티팬 쪽에서는 O 감독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O 감독을 옹호하는 팬들은 “필요한 기사 내용만 짜깁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5년 6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5>

냥-무룩 고+고 [냥무룩] [냥무룩만[냥무릉만]] 「명」 표정이나 느낌이 시무룩한 고양이. 『모태 {냥무룩},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썹을 가진 고양이가 화제입니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5>

단짠-단짠 고+고 [단짠단짠] 「명」 단맛과 짠맛이 번갈아 가며 연쇄적으로 나타남. 또는 그런 음식. 『김치밥 한 숟가락, 계란말이 한 젓가락을 번갈아 먹자 {단짠단짠이} 완성되었다. 《아이즈 2015년 6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5>

리얼터^테크(<영>realtor tech) 영^영 『컴퓨터』 부동산 중개업에 빅데이터 같은 아이티(IT) 기술을 접목해 위치나 규모, 가격면에서 가장 적합한 부동산을 추천해 주는 기술. 부동산 중개사를 뜻하는 ‘리얼터(realtor)’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부동산 중개업과 아이티(IT)를 결합한 {리얼터 테크가} 아이티업계를 달구고 있다. 《매일경제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5>

만루 변태(滿壘變態) 한_한 「구」 야구에서, 일루·이루·삼루 모두에 주자가 있는 만루 상태에서의 긴장감을 즐기는 투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팬들

은 만루 위기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닝을 먹어치우는 그를 두고 {만루 변태라고} 부른다. 《스포츠동아 2015년 7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5>

베이그북(<영>vaguebook) 영 「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따위에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불명확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 작성한 글. ¶ {‘베이그북’은} 신조어로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서 작성한 글을 의미한다. 《국민일보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5>

빙수 한류(氷水韓流) 한_한 「구」 우리나라의 빙수가 해외에서 널리 유행하는 현상. ¶한국식 디저트의 세계화를 기치로 국내 빙수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온 OO이 {빙수 한류의} 첫 발걸음을 떼는 날이었다. 《머니투데이 2015년 5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5>

세젤귀(世젤귀) 한+고+고 [세 : 젤귀] 「명」 ‘세상에서 제일 귀여움’을 줄여 이르는 말. ¶이어진 인터뷰에서 OO은 최악체로 뽑혔다는 말에도 해맑게 웃으며, 비장의 개인기로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애교 {‘세젤귀’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엠비시연에 2015년 10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5>

시맨틱^머신(<영>semantic machine) 영^영 『기계』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도록 만든 기계. ¶전문가들은 올해 인간을 파악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전자기기인 {시맨틱 머신} 트렌드가 주류를 이루며 웨어러블 시장도 살아날 것으로 본다. 《머니위크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5>

썹덕-사(十▽[일]<←otaku[御宅]死) (한+일)+한 「명」 ‘썹덕사’를 변형한 말로, 너무 귀여워서 보는 이가 죽음. 아주 귀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0일 000 소속사 OO 공식 트위터에는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얼어붙은 마음을 봄 햇살처럼 따스한 미소로 녹여 주는 000의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합니다. 해맑은 웃음에 {썹덕사는} 기본...”이라는 글과 000의 사랑스러운

이 가득한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이뉴스24 2015년 2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5>

완피(完疲) 한+한 [완피] 「명」 ‘완전히 피곤함’을 줄여 이르는 말. 『OOO는 OOO의 행동에 ‘유치하기가 만랩’이라고 말하며 “귀여운 맛에 놀아 줄까 했는데, {완피다}. 완전 피곤해. 포모남(포기를 모르는 남자)이야.”라고 말했다. 《오에스이엔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5>

출근 휴가(出勤休暇) 한_한 「구」 직장에서 휴가 기간에 휴가를 가지 않고 출근하는 일. 『OOO는 희망퇴직 등 구조 조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사장단 인사설까지 흘러나오면서 하계휴가에 들어간 임원들은 ‘{출근 휴가}’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5>

치킨-각(<영>chicken角) 영+한 「명」 치킨을 시켜 먹으며 시청해야 할 정도로 재미있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 『당초 ‘{치킨각}’이라고} 불렸던 이 게임이 예상과는 다르게...30분가량 빠르게 진행됐다. 《헝그리앱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5>

카페인^우울증(<영>←Kakao Service Facebook Instagram憂鬱症) 영^한 『의학』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주로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서 드러나는 다른 사람의 긍정적 상황과 자신의 부정적 상황을 비교해서 생기는 우울증이다. ‘카페인’은 대표적인 누리 소통망 서비스인 ‘카카오 서비스(Kakao service),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첫머리 글자에서 유래한 말이다. 『카카오 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카페인 우울증}’ 생기기도 한다. 《부산일보 2015년 5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5>

캐리-각(<영>cary角) 영+한 「명」 게임이나 운동 따위에서, 팀 전체의 승리를 개인이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잇달아 OOO는 OOO가 6레벨을 찍자마자 다시 톱을 공략, 7분 만에 톱에서만 2킬이 나오면서 소위 ‘{캐리각}’을 만들어 낸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5>

퇴직^크레바스(退職<영>crevasse) 한^영 『사회』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상황을 빙하의 표면에 생긴 깊은 균열인 크레바스에 비유한 말이다. 『향후엔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크레바스}’를 해소하고, 노후 생활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는 플랜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2015년 9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5>

나-레기 고+고 [나레기] 「명」 스스로 자기를 업신여기거나 낮추어 이르는 말. 도덕적, 사상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여 쓰지 못할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쓰레기’와 자신을 뜻하는 ‘나’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누리꾼들은 ‘쓰레기’를 비하 대상이나 싫어하는 인물 이름 뒤에 합성해 사용하기도 한다... 해당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해 {나레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오마이뉴스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4>

런피스-녀(<영>←running one-piece女) 영+한 「명」 원피스를 입고 러닝화를 신은 여자. 격식 있는 차림에는 구두를 신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러닝화를 신는 여자를 말한다. 원피스를 입고 러닝화를 신는 패션인 ‘런피스’에 여자를 의미하는 ‘녀(女)’가 결합된 말이다. 『‘운도녀’, ‘{런피스녀}’ 같은 신조어가 대변하듯 젊은 여성의 스포츠 관련 소비도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경제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4>

복세-편살(複世便살) 한+한+한+고 [복세편살] 「명」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기’를 줄여 이르는 말. 『짜증 나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마법의 주문처럼 {복세편살이라고} 말해 보자. 《헬스조선 2015년 1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

선배-부심(先輩負心) 한+한 [선배부심] 「명」 자신이 선배인 것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 『무려 16년 차의 가요계 대선배라는 {선배부심도} 내려놓은 지 오래였다. 000는 자신에게 90도로 각뚝하게 대하는 8년 차 후배 가수 000을

편하게 대하여 근황을 주고받았다. 《헤럴드경제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4>

쉽표^마케팅(쉽標<영>marketing) (고+한)^영 『경제』 상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떤 휴식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마케팅.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힐링 마케팅으로 통하는 {쉽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 《뉴스토마토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4>

엔터타이징(<영>entertising) 영 「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지 사항이나 상품 따위를 널리 알림. 『광고업계에선 최근의 이 포맷을 엔터테인먼트와 애드버타이징을 합쳐 ‘엔터타이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그 2015년 7월》 【←entertainment+advertising】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4>

우버 태그(Uber<영>tag) 영_영 「구」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자신이 게시하는 글 또는 사진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 또는 장소 등을 입력한 태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손님과 자신의 차로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수 있는 택시 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인 ‘우버(Uber)’ 프로그램이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래한 말이다.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4>

우젤귀(宇젤귀) 한+고+고 [우 : 젤귀] 「명」 ‘우주에서 제일 귀여움’을 줄여 이르는 말. 『비슷한 뜻으로 ‘우젤예’, ‘{우젤귀}’는 각각 우주에서 제일 예쁘다, 우주에서 제일 귀엽다는 말입니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4>

잉-문학(剩文學) 한+한 [잉문학] [잉문학만[잉문학만]] 「명」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을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 『{잉문학의} 정신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겨레21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

진지-충(眞摯蟲) 한+한 [진지충] 「명」 모든 일에 진지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는 말. 『대부분 실명을 사용하고 오프라인에서 마주치는 지인들과 얹혀 있는 페이스북에서 ‘{진지중}이나’ ‘김치녀’로 비난당하는 게 두려운 누군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아이즈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4>

키즈시즘(<영>▼kids←racism) 영+영 「명」 사회적 편견 때문에 특정한 연령의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일. 『또한 사회적으로 {키즈시즘}, 더 나아가 어린이 혐오 풍조가 조성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있다. 《경상일보 2015년 8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4>

타이거 티처(<영>tiger teacher) 영_영 「구」 학생들을 매우 엄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타이거 티처는} 타이거 맘과 유사하지만 주체가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닌 아이를 가르치는 강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크로팬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4>

패테(<영>▼←fashion terrorist) 영+영 「명」 ‘패션 테러리스트’를 줄여 이르는 말. 『어설픈 20~30대를 따라 했다간 일명 ‘{패테}만’ 되기 십상이다. 《문화일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

항메르스^물질(抗<영>MERS物質) (한+영)^한 『의학』 메르스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한국에서는 메르스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중 합동 연구팀이 {항메르스 물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매일경제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4>

홈마(<영>▼←homepage master) 영+영 「명」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의 운영자. 『{홈마들은} 팬클럽 회원들을 이끈다. 《한국일보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4>

힙-쩔이(<영><hiphop쩔이) 영+고 「명」 힙합을 하며 지질하게 못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힙합 음악에 맞춰 그루브를 타는 모습을 보니, 13년 차 {힙쩔이의} 가슴 속에 이내 뿌듯함이 밀려온다. <<시사인라이브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

개-노잼(개<영>no잼) 고+(영+고) 「명」 아주 재미가 없음. 또는 그런 일. 『OOO은 25일 정규 첫 방송된 OO 예능 프로그램 OO에서 시험 방송을 하던 중 ‘{개노잼}’이라는 네티즌의 반응에 “미안하다.”라며 풀 죽은 모습을 보였다. <<오에스이엔 2015년 4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

굿즈덕(<영>goods<일><otaku[御宅]) 영+일 「명」 그림이나, 만화, 영화, 연예인 등의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상품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사람. 또는 그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상품을 사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굿즈덕은} 아이돌과 같은 스타의 얼굴이 그려진 상품을 모으는 덕후이고, 문구덕은 펜, 연필, 노트 등을 모으기 좋아하는 덕후, 그리고 소품덕은 인테리어용 작은 물건들을 모으는 마니아입니다. <<조선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뇌섹 지수(腦<영><sexy指數) (한+영)_한 「구」 뇌가 섹시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언행 따위를 통해 드러나는 똑똑함을 성적 매력으로 보고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OO 모바일 게임을 통해 뇌섹남 트레이닝을 마쳤다면 최종 점수는 몇 점인지 OO 게임을 통해 자신의 {뇌섹 지수}를 가늠해 보자. <<헝그리앱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

당천^영화(當千映畵) 한^한 『연영』 당연히 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유치할 영화. 출연 배우나 감독이 유명하고 줄거리, 영상 따위가 좋으며 홍보가 잘되어 흥행이 잘될 것으로 기대되는 영화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4월 OO의 개봉을 앞두고 한국 영화들은 몸 사리기에 나섰다. 국내 영화사들은 OO의 정확한 개봉일을 알기 위해 정보력을 가동했고, 자신들의 영화들을 언제 선보여

야 좋을지 고심했다...{당천 영화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한국일보 2015년 6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

몽-실(夢室) 고+한 [몽실] 「명」 ‘미용실’의 준말. ¶OOO 아내 OOO 씨는 15일 OO을 통해 “메르스 덕분에 병원도 문 닫아 약도 못 사고 {몽실} 가도 머리도 못 자르고 오늘 준비는 한 개도 못했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6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

문구덕(文具<일>←otaku[御宅]) 한+일 「명」 문구를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문구에 집착하는 사람. 또는 문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 ¶굿즈덕은 아이돌과 같은 스타의 얼굴이 그려진 상품을 모으는 덕후이고, {문구덕은} 펜, 연필, 노트 등을 모으기 좋아하는 덕후, 그리고 소품덕은 인테리어용 작은 물건들을 모으는 마니아입니다. 《조선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백수 오덕(白手<일>←otaku[御宅]) 한_일 「구」 직업이 없이 어떤 일에 병적으로 집중하거나 집착하는 사람. ¶그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취업해 본 적도 없다. 이른바 {백수 오덕의} 상징 격이다. 《신동아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

본 네이처 가전(<영>born nature家電) 영_영_한 「구」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얻은 지혜나 착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가전제품. ‘자연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의 ‘본 네이처(born nature)’와 ‘가전(家電)’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자연의 지혜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 및 출시된 {본 네이처 가전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베타뉴스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3>

블라팅(<영>▼←blind meeting) 영 「명」 얼굴을 모르는 남녀가 누군가의 주선으로 일대일 또는 다대다로 만나는 일. ¶OO OOO 공동 대표는 “8시간 동안의 이벤트를 통해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회사에 대한 솔직한 질문, 솔로들 간의 {블라팅} 등이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5년 8

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

블랙컨테이너(<영>black container) 영^영 『경제』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파는 데에 쓰는 컨테이너. 『요즘 중국 당국이 보따리상이나 {블랙 컨테이너에} 의한 밀수로 인한 가격 문란이 중국 제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하에 관세 확보 차원에서...해외 직구를 장려하고 있다. <전자신문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

성덕(成<일>←otaku[御宅]) 한+일 「명」 ‘성공한 덕후’를 줄여 이르는 말. 『이에 000는 “000 형을 보고 자란 팬이다. 성공한 덕후, {성덕이라고} 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주경제 2015년 4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

섬니 고 [섬니] 「명」 ‘시어머니’의 준말.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 보면 ‘육차’, ‘얼집’, ‘{섬니}’ 등 눈치만으론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젊은 엄마들의 보통 용어가 된 지 오래다. <정책브리핑 2015년 7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3>

소취(所就) 한+한 [소 : 취] 「명」 ‘소원 성취’를 줄여 이르는 말. 주로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람을 나타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000 씨, 가수로 보는 그날 기다릴게요.”, “작곡가 000 너무 재밌고 착해 보여. 꼭 데뷔했으면.”, “000 씨 가수 데뷔 {소취}.”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2015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3>

소품덕(小品<일>←otaku[御宅]) 한+일 「명」 소품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소품에 집착하는 사람. 또는 소품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 『굿즈덕은 아이돌과 같은 스타의 얼굴이 그려진 상품을 모으는 덕후이고, 문구덕은 펜, 연필, 노트 등을 모으기 좋아하는 덕후, 그리고 {소품덕은} 인테리어용 작은 물건들을 모으는 마니아입니다. <조선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아웃-플래킷(<영>out placket) 영+영 「명」 『패션』 옷자락을 여밀 때 겹치는 부분의 바깥쪽 천이 안쪽의 천보다 더 넓게 겹쳐지도록 만든 트임. ‘인플래킷’의 반대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 재킷은…{아웃플래킷과} 인플래킷의 이중 방수 구조를 채택했으며, 후드 탈부착 형태의 디자인이다. <동아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얼빠-몸빠 고+고 [얼빠몸빠] 「명」 ‘얼굴에 빠지고 몸매에 빠짐’을 줄여 이르는 말. 능력이나 성품보다는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좋은 사람에게 쉽게 호감을 가지는 일이나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OOO은 지난 20일 방송된 OO에 출연해 ‘{얼빠몸빠’라는} 이상형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

욕밍아웃(욕<영>←coming-out) 고+영 「명」 평소 욕을 잘 사용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 또는 그렇게 되는 일. 『OOO는…공무원 친구를 집으로 불러 밤새 술을 마시다가 하면 그들 앞에서 ‘{욕밍아웃’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울경제 2015년 6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3>

우젤예(宇젤예) 한+고+고 [우 : 제례] 「명」 ‘우주에서 제일 예뻐’를 줄여 이르는 말. 『확장 버전으로는 ‘세젤예’, ‘{우젤예’가} 있다. <머니위크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3>

인셉셔널리즘(<영>inceptionism) 영 「명」 『컴퓨터』 컴퓨터의 인공 신경망이 이미 학습한 이미지에서 서로 연관된 변수들을 찾아 새로운 이미지를 합성해내는 일. 인간이 어떤 이미지를 보고 연상 작용을 통하여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컴퓨터가 이미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도록 한 기술을 가리킨다. 『{인셉셔널리즘은}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디넷코리아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카레-국(<영>←curry國) 영+한 「명」 ‘인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도의

대표 음식인 ‘카레’에 나라를 의미하는 한자어 ‘국(國)’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이외에 중국은 대륙, 미국은 천조국, 러시아 불곰국, 캐나다 단풍국, 인도 {카레국}, 네덜란드 풍차국 등 대부분 음식, 건물, 국기 등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붙여진 별명이다. 《텐아시아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3>

칼-업데이트(칼<영>←update) 고+영 「명」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로 하는 업데이트. 『OO 연재 소식에 네티즌들은 “OO,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OO, {칼업데이트} 배일 뻔.” “OO, 기다린 보람이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엔티뉴스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3>

커엽다 고 [커엽따] [커여워[커여워], 커여우니[커여우니]] 「형」 ‘귀엽다’를 변형한 말로,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서 사랑스럽다. 『네티즌들도 253개의 추천과 함께 달린 88개의 댓글 속에서 “{커엽다}.”, “처진 눈이 인상적이다.”, “병아리인 줄 알았다.”라며 대체적으로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다. 《헤럴드경제 2015년 6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

커-퀴(<영>←couple퀴) 영+고 「명」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커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커플(couple)’의 첫 음절과 ‘바퀴벌레’의 두 번째 음절을 합한 말이다. 『이번에는 ‘{커퀴’에게} 당했습니다. 《문화일보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

커피 냅(<영>coffee nap) 영_영 「구」 낮에 커피를 마신 후에 20분 정도 짧게 자는 잠. 『영국의 OO 대학 OO 센터에서 성인 24명을 동원해 실험한 결과 {커피 냅을} 청한 사람들은…일을 실수 없이 해냈다고 전해졌다. 《한국경제 2015년 3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3>

택배 버뮤다(宅配Bermuda) 한_영 「구」 배송 과정에서 택배물이 사라지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그런 지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최근 인터넷상에 ‘{택배 버뮤다’라는} 신조어가 퍼지고 있다. 《뉴시스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

핵-귀염(核귀염) 한+고 [핵귀염] 「명」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서 매우 사랑스러움. 『OOO 셰프의 골무 모자 선물 소식에 네티즌들은 “쌍둥이 모자인 줄 몰랐을 듯.”…“골무 쓴 쌍둥이 {핵귀염} ~.”, “OOO 셰프 같은 남자 사람 친구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부산일보 2015년 7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

허특-법(許特法) 한+한 [허특법] [허특법만[허특법만]] 「명」 『법률』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이 유지되는 동안에 다른 복제약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 한 의약품에 각각 따로 적용되어 온 허가와 특허에 대한 행정 절차를 서로 연계하여,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 회사는 {허특법}을 통해 높은 약값을 유지하며 제네릭약을 견제할 수 있다. <한국경제 2015년 8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

현미(現美) 한+한 [현 : 미] 「명」 ‘현실 미모’를 줄여 이르는 말. 방송이나 사진으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모습이 매우 아름다울 때 쓰는 말이다. 『스튜디오에 등장한 줄임말을 쓰는 친구들은…“OOO 언니는 가까이서 보니 {현미} 돋는다.”라며 “말을 줄여서 쓰는 게 정말 편하다. 할 말이 많으니 말을 줄이는 거다.”라고 밝혔다. <엑스포즈뉴스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

현실 소름(現實소름) 한_고 「구」 현재 실제로 발생하는 소름. 갑작스러운 일이나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매우 놀랐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OOO의 ‘심멩’ 명장면을 접한 시청자들은…“OOO, 주사기 누르라고 소리 지를 때 {현실 소름}! 명품 연기 돋았다!”…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티브이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

호러툰(<영>horror←cartoon) 영+영 「명」 죽음, 귀신, 괴물, 살인마 따위를 소재로 하여 두렵고 무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만화. 『스마트폰으로 호러툰, {호러툰}, 웹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케이비에스티브이 2015년 6월>

»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호모^솔리타리우스(<라>homo solitarius) 라^라 『사회』 외로운 인간이라는 뜻으로, 핵가족화나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에 혼자 살게 된 현대인을 이르는 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생겨나고 있는 {호모 솔리타리우스}는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다. <경남일보 2015년 4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3>

2015년 신어

- 가나다순 -



개-노답(개<영>no答) 고+(영+한) 「명」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거나 아예 없음. 또는 그런 일. 『요즘 애들이 당신 같은 사람 보고 뭐라는 줄 알아? 노답. {개노답}. 당신, {개노답이야}. 《엑스포츠뉴스 2015년 9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0>

개-노잼(개<영>no잼) 고+(영+고) 「명」 아주 재미가 없음. 또는 그런 일. 『OOO은 25일 정규 첫 방송된 OO 예능 프로그램 OO에서 시험 방송을 하던 중 ‘{개노잼}’이라는 네티즌의 반응에 “미안하다.”라며 풀 죽은 모습을 보였다. 《오에스이엔 2015년 4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

개-이득(개利得) 고+한 [개 : 이득] [개이득만[개 : 이등만]] 「명」 아주 큰 이익을 얻음. 또는 그 이익. 『여기 앉아서 OO 선배님들의 라이브도 듣고 {개이득이다}. 《오에스이엔 2015년 9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66>

개-저씨 고+고 [개 : 저씨] 「명」 행실이 나쁘거나 매우 못된 성인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OOO은 {개저씨란} 낙인이 찍히며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 사건의 대표 주자가 돼 버렸다. 《스타뉴스 2014년 12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26>

걸-크러시(<영>girl crush) 영+영 「명」 여성이 자신의 매력으로 다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음. 『OO은 지난 2월 OO를 통해 ‘{걸크러시}’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며 국내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3>

겨터파크(겨<영>←water park) 고+영 「명」 겨드랑이에서 흥건하게 나는 땀을 워터파크에 빗대어 이르는 말. 『{겨터파크는} 겨드랑이와 워터파크의 합성어

로 겨드랑이 땀이 물이 쏟아지듯 나올 때 쓰는 말이다. 《국민일보 2015년 7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29>

경포감(警抛監) 한+한+한 [경 : 포감] 「명」 ‘경정 승진을 포기한 채 정년퇴직을 기다리는 경감’을 줄여 이르는 말. 10년 이상 경정으로 승진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경정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정년퇴직만을 기다리는 경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찰청이 정년만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경포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다. 《뉴데일리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4>

고-답이 고+고 [고다비] 「명」 ‘고구마 답답이’를 줄여 이르는 말. 찐 고구마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목이 메는 느낌처럼 생각이나 행동이 매우 갑갑하게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그 사람 참 {고답이네}.”에서 ‘{고답이}’는 마치 고구마를 먹었을 때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와이티엔티브이 2015년 10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7>

골목길 순례자(골목길巡禮者) 고_한 「구」 여러 골목길을 찾아다니며 관광하는 사람. 소자본과 다양한 문화로 재탄생된 골목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골목길을 관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OOO 교수가 이끄는 OO대 OO 센터는…{골목길 순례자들} 2015년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측했다. 《뉴시스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9>

골반 강패(骨盤깡패) 한_(고+한) 「구」 허리가 가늘고 골반이 커서 허리에서 골반까지의 선이 예쁜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최근 뒤통의 아름다움이 주목받으면서 ‘애플 힙’, ‘{골반 강패}’ 등과 같은 단어가 등장했다. 《국제뉴스 2015년 6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3>

곰-맘(곰<영>mom) 고+영 「명」 군대에 있는 아들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를 하는 어머니.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성을 뜻하는 ‘곰신’에 엄마를 뜻하는 ‘맘(mom)’이 결합된 말이다. 『최근 군 관련 사

고가 잇따르자 군 생활 중인 아들을 위해 위문 용품을 사는 {곰뿔이} 늘어났다. 《동아일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37>

공간-흔(空間痕) 한+한 [공간흔] 「명」 범죄 현장에 남겨진 혈흔 중에서 특정 물체의 모양만큼 혈흔이 비어 있는 흔적. 피의자가 혈흔이 남겨진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도주한 경우, 혈흔이 그 물건의 모양만큼 비어서 남게 되는 흔적을 말한다. 『피가 튀거나 뿌려지는 방향에 있던 물체가 막아서는 바람에 벽·바닥 등, 그 부분만 혈흔이 없는 현상인 ‘{공간흔}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던 000이 지친 모습을 보이자 0 분석관이 나섰다. 《중앙일보 2015년 2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7>

공감툰(共感<영><-cartoon) 한+영 「명」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나 주제를 가진 웹툰. 『O 작가의 OO은 생활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생각들을 명쾌하게 그려 내 독자들로부터 공감 100%의 {공감툰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 《민중의소리 2015년 4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6>

구타-흔(毆打痕) 한+한 [구타흔] 「명」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치고 때린 흔적.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구타흔과} 후두부의 폭행 흔적에 비춰 볼 때 25개월 된 아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인 구타 행위가 이뤄졌음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6>

굿즈덕(<영>goods<일><-otaku[御宅]) 영+일 「명」 그림이나, 만화, 영화, 연예인 등의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상품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사람. 또는 그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상품을 사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굿즈덕은} 아이돌과 같은 스타의 얼굴이 그려진 상품을 모으는 덕후이고, 문구덕은 펜, 연필, 노트 등을 모으기 좋아하는 덕후, 그리고 소품덕은 인테리어용 작은 물건들을 모으는 마니아입니다. 《조선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궁예-질(弓裔質) 한+고 [궁예질] 「명」 어떤 사실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멋대로 추측하고 판단하는 짓. 자신이 상대방의 몸가짐이나 얼굴 표정 따위로 속마음을 알아내는 기술인 관심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궁예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이들의 이런 애매한 범행은 종종 룸메이트 사이에 {궁예질이} 난무하게 만들기도 한다. <위키텐트리 2014년 11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4>

귀엽-사(귀염死) 고+한 [귀:염사] 「명」 어떤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너무 귀여워서 죽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죽을 만큼 어떤 대상이 귀엽다고 느끼는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OOO이 {귀염사} 유발하는 꿀벌 소녀로 변신했다. <한국경제티브이 2015년 5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5>

그로서런트(<영>grocerant) 영 「명」 식재료를 파는 식품점과 그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음식점이 함께 있는 가게. 『고급 입맛에 맞추자니 비싸고 대중 집에서 해 먹자니 맛이 없다. ‘{그로서런트}’는 이런 고민을 가진 소비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다. <광주드림 2014년 12월> 【←grocery+restaurant】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9>

길 과장(길課長) 고_한 「구」 출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과장 직위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과장 직위의 공무원을 이르는 말이다. 『2012년 7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 입길에 자주 오르는 말이 {길 과장이나} 길 국장이다. <연합뉴스 2015년 5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9>

길 국장(길局長) 고_한 「구」 출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국장 직위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국장 직위의 공무원을 이르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장관들이 세종 청사 집무실을 비우거나 외면하는 동안은 정부

세종 청사에서 소위 ‘길 과장’, ‘{길 국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뉴데일리 2015년 6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8>

낄끼-빠빠 고+고+고+고 [낄끼빠빠] 「명」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함’을 줄여 이르는 말. 『투자의 기본은 {낄끼빠빠다}.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과감히 빠져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뉴시스 2015년 3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1>

L

나-레기 고+고 [나레기] 「명」 스스로 자기를 업신여기거나 낮추어 이르는 말. 도덕적, 사상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여 쓰지 못할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쓰레기’와 자신을 뜻하는 ‘나’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누리꾼들은 ‘쓰레기’를 비하 대상이나 싫어하는 인물 이름 뒤에 합성해 사용하기도 한다.… 해당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해 {나레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오마이뉴스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4>

남혐(男嫌) 한 [남혐] 「명」 남성을 싫어하고 미워함. 『본보가 650여 명에게 설문 조사해 이성 혐오를 다룬 이유는 ‘도대체 여혐, {남혐이} 왜 번지는지, 그 해법은 뭔지’에 대해 단편적 사례나 전문가 분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싶어서였다. <동아일보 2015년 9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5>

낫-닝겐(<영>not<일>ningen[人間]) 영+일 「명」 외모나 능력 따위가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또는 그런 사람. 『이날 멤버들은 10대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 {낫닝겐의} 의미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뉴스1 2014

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24>

내로-남불(내<영><-romance남不) 고+영+고+한 「명」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 이르는 말. 남에게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안티팬 쪽에서는 O 감독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O 감독을 옹호하는 팬들은 “필요한 기사 내용만 짜깁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5년 6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5>

내적 댄스(内的<영>dance) 한_영 「구」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 속으로만 추는 춤. 『음악 팬들은 이들의 노래를 {내적 댄스} 불러일으키는 노래라고 한다. 《스타서울티브이 2014년 12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9>

냥-무룩 고+고 [냥무룩] [냥무룩만[냥무룽만]] 「명」 표정이나 느낌이 시무룩한 고양이. 『모태 {냥무룩},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썹을 가진 고양이가 화제입니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5>

냥-심(냥心) 고+한 [냥심] 「명」 고양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OO는 {냥심을} 자극하는 게임답게 고양이의 모션도 잘 되어 있다. 《동아일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8>

냥-집사(냥執事) 고+한 [냥집싸] 「명」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양이 애호가들의 커뮤니티에선 고양이를 키우는 자신들을 {냥집사라고} 부른다. 《한겨레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5>

노-이해(<영>no理解) 영+한 「명」 이해를 하지 못함. 또는 이해가 되지 않음. 『영화를 봤는데 기대만큼 재밌지 않을 때 “이 영화가 왜 평점에서 높은 점수

를 받았는지 정말 {노이해다}.”라고 말한다. 《헬스조선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1>

노키즈존(<영>no kids zone) 영^영 『사회』 영유아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 내 아이만을 우선시하는 부모의 이기주의에 반발하거나 아이와 동행하지 않은 다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영유아나 아동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카페나 음식점 따위를 의미한다. 『일부 식당 카페 등에서 5세 미만 아동은 출입 금지하는 {노키즈 존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민일보 2014년 8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59>

노푸(<영>no←shampoo) 영+영 「명」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 머리를 감음. 『할리우드 스타들의 탈모 방지법 {노푸가} 화제다. 《데일리한국 2014년 12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807>

노푸-족(<영>no←shampoo族) 영+한 「명」 『사회』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 머리를 감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노푸 방법이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노푸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즈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5>

놀-족(놀族) 고+한 [놀 : 족] [놀족만[놀 : 종만]] 「명」 『사회』 일이나 업무 따위를 놀이처럼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일과 놀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지 않고 일을 재미있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나 무리를 이르는 말이다. 『20대는 {놀족이다}. 일상을 놀이처럼, 놀이를 일상처럼 즐긴다. 《마이데일리 2015년 3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7>

놈^코어^룩(<영>norm←hardcore look) 영^영^영 『패션』 지극히 평범하고 편안한 옷이나 소품들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멋을 표현한 옷차림.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무심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면 {놈 코어 룩으로} 코디를 완성해 보자. 《파이낸셜뉴스 2014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822>

뇌섹(腦<영>←sexy) 한+영 「명」 ‘뇌가 섹시함’을 줄여 이르는 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재치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OOO은 최근 OO을 통해 “{뇌섹이} 없는 1차원적 섹시함은 일시적, 뇌는 섹시하나 에너지 없는 몸이라면 인생은 노잼.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삶, 핵잼!”이라는 글과 함께 OO 6월 호에 실린 사진 한 컷을 남겼다. 《이데일리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22>

뇌섹 남녀(腦<영>←sexy男女) (한+영)_한 「구」 ‘뇌가 섹시한 남자와 여자’를 줄여 이르는 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재치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킨다. ¶6월 15일 방송된 OO 월화 드라마 OO 19회에서는 ‘{뇌섹 남녀}들의’ 두뇌 게임과 함께 주변 인물들의 갈등도 소용돌이치며 숨 쉴 틈 없는 짜릿한 전개를 선보였다. 《뉴스엔 2015년 6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64>

뇌섹-녀(腦<영>←sexy女) (한+영)+한 「명」 ‘뇌가 섹시한 여자’를 줄여 이르는 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재치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를 가리킨다. ¶OOO는 지난 17일 방송된 종합 편성 채널 OO…에 출연해 유창한 중국어와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미적분까지 풀어내는 ‘{뇌섹녀}의’ 모습으로 대중의 호감을 샀다. 《티브이데일리 2015년 3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471>

뇌섹-인(腦<영>←sexy人) (한+영)+한 「명」 ‘뇌가 섹시한 인간’을 줄여 이르는 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재치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요즘은 {뇌섹인} 인기라면서요? 《코메디닷컴 2015년 5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뇌섹 지수(腦<영>←sexy指數) (한+영)_한 「구」 뇌가 섹시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언행 따위를 통해 드러나는 똑똑함을 성적 매력으로 보고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OO 모바일 게임을 통해 뇌섹남 트레이닝을 마쳤다면 최종 점수는 몇 점인지 OO 게임을 통해 자신의 {뇌섹 지수}를 가늠해 보자.

《헝그리앱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

뉴^노멀^붐(<영>new normal boom) 영^영^영 『경제』 초저금리로 인해 유동 자금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 거품을 형성하는 현상.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인 ‘뉴 노멀(new normal)’에 거품 형성을 뜻하는 ‘붐(boom)’이 결합된 말이다. ¶{뉴 노멀 붐은}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저금리·저성장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매일경제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9>



다람쥐-족(다람쥐族) 고+한 [다람쥐족] [다람쥐족만[다람쥐종만]] 「명」 『사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사 모으는 사람이나 무리를 낚잡아 이르는 말.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 판매 수량에 제한이 있는 담배를 낚개로 사서 모으는 행위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한곳에서 1인당 파는 담배의 양을 제한하자 편의점을 돌며 도토리 모으듯 2~3갑씩 담배를 사 모으는 {다람쥐족이} 등장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다. 《스포츠경향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5>

단짠-단짠 고+고 [단짠단짠] 「명」 단맛과 짭맛이 번갈아 가며 연쇄적으로 나타남. 또는 그런 음식. ¶김치밥 한 숟가락, 계란말이 한 젓가락을 번갈아 먹자 {단짠단짠이} 완성되었다. 《아이즈 2015년 6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5>

달관^세대(達觀世代) 한^한 『사회』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세대. 취직이나 결혼, 내 집 마련 따위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무기력한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OOO OO대 사회학과 교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눈높이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들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달관 세대라} 일컬었다. 《한국일보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698>

담배^재테크(담배財<영>tech) 고^(한+영) 『경제』 담뱃값이 인상될 것에 대비해 미리 다량의 담배를 사재기한 후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 그 담배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내년 담뱃값 인상 전 담배를 사재기했다 되팔자는 일명 {담배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한국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45>

당천^영화(當千映畵) 한^한 『연영』 당연히 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유치할 영화. 출연 배우나 감독이 유명하고 줄거리, 영상 따위가 좋으며 홍보가 잘되어 흥행이 잘될 것으로 기대되는 영화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4월 OO의 개봉을 앞두고 한국 영화들은 몸 사리기에 나섰다. 국내 영화사들은 OO의 정확한 개봉일을 알기 위해 정보력을 가동했고, 자신들의 영화들을 언제 선보여야 좋을지 고심했다...{당천 영화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한국일보 2015년 6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

덕-무룩(<영>duck무룩) 영+고 「명」 표정이나 느낌이 시무룩한 오리. 『OO 호수 고무 오리 OO이 첫날부터 시무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덕무룩이란} 별명까지 나온 상황이다. 《시사위크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67>

덕-페이스(<영>duck face) 영+영 「명」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오리처럼 입을 빼죽 내미는 표정. 또는 그런 표정을 한 얼굴. 『최근 셀카를 찍으며 입술을 내미는 표정을 의미하는 {덕페이스가}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 온라인판에 신조어로 등재됐다. 《중앙일보 2014년 12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덩키^킵(<영>donkey kick) 영^영 『운동』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등을 평평하게 고정하고 한쪽 다리의 허벅지를 등과 수평이 되게 들어 올려 발끝을 수직으로 밀었다 당겼다 하는 운동. 당나귀가 뒷발질하는 모양에서 유래한 동작이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덩키 킵} 운동을 한다. 당나귀가 뒷발질을 하는 것 같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한겨레 2015년 6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8>

등짐 들살이 고_고 「구」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산과 들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여행. =배낭 도보 여행(背囊徒步旅行). 『1박 이상의 야영에 필요한 장비를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산과 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여행을 뜻하는 단어인 백패킹(backpacking)의 순화어로는 ‘배낭 보도 여행’, ‘{등짐 들살이}가 선정됐다. 《내일신문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147>

딘치-족(<영>←dinner lunch族) 영+한 「명」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 사이에 점심과 저녁을 겸해서 밥을 먹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외식업계는 {딘치족이} 등장한 이유를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서 찾는다. 《매일경제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40>

딤-빡(<영>deep빡) 영+고 「명」 매우 성이 나서 화가 남. 또는 그런 상태. 『시작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져든 것도 무색하게 연신 죽어 나가는 나의 분신을 보며, 오기가 생기다 못해 어느 순간부터 {딤빡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전자신문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7>

딸통-법(딸通法) (고+한)+한 [딸통뺨] [딸통법만[딸통뺨만]] 「명」 불법 음란물의 소지 또는 유통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비꼬아 이르는 말. 2015년 4월 16일부터 발효된 전기 통신 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인 소위 ‘단통법’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딸통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열 시스템이다. 《블로터 2015년 4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58>

땅콩 리턴(땅콩<영>return) 고_영 「구」 자사 여객기에 탑승한 항공사 임원이 자신에게 실수를 저지른 승무원의 과실을 문제 삼아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가게 한 일. 또는 그런 사건. 2014년 12월 5일에 자사 여객기에 탑승한 항공사 임원이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건과류 제품을 자신에게 봉지째 제공한 승무원의 과실을 질책하는 중에 해당 승무원을 두둔한 다른 직원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도록 기장에게 지시하여 막 출발한 비행기를 제자리로 되돌아가도록 운항하게 한 사건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OOO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리턴을} 놓고 월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일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이투데이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3637>

떳-덕후(떳<일>←otaku[御宅]) 고+일 「명」 자신이 한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집착하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는 사람. ‘떳떳하다’의 ‘떳’과 ‘오덕후’의 ‘덕후’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떳덕후}, 놀족, 썸맥. 2015년 20대 트렌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여성신문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6>

ㄹ

래시^가드^룩(<영>rash guard look) 영^영^영 『패션』 래시 가드로 몸매와 각선미를 강조하는 옷차림. 주로 해변이나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할 때 입는다. ¶스포츠웨어 전문 브랜드 OO는 배우 OOO을 공식 모델로 내세워 {래시 가드 룩을}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43>

래시^팬츠(<영><←rash guard pants) 영^영 『패션』 래시 가드로 만든 바지. 주로 서핑이나 수영 따위와 같은 물놀이를 할 때 입는 바지로 자외선 차단율이 높고 탄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 활동하기 편하면서 다리 전체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한다. 『레깅스처럼 발목까지 딱 붙는 바지는 {래시 팬츠라고} 부른다. <이데일리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6>

랜선 맘(<영>LAN線<영>mom) (영+한)_영 「구」 육아 예능 따위의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들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통신망인 ‘랜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요즘 {랜선 맘들이} 열광하는 아가는 단연 텔런트 000 씨의 세쌍둥이 아들 000·000·000다. <중앙일보 2015년 1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8>

랜선 이모(<영>LAN線姨母) (영+한)_한 「구」 육아 예능 따위의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들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통신망인 ‘랜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남의 아이를 자신의 조카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000·000의 수족구병에 “아기들 많이 힘들고 아팠겠다.”, “…{랜선 이모} 마음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엑스포츠뉴스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런피스-녀(<영><←running one-piece女) 영+한 「명」 원피스를 입고 러닝화를 신은 여자. 격식 있는 차림에는 구두를 신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러닝화를 신는 여자를 말한다. 원피스를 입고 러닝화를 신는 패션인 ‘런피스’에 여자를 의미하는 ‘녀(女)’가 결합된 말이다. 『‘운도녀’, ‘{런피스녀}’ 같은 신조어가 대변하듯 젊은 여성의 스포츠 관련 소비도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경제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4>

렌트^리치(<영><▼rent rich) 영^영 『사회』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급등하는 전세 보증금 때문에 전셋값과 월셋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 주로 고가 월세 거주자를 이르는 말이다. 과다한 전셋값이나 월셋값 지출로 가난해져 살기 어려운 세입자를 의미하는 ‘렌트 푸어’에

상대되는 말이다. 『임대차 시장이 월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강남의 고가 월세 거주자, 이른바 {렌트 리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7>

리너기스트(<독>linergist) 독 「명」 『패션』 반영구 화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OO는 향후에도 세미나를 꾸준히 열어 {리너기스트} 배출을 위한 길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티브이 2015년 9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리얼터^테크(<영>realtor tech) 영^영 『컴퓨터』 부동산 중개업에 빅데이터 같은 아이티(IT) 기술을 접목해 위치나 규모, 가격면에서 가장 적합한 부동산을 추천해 주는 기술. 부동산 중개사를 뜻하는 ‘리얼터(realtor)’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부동산 중개업과 아이티(IT)를 결합한 {리얼터 테크가} 아이티업계를 달구고 있다. 《매일경제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5>

립퀴드(<영>▼←lipstick liquid) 영 「명」 입술에 색을 내면서 영양과 윤기도 주는 화장품. 립스틱과 립글로스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화장품이다. 『{립퀴드는}...고체 립스틱의 발색력과 액체 립글로스의 광택감은 물론 립 틴트의 지속력을 모두 지닌 새로운 제형의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울경제 2015년 3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84>



만루 변태(滿壘變態) 한_한 「구」 야구에서, 일루·이루·삼루 모두에 주자가 있는 만루 상태에서의 긴장감을 즐기는 투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펜들은 만루 위기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닝을 먹어치우는 그를 두고 {만루 변

태라고} 부른다. 《스포츠동아 2015년 7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5>

맛-깡패(맛깡牌) 고+(고+한) [맛깡패] 「명」 매우 맛이 좋은 음식이나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맛깡패라} 불리는 000 셰프가 중화요리 대가 000 셰프를 꺾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간스포츠 2015년 4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238>

맥세-권(←McDonald勢圈) (영+한)+한 「명」 특정 패스트푸드업체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세권’에 빗대어 이르는 말. 『대학가에서는 OO 햄버거 배달 가능 지역을 일컫는 ‘{맥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이를 벤치마킹한 경쟁업체는 주문 전화번호까지 비슷하게 만들었다. 《한국일보 2015년 5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8>

맨스플레인(<영>←man's explain) 영+영 「명」 어떤 사건이나 사물 따위에 대해 설명하는 남자. 주로 상대가 여성일 때 자신이 잘 아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잘난 체하며 설명하는 남자를 의미한다. 『여성이 뭘 모른다고 생각해 시시콜콜 설명하면서 아는 체하는 남성을 일컫는 말이 {맨스플레인이다}. 《이투데이 2015년 5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156>

머슬-녀(<영>muscle女) 영+한 「명」 근력 운동으로 근육질의 몸매를 가꾼 여자. 『가녀린 몸매의 청순녀 대신 근육질의 건장한 몸매를 가진 {머슬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5년 5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533>

메뚜기-족(메뚜기族) 고+한 [메뚜기족] [메뚜기족만[메뚜기종만]] 「명」 『사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사 모으는 사람이나 무리를 낚잡아 이르는 말. 판매 수량에 제한이 있는 담배를 낚개로 사서 모으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 다니는 모습을 메뚜기가 뛰는 모습에 빗댄 말이다. 『최대한 담배를 확보하려고 업체를 도는 흡연자들을 두고 {메뚜기족} 또는 다람쥐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48>

메르스^불황(<영>MERS不況) 영^한 『사회』 메르스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경제 불황. 전염성이 강한 메르스가 유행하여 사람들이 되도록 외출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경제 활동이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상태를 이른다. 『{메르스 불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르스 사태는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시아경제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70>

메르스^폐기물(<영>MERS廢棄物) 영^한 『사회』 메르스로 인하여 생긴 의료 폐기물. 『{메르스 폐기물로} 인해 추가 전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하고 안전한 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뉴시스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8>

메르스^피난민(<영>MERS避難民) 영^한 『사회』 메르스를 피하여 가는 사람. 전염성이 강한 메르스가 유행하여 메르스가 발병하지 않은 지역으로 옮겨 가는 사람을 이른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피해 수도권에서 대구, 경북으로 오는 ‘{메르스 피난민’이} 줄을 잇고 있다. <매일신문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0>

메신저^강박증(<영>messenger強迫症) 영^한 『의학』 과도한 메신저 사용으로 인해 메신저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메신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질환. 회사나 직장 따위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함으로써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증상을 말한다. 『메신저 증후군이란 {메신저 강박증이라고도} 하며 스마트폰 메신저를 업무에 이용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서울경제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52>

메신저^증후군(<영>messenger症候群) 영^한 『의학』 과도한 메신저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 이르는 말. 회사나 직장 따위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함으로써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메신저 강박증이 대표적이다. =메신저 피로 증후군(<영>messenger疲勞症候群). 『{메신저 증후군이란} 스마트폰 메신저를 업무에 이용하는 회사들이 증가하며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동아일보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652>

메신저^피로^증후군(<영>messenger疲勞症候群) 영^한^한 『의학』 과도한 메신저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 이르는 말. 회사나 직장 따위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함으로써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메신저 강박증이 대표적이다. =메신저 증후군(<영>messenger症候群). 『메신저 증후군은…{메신저 피로 증후군} 혹은 메신저 강박증이라고도 한다. 《동아일보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6>

메이비-족(<영>maybe族) 영+한 「명」 『사회』 선택을 할 때 잘 결정하지 못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저자가 보기에 {메이비족은} 주의력 결핍과 결단력 박약이라는 공통의 증상을 앓고 있다. 《국민일보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8>

모루밍(<영>▼←mobile showrooming) 영 「명」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뒤, 쇼핑은 모바일로 하는 일. 『최근에는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쇼루밍을 넘어 {모루밍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2014년 11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31>

몽-실(夢室) 고+한 [몽실] 「명」 ‘미용실’의 준말. 『OOO 아내 OOO 씨는 15일 OO을 통해 “매르스 덕분에 병원도 문 닫아 약도 못 사고 {몽실} 가도 머리도 못 자르고 오늘 준비는 한 개도 못했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6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

문구덕(文具<일>←otaku[御宅]) 한+일 「명」 문구를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문구에 집착하는 사람. 또는 문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 『굿즈덕은 아이돌과 같은 스타의 얼굴이 그려진 상품을 모으는 덕후이고, {문구덕은} 펜, 연필, 노트 등을 모으기 좋아하는 덕후, 그리고 소품덕은 인테리어용 작은 물건들을 모으는 마니아입니다. <조선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문구-부심(文具負心) 한+한 [문구부심] 「명」 자신이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구류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 『보통 {문구부심은} 만년필과 다이어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주간동아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8>

문송(文悚) 한+한 [문송] 「명」 ‘문과라서 죄송’을 줄여 이르는 말. 인문계 출신 대학 졸업자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중에서도 ‘인구론’(인문계 대졸자 90%가 논다)과 ‘{문송}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인문계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의 취업난은 극히 열악하다. <뉴스토마토 2015년 5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8>

문송-하다(文悚하다) 한+고 [문송하다] 「형」 문과라서 죄송하다. 인문계 출신 대학 졸업자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인구론, {문송합니다}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문 계열 학생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코노믹리뷰 2015년 6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물-뺨(物뺨) 한+고 [물뺨] 「명」 ‘물적 피해 뺨소니’를 줄여 이르는 말.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고 몰래 달아나는 짓을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물뺨은} 지역 주민의 생활 현실을 보여 주는 지표.”라며 “보다 명확한 처벌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8>

밀-프렙(<영>meal prep) 영+영 「명」 일정 기간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는 일. 식단에 따라 재료 준비나 조리 따위를 한 번에 몰아서 하여 식사할 때에는 미리 준비해 둔 음식을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밀프렙을} 위해선 우선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의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식단을 짜고 그에 맞게 식재료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조세일보 2014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9>**



반퇴^세대(半退世代) 한^한 『사회』 조기 퇴직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세대.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은퇴 시기는 앞당겨져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며 계속 직업을 가져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하지만 직장생활에만 익숙해진 {반퇴 세대들은} 사업 경험이 전무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경제 2015년 3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2>**

반퇴^시대(半退時代) 한^한 『사회』 조기 퇴직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야 하는 시대. **『{반퇴 시대에는} 퇴직 전까지 노후의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고단한 삶을 피하기 어렵다. 《중앙일보 2015년 2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202>**

반퇴-자(半退者) 한+한 [반 : 퇴자/반 : 뤼자] 「명」 『사회』 조기 퇴직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 **『또 {반퇴자들} 상당수가 임시직에 종사하는 등 노동의 질도 열악해, 노동 시장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비에스 2015년 2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20>**

반퇴^자산(半退資産) 한^한 『사회』 반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산.
『또 {반퇴 자산은} 환금성을 따져야 한다.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익이 없다면 노후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중앙일보 2015년 2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9>

발 셀카(발<영>←self camera) 한_영 「구」 셔터를 발로 눌러서 찍은 것처럼 품질이 낮은 셀프 카메라. 또는 그런 사진. 『특히 000은 훈남 외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일명 ‘{발 셀카}의’ 면모가 보이는 셀카 실력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뉴스투데이 2015년 3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28>

배낭 도보 여행(背囊徒歩旅行) 한_한_한 「구」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산과 들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여행. =등짐 들살이. 『배낭여행을 가리키던 백패킹은 ‘{배낭 도보 여행}’ 또는 ‘등짐 들살이’로, 인터넷 बैं킹 보안 기술의 하나인 오티피(OTP)는 ‘일회용 비밀번호’로 각각 순화했습니다. 《케이비에스티브이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84>

백수 오덕(白手<일>←otaku[御宅]) 한_일 「구」 직업이 없이 어떤 일에 병적으로 집중하거나 집착하는 사람. 『그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취업해 본 적도 없다. 이른바 {백수 오덕의} 상징 격이다. 《신동아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

밴드 게이트(<영>bend gate) 영_영 「구」 물체에 힘을 주면 쉽게 휘어지는 현상. ‘구부리다’라는 뜻의 ‘밴드(bend)’와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事件)’의 ‘게이트(gate)’를 결합하여 만든 말로, 약한 힘에도 잘 휘어지는 특정 회사의 휴대 전화 모델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규범 표기는 ‘밴드 게이트’이다. 『00와 00가 힘을 가하면 구부러진다는 {밴드 게이트} 논란이 확산되자 00이 “극히 드문 일이며 일상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327>

뱅머신^측정법(<영>▼bang machine測定法) 영^한 『건설』 7.3kg 정도의 타이어

를 이용하여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층간 소음 바닥 자재 평가 방법으로 기존 {뱅크신 측정법} 외에 임팩트볼 측정법을 추가로 도입했다. 《뉴데일리 2015년 3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16>

베이그부커(<영>vaguebooker) 영 「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따위에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불명확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 글을 쓰는 사람. 『올해 초 페이스북이 꼴불견 이용자 10대 유형을 내놓은 바 있다. {베이그부커가} 대표적이다. 일부러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띄워 관심을 끄는, 일종의 ‘낙시꾼’이다. 《서울신문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7>

베이그북(<영>vaguebook) 영 「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따위에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불명확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 작성한 글. 『{‘베이그북’은} 신조어로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서 작성한 글을 의미한다. 《국민일보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5>

복세-편살(複世便살) 한+한+한+고 [복세편살] 「명」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기’를 줄여 이르는 말. 『짜증 나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마법의 주문처럼 {복세편살이라고} 말해 보자. 《헬스조선 2015년 1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

본 네이처 가전(<영>born nature家電) 영_영_한 「구」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얻은 지혜나 착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가전제품. ‘자연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의 ‘본 네이처(born nature)’와 ‘가전(家電)’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자연의 지혜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 및 출시된 {본 네이처 가전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베타뉴스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3>

부먹-계(부먹界) 고+한 [부먹계/부먹께] 「명」 탕수육을 먹을 때에 튀긴 소고

기나 돼지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 것에 반하여, 튀긴 고기 위에 소스를 부어 먹는 무리. 또는 그런 부류의 사람. 『{부먹계는} “소스의 양을 조절하면서 부으면 가장 완벽한 상태로 탕수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국민일보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8>

블라팅(<영>▼←blind meeting) 영 「명」 얼굴을 모르는 남녀가 누군가의 주선으로 일대일 또는 다대다로 만나는 일. 『OO OOO 공동 대표는 “8시간 동안의 이벤트를 통해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회사에 대한 솔직한 질문, 솔로들 간의 {블라팅} 등이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5년 8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

블랙^컨테이너(<영>black container) 영^영 『경제』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파는 데에 쓰는 컨테이너. 『요즘 중국 당국이 보따리상이나 {블랙 컨테이너에} 의한 밀수로 인한 가격 문란이 중국 제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하에 관세 확보 차원에서...해외 직구를 장려하고 있다. 《전자신문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

빙수 한류(氷水韓流) 한_한 「구」 우리나라의 빙수가 해외에서 널리 유행하는 현상. 『한국식 디저트의 세계화를 기치로 국내 빙수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온 OO이 {빙수 한류의} 첫 발걸음을 떼는 날이었다. 《머니투데이 2015년 5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5>



사바사(사<영>←by사) 고+영+고 「명」 ‘사람 바이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사람에게 따라서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OOO OO OOO, {사바사} 케바케.”, “OOO OO OOO, 그럼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 하시든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5>

사이다-남(<영>cider男) 영+한 「명」 청량음료의 하나인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남자. 『OO는 시청자들의 답답했던 속을 뽕 뚫리게 하는 {사이다남}, 탄산남의 등장을 예고하며 누리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스웨이 2015년 5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23>

사이다-녀(<영>cider女) 영+한 「명」 청량음료의 하나인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여자. 『특히 OOO는 최대의 악녀 OOO를 연기하는 OOO의 기를 누르는 연기로 {사이다녀라는} 평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2015년 8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35>

삼한^사미(三寒四微) 한^한 『지리』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자주 끼는 기후 현상. 7일을 주기로 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 미세먼지가 낀다는 뜻이다. 『특히 올겨울에는 {삼한 사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클렌징과 보습의 중요성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스포츠조선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1>

샐러리데이팅(<영>▼←salaryman dating) 영+영 「명」 샐러리맨을 위해 짝을 찾아 주고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 『싱글 직장인을 위한 {샐러리데이팅} OO가 올해 5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지 1주년이 된다. 《아크로팬 2015년 5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20>

샹쥘 고 [샹쥘] 「명」 ‘시아버지’의 준말. 『이어 OOO는 “경쟁력이 없는 언어는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라며 “{샹쥘}를” 아느냐. 주부들 사이에서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다. 잠깐 유행처럼 지나가는 그들만의 문화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엑스포츠뉴스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22>

서상커(<중>shesangke[奢尙客]) 중 「명」 세련된 취향과 높은 구매력을 갖추어 비싸고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는 중국인 관광객. 『돈을 아끼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거물이 있다. 엄청난 구매력을 자랑하는 이들은 {서상커라고} 불린다. 《동아일보 2014년 12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29>

선배-부심(先輩負心) 한+한 [선배부심] 「명」 자신이 선배인 것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 『무려 16년 차의 가요계 대선배라는 {선배부심도} 내려놓은 지 오래였다. 000는 자신에게 90도로 각뚝하게 대하는 8년 차 후배 가수 000을 편하게 대하며 근황을 주고받았다. 《헤럴드경제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4>

설명-충(說明蟲) 한+한 [설명충] 「명」 알 만한 내용을 지루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설명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니 이미 {설명충이} 돼 버린 기분이다. 《미디어오늘 2015년 1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38>

성덕(成<일>←otaku[御宅]) 한+일 「명」 ‘성공한 덕후’를 줄여 이르는 말. 『이에 000는 “000 형을 보고 자란 팬이다. 성공한 덕후, {성덕이라고} 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주경제 2015년 4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

세이프슈머(<영>safe←consumer) 영+영 「명」 『경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소비자 {세이프슈머들이}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인증받은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일보 2014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8>

세젤귀(世젤귀) 한+고+고 [세 : 젤귀] 「명」 ‘세상에서 제일 귀여움’을 줄여 이르는 말. 『이어진 인터뷰에서 OO은 최악체로 뽑혔다는 말에도 해맑게 웃으

며, 비장의 개인기로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애교 ‘{세젤귀}’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엠비시언에 2015년 10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5>

센-송(<일>sen[鮮]棟) 일+한 「명」 자신이 한국인인 사실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 ‘조선인’의 일본식 발음인 ‘조센진’과 ‘죄송’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총 3만 2,289표 중 1만 7,560표를 얻은 ‘{센송}은’…일부 한국 젊은이들이 자신의 자괴감과 열등의식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고를 치거나 일본과 관련된 글의 댓글에 해당 단어가 달리면서 유행어가 되었다. 《아주경제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4>

셀-고(<영>←self camera鼓) 영+한 「명」 ‘셀카 고자’를 줄여 이르는 말.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가수 000이 자신이 {셀고임을} 인증했다. 《오에스이엔 2015년 6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9>

셀카 고자(<영>←self camera鼓子) 영_한 「구」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평소 000는 셀카를 못 찍어 {셀카 고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이번 셀카도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아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한강타임즈 2014년 12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9>

셀카 렌즈(<영>←self camera lens) 영_영 「구」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을 때 사용하는 렌즈. ¶000이 사용한 {셀카 렌즈는} 렌즈의 배율을 조절해 넓은 영역을 찍을 수 있다. 《더팩트 2015년 2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263>

셀카 봉(<영>←self camera棒) 영_한 「구」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을 때 멀리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용하는 긴 막대 모양의 기기. ¶긴 봉 형태로 휴대 전화와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셀카 봉의} 원리라면 셀카 렌즈는 렌즈의 배율을 조절해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영역을 넓힌다. 《더팩트 2015년 2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4956>

셀프기프팅-족(<영>self gifting族) 영+한 「명」 『사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선물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셀프기프팅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다. <이데일리 2015년 1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5>

섬니 고 [섬니] 「명」 ‘시어머니’의 준말.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 보면 ‘육차’, ‘얼집’, ‘{섬니}’ 등 눈치만으론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 이 젊은 엄마들의 보통 용어가 된 지 오래다. <정책브리핑 2015년 7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3>

셰프테이너(<프>chef<영><←entertainer) 프+영 「명」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갖추고 방송 활동을 하는 요리사. **『요리** 실력은 기본, 엔터테이너의 끼와 재능을 겸비한 {셰프테이너들이} 브라운관을 누비며 시청자들의 오감을 자극 중이다. <스포츠동아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422>

소취(所就) 한+한 [소:취] 「명」 ‘소원 성취’를 줄여 이르는 말. 주로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람을 나타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OOO 씨. 가수로 보는 그날 기다릴게요.”, “작곡가 OOO 너무 재밌고 착해 보여. 꼭 데뷔했으면.”, “OOO 씨 가수 데뷔 {소취}.”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2015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3>

소품덕(小品<일><←otaku[御宅]) 한+일 「명」 소품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소품에 집착하는 사람. 또는 소품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 **『굿즈덕**은 아이돌과 같은 스타의 얼굴이 그려진 상품을 모으는 덕후이고, 문구덕은 펜, 연필, 노트 등을 모으기 좋아하는 덕후, 그리고 {소품덕은} 인테리어용 작은 물건들을 모으는 마니아입니다. <조선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숲세-권(金勢圈) (고+한)+한 [숲세권] 「명」 주변에 숲이나 공원 따위의 녹지 공간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 **『단지**

인근에 자연 녹지가 존재해 도심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뉴스웨이 2015년 5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349>

쉐깅스(<영>◀shape leggings) 영 「명」 『패션』 배와 허리, 다리의 결점을 감추어 맵시를 내거나 하체의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 입는 레깅스. ◀{쉐깅스는}…특수한 소재 또는 특수 직조법으로 만들어 신고 있지만 해도 몸매가 보정되는 레깅스를 가리킨다. 《코메디닷컴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9>

쉽포-족(쉽拋族) 고+한 [쉽: 포족] [쉽포족만[쉽: 포종만]] 「명」 『사회』 쉽을 포기한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휴식을 포기할 정도로 바쁘고 고달픈 삶을 사는 현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쉽을 포기할 정도로 각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업계별 {쉽포족에게} 힐링을 가져다 주는 세대별 마케팅도 급증하는 추세다. 《스포츠조선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01>

쉽표^마케팅(쉽標<영>marketing) (고+한)^영 『경제』 상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떤 휴식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마케팅.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힐링 마케팅으로 통하는 {쉽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 《뉴스토마토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4>

스웨그^룩(<영>swag look) 영^영 『패션』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면서 편안하고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는 옷. 또는 그런 옷차림. ◀{20대 사이에서는 정형화되지 않은 자기 고유의 개성을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표현하는 스타일인 ‘{스웨그 룩’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디어펜 2015년 5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48>

스펙 깡패(<영>◀specification깡牌) 영_(고+한) 「구」 매우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뿐만 아니라 OOO는 ‘세계 5대 은행’으로 꼽히는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 인턴을 수료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영어·스페인어·독일어 등 4개 국어 구사가 가능한 소위 ‘**{스펙 짱패}**’다. 《헤럴드팝 2015년 3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8>

시맨틱^머신(<영>semantic machine) 영^영 『기계』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도록 만든 기계. 『전문가들은 올해 인간을 파악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전자기기인 **{시맨틱 머신}** 트렌드가 주류를 이루며 웨어러블 시장도 살아날 것으로 본다. 《머니위크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5>

실물 강패(實物강패) 한_(고+한) 「구」 사진이나 영상 따위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나은 물건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 실물다 봤는데, OOO **{실물 강패임}**. 《뉴스엔 2015년 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28>

심멧 주의(心멧注意) (한+고)_한 「구」 앞으로 보게 될 장면 따위가 심장이 멎을 만큼 놀라울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주로 게시물에 아주 멋지거나 아름다운 연예인의 사진 또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거나, 너무 무섭거나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독자나 시청자가 놀라지 않게 미리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주의를 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교복을 입은 OOO는…벽에 기대어 그윽한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는 치명적인 매력까지 선보이며 **{심멧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 《매일신문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14>

심장 폭행(心臟暴行) 한_한 「구」 심장에 폭행을 가함. 보는 사람의 심장에 무리를 줄 만큼 아름답거나 멋있거나 귀여움의 정도가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연말에 **{심장 폭행이라니}**.”, “진짜 너무 예쁘잖아.” 등의 큰 호감을 보였다. 《스타뉴스 2014년 12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59>

심쿵-녀(心쿵女) (한+고)+한 [심쿵녀] 「명」 심장이 쿵쿵거리며 세게 뛰거나 쿵 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거나 귀여운 여자. 『OOO의 여성스러운

파스텔톤 스타일링을 배우면 나도 {심쿵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스포츠조선 2015년 3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28>

심쿵-사(心쿵死) (한+고)+한 [심쿵사] 「명」 심장이 쿵쿵거리며 너무 세게 뛰거나 쿵 하고 내려앉아서 죽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가슴이 세게 떨 만큼 어떤 대상이 아름답거나 멋지거나 귀엽다고 느끼는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OO OOO의 OOO에 대한 진심이 묻어나는 에필로그가 공개돼 시청자들의 ‘{심쿵사}’를 유발했다. 《스포츠투데이 2015년 6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3>

심쿵 유발자(心쿵誘發者) (한+고)_한 「구」 심장이 쿵쿵거리며 세게 뛰거나 쿵 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거나 멋지거나 귀엽다는 느낌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특유의 마초적인 카리스마 속에 드러나는 그의 이 같은 연기 아우라는 가히 여심을 흔들 만한 ‘{심쿵 유발자}’의 매력을 후끈하게 뿜어내고 있다는 평이다. 《한국경제티브이 2014년 9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32>

심폭(心暴) 한+한 [심폭] [심폭만[심풍만]] 「명」 ‘심장 폭행’을 줄여 이르는 말. 보는 사람의 심장에 무리를 줄 만큼 아름답거나 멋있거나 귀여운 정도가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O 오빠는 잘생겨서 {심폭을} 당했다. 《케이비에스연예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7>

썰-만화(說▽漫畫) 한+한 [썰만화] 「명」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소재로 한 만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만화이다. 『특히 ‘{썰만화}’라는 짧은 카툰은 웹툰에서 나름의 고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한국 2015년 7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9>

썸-맥(<영>←something脈) 영+한 「명」 정계, 재계, 학계 따위에서 형성된 사람들 사이의 약한 유대 관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놀족이란 ‘일상의 놀이화, 놀이의 일상화’를 뜻하며 떼덕후란 ‘떴떴한 덕후가 뜬다’, {썸맥은} ‘넓

고 알고 짧게 만나는 썸타는 인간관계’를 말한다. 《내일신문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6>

솔로몬(솔←Solomon) 고+영 「명」 지혜로운 왕인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처럼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 ¶(솔로몬
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과 취향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공유’라는 대안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소비를 모색한다. 《이코
노믹리뷰 2014년 12월》 【←쓰-+Solomon】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96>

썸덕-사(十▽<일>←otaku[御宅]死) (한+일)+한 「명」 ‘썸덕사’를 변형한 말로,
너무 귀여워서 보는 이가 죽음. 아주 귀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0일 000 소속사 OO 공식 트위터에는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얼어붙은
마음을 봄 햇살처럼 따스한 미소로 녹여 주는 000의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
합니다. 해맑은 웃음에 {썸덕사는} 기본...”이라는 글과 000의 사랑스러움
이 가득한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이뉴스24 2015년 2월》 【2014년 9월 신
어】 <2015년 빈도: 5>



아웃-플래킷(<영>out placket) 영+영 「명」 『패션』 옷자락을 여밀 때 겹치는
부분의 바깥쪽 천이 안쪽의 천보다 더 넓게 겹쳐지도록 만든 트임. ‘인플래
킷’의 반대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 재킷은…{아웃플래킷과}
인플래킷의 이중 방수 구조를 채택했으며, 후드 탈부착 형태의 디자인이다.
《동아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안전 이별(安全離別) 한_한 「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이

별. 『사랑도 이별도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 이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일요신문 2015년 10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1>

애슬레저^룩(<영>athleisure look) 영^영 『패션』 운동복을 일상복처럼 입는 옷차림. 『윌업 라인』은 최근 아웃도어, 스포츠, 패션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 모든 분야가 합쳐져 일상 속으로 들어온 ‘{애슬레저 룩’을} 겨냥한 것이다. 《브릿지경제 2015년 3월》 【←athletic+leisure】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94>

애정템(愛情<영>←item) 한+영 「명」 『패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옷이나 소품. 『개인 OO』에 평소 사용하는 제품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린 그는 ‘오늘도 내 피부를 책임져 주는 {애정템’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경제 2015년 10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8>

앵-까다 고+고 [앵까다] 「동」 ((주로 ‘앵까네’ 꼴로 쓰여))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하다. =거짓말하다. 『‘핵노잼’, ‘{앵까네}’, ‘버카충’.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쓰입니다. 《엠비엔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8>

야누스-족(Janus族) 영+한 「명」 『사회』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신(神)인 야누스처럼 낮에는 직장 일에 열중하고 퇴근 후엔 활동적인 레포츠를 즐기며 일상과 대비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부류. 『{야누스족 이} 많아지면서 일부 스키장은...새벽까지 개장 시간을 늘리고, 폐장 때 무료 셔틀을 운영하는 등 이들을 겨냥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경제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70>

어번^그래니(<영>urban granny) 영^영 『사회』 도시적이고 세련된 할머니. 주로 자신의 건강과 외모 따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중년 이상의 여성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새로운 소비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어번 그라니에} 대해서

들어 봤는가? 《스포츠투데이 2015년 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137>

어번^그래니족(<영>urban granny族) 영^(영+한) 『사회』 도시적이고 세련된 할머니. 또는 그런 할머니들의 무리. 주로 자신의 건강과 외모 따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을 이르는 말이다. 『‘신세대 할머니’라고도 불리는 {어번 그래니족은}…특히 젊음을 되찾기 위한 외모 관리에 큰 관심을 보인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9>

얼굴 몰아주기 고_고 「구」 여러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을 위해, 나머지가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함. 또는 그런 행동. 『공개된 사진에서 OOO를 제외한 OO 멤버들은 {얼굴 몰아주기를} 위해 얼굴을 망가뜨리고 있다. 《텐아시아 2015년 1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96>

얼빠-몸빠 고+고 [얼빠몸빠] 「명」 ‘얼굴에 빠지고 몸매에 빠짐’을 줄여 이르는 말. 능력이나 성품보다는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좋은 사람에게 쉽게 호감을 가지는 일이나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OOO은 지난 20일 방송된 OO에 출연해 ‘{얼빠몸빠’라는} 이상형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

엄지-맘(엄지<영>mom) 고+영 「명」 아이를 돌보면서 모바일 쇼핑을 즐기는 어머니.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모바일로 유아용품,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이른바 ‘{엄지맘’ 이} 크게 증가하면서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2015년 5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52>

엉덩이-턱 고+고 [엉 : 덩이턱] [엉덩이턱[엉 : 덩이턱만]] 「명」 엉덩이 모양처럼 한가운데가 오목하게 팬 턱. 『어렸을 때부터 갈라진 턱 끝 모양이 고민이었던 OOO 씨는 최근 자신과 같은 턱 유형을 가리켜 ‘{엉덩이턱’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됐다. 《헤럴드경제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8>

엔분의 일 잡(<영>n分の 一<영>job) (영+한+고)_한_영 「구」 일정한 소속이 없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나 집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식. 『과거에는 자신의 재능·경험 등을 포함한 일체의 노동력을 하나의 조직에 속하도록 해서 사실상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조직에 ‘바치는’ 고용 형태였다면, ‘{엔분의 일 잡}’은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재능·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개인·조직·프로젝트 등에 나눠서 배분하는 식으로 일하는 방식이다. 《더스쿠프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9>

엔터타이징(<영>entertising) 영 「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지 사항이나 상품 따위를 널리 알림. 『광고업계에선 최근의 이 포맷을 엔터테인먼트와 애드버타이징을 합쳐 ‘{엔터타이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그 2015년 7월》 【←entertainment+advertising】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4>

여덕-몰이(女<일>←otaku[御宅]몰이) (한+일)+고 「명」 여자 연예인이 여성팬들을 몰고 다니는 일. 『OO은 걸그룹 아이돌 중에서도 ‘{여덕몰이}’의 대가로 손꼽힌다. 《톱스타뉴스 2015년 4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22>

여자-여자(女子女子) 한+한 [여자여자] 「명」 아주 여성스러움. 『이젠 습관이 돼서 저절로 한쪽 눈이 감겨요. 그러다가…요즘은 의식적으로 눈을 감지 않으려고 해요. 콘셉트가 {여자여자랄까}. 《헤럴드경제 2014년 12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35>

여자여자-하다(女子女子하다) 한+고 [여자여자하다] 「형」 아주 여성스럽다. 『OOO은 29일 자신의 OO에 “…내가 {여자여자해} 보이는 법, 반묶음, 샤랄라 원피스 그리고……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라는 글과 함께 암전한 모습의 사진을 한 장 게재했다. 《오에스이엔 2015년 6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3>

여혐(女嫌) 한 [여혐] 「명」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함. 『{여혐은} 전파력이 높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동아일보 2015년 9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2>

여혐-혐(女嫌嫌) 한+한 [여혐혐] 「명」 『사회』 여혐 현상을 싫어하고 미워함. 『갑을 논쟁으로까지 번진 빈부 갈등, 여혐·{여혐혐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남녀 갈등, 취업난 등으로 촉발된 세대 갈등,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문제로도 꼽히는 이념과 지역 갈등 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서울경제 2015년 8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7>

연애-고자(戀愛鼓子) 한+한 [여: 내고자] 「명」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을 고자에 빗대어 이르는 말. 『OO은 {연애고자인} 두 남녀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코믹함을 더해 솔직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2015년 5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94>

연애-설(戀愛說▽) 한+한 [여: 내설] 「명」 ‘연애설’을 변형한 말로, 자신이 연애를 하면서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남에게 일러 주는 말. 『실제 연애 경험담으로 솔직하고 리얼하게 그려진 이 웹툰은...누구나 겪어 봤을 {연애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2030 세대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며 팬덤을 형성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5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25>

연필^거지(鉛筆거지) 한^고 『사회』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연필 따위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특정 가구 판매점에서 상품 정보를 메모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연필을 몰래 가져가는 손님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다. 『가구 매장 OO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매장에 비치한 연필을 가져가는 '{연필 거지'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 2015년 2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03>

온라인^카니발라이제이션(<영>online carnibalization) 영^영 『경제』 온라인상에서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이는 오프라인 고객의 대체이며, 온라인상에서의 상

품 판매로 인한 수수료나 광고비 등은 오히려 늘어나 수익률을 잠식하는 현상.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은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포커스 - 201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에서 {온라인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중소기업이 ‘경계’해야 할 5대 이슈의 하나로 선정했다. 《노컷뉴스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9>

완피(完疲) 한+한 [완피] 「명」 ‘완전히 피곤함’을 줄여 이르는 말. 『OOO』은 OOO의 행동에 ‘유치하기가 만렙’이라고 말하며 “귀여운 맛에 놀아 줄까 했는데, {완피다}. 완전 피곤해. 포모남(포기를 모르는 남자)이야.”라고 말했다. 《오에스이엔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5>

왕-면봉(王綿棒) 한+한 [왕면봉] 「명」 매우 크고 굵은 면봉. 『최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5개의 {왕면봉을} 모아 기자가 직접 사용해 봤다. 《레이디경향 2015년 5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45>

외발 전동 휠(외발電動<영>wheel) 고_한_영 「구」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외발 바퀴. 『언제부터인가 {외발 전동 휠을}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해 주위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시엔비뉴스 2015년 6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4>

외발형 전동 스쿠터(외발形電動<영>scooter) (고+한)_한_영 「구」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외발 스쿠터.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모은 이 물건은 ‘외발 전동 휠’, ‘{외발형 전동 스쿠터}’ 혹은 ‘통발이’로도 불린다. 《주간조선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8>

요리사노바(料理←Casanova) 한+이 「명」 요리를 잘해서 여러 이성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 『두 사람은 이날 ‘{요리사노바}’의 면모도 과시했다. 《오에스이엔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8>

요섹-남(料<영>←sexy男) (한+영)+한 「명」 ‘요리를 하는 섹시한 남자’를 줄여 이르는 말. 『가수 OOO가 능수능란한 요리 솜씨로 ‘{요섹남}’에 등극했다. 《

스포츠동아 2015년 7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344>

욕밍아웃(욕<영>←coming-out) 고+영 「명」 평소 욕을 잘 사용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 또는 그렇게 되는 일. 『OOO는...공무원 친구를 집으로 불러 밤새 술을 마시다가 하면 그들 앞에서 ‘{욕밍아웃}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울경제 2015년 6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3>

욕커(辱<영>er) 한+영 「명」 욕을 잘하는 사람. 『OOO는 식사 시간 동안 술한 비속어를 쏟아 냈고 진정한 {욕커의} 면모를 보였다. 《뉴스엔 2014년 10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33>

우버링(Ubering) 영 「명」 『경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일.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사(Uber Technologies Incorporated)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차 프로그램에서 유래한 말로, ‘우버’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손님과 자신의 차로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수 있는 택시 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 OO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우버링}이다. 《울산매일신문 2014년 11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9>

우버 태그(Uber<영>tag) 영_영 「구」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자신이 게시하는 글 또는 사진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 또는 장소 등을 입력한 태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손님과 자신의 차로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수 있는 택시 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인 ‘우버(Uber)’ 프로그램이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래한 말이다.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4>

우버-화(Uber化) 영+한 「명」 『경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하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사(Uber Technologies Incorporated)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차 프로그램에서 유래한 말로, ‘우버’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손님과

자신의 차로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수 있는 택시 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우버화로** 다양한 사업 기회와 고용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있지만, **우버화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시사인라이브 2015년 5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28>

우젤귀(宇젤귀) 한+고+고 [우 : 젤귀] 「명」 ‘우주에서 제일 귀여움’을 줄여 이르는 말. **우젤귀** 뜻으로 ‘우젤예’, ‘**우젤귀**’는 각각 우주에서 제일 예쁘다, 우주에서 제일 귀엽다는 말입니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4>

우젤예(宇젤예) 한+고+고 [우 : 제예] 「명」 ‘우주에서 제일 예쁨’을 줄여 이르는 말. **우젤예** 버전으로는 ‘세젤예’, ‘**우젤예**’가 있다. 《머니위크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3>

욱-질 고+고 [욱질] 「명」 앞뒤를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나 하는 짓. **욱-질** 계속하는 쪽은 편할지 몰라도 당하는 이들은 골병이 든다. 《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80>

윈윈^페이(<영>win-win pay) 영^영 『사회』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알맞은 임금을 지급하고, 피고용자는 노동한 대가로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것. **이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합심해서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윈윈 페이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티엔티브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9>

의경^고시(義警考試) 한^한 『사회』 의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 의경이 되기가 매우 어려움을 ‘고등 고시’에 빗대어 이르는 말. **의경**에 합격하기 위해 채수나 삼수를 하는 응시자도 있다. 이 때문에 **{의경 고시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중앙일보 2015년 6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37>

인구론(人九론) 한+한+고 [인구론] 「명」 ‘인문계 졸업생의 90퍼센트가 논다’를

줄여 이르는 말. 인문계 학생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한 O 모 씨는 “나도 놀고 동기도 놀고, 선배도
놀고 있으니 {인구론이란} 말이 과장은 아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한국
일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43>

인생-샷(人生<영>shot) 한+영 「명」 한평생 길이 남을 만큼 잘 나온 사진.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폰카로 {인생샷}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보
여 주고 싶을 정도의 인물 사진은 만들 수 있다. 《동아일보 2015년 5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0>

인생템(人生<영>←item) 한+영 「명」 평생 쓰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잘 맞는
물건. 『커버력과 지속력 그리고 수분감까지 더해진 제품이라면 {인생템으로}
삼아라. 《한국경제 2015년 6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29>

인셉서니즘(<영>inceptionism) 영 「명」 『컴퓨터』 컴퓨터의 인공 신경망이 이
미 학습한 이미지에서 서로 연관된 변수들을 찾아 새로운 이미지를 합성해
내는 일. 인간이 어떤 이미지를 보고 연상 작용을 통하여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컴퓨터가 이미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도록 한
기술을 가리킨다. 『{인셉서니즘은}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디넷코리아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인테리어-남(<영>interior男) 영+한 「명」 실내를 장식하는 일을 하는 남자. 또
는 그런 일을 즐기는 남자. 『원시 시대부터 수렵하는 존재였던 남성이 그루
밍족에서 요섹남, 요리남으로, 이어 {인테리어남으로} 변화해 가는 현상은
저성장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으로도 읽힌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7>

인텔리슈머(<영>▼←intelligent consumer) 영+영 「명」 『경제』 물건을 살 때
똑똑하고 총명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 『최근 가격은 물론
디자인, 성능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지는 {인텔리슈머가} 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11>

임팩트볼^측정법(<영>▼**impact ball測定法**) 영^한 『건설』 2.5kg 정도의 고무공을 이용하여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중량 충격음 1등급의 경우 뱅머신 측정법으로는 40dB을 충족하면 되지만 {임팩트볼 측정법은} 37dB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신문 2015년 8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1>

잉글리시^푸어(<영>**english poor**) 영^영 『경제』 취업을 위한 영어 공부에 과도한 교육비를 지출해 가난한 사람. 또는 그런 현상. 『지속되는 취업난 속 경제적 빈곤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에듀 푸어에 이어 {잉글리시 푸어도} 등장했다. 《천지일보 2014년 12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38>

잉-문학(剩文學) 한+한 [잉문학] [잉문학만[잉문학만]] 「명」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을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 『{잉문학의} 정신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겨레21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



전동 휠(電動<영>**wheel**) 한_영 「구」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바퀴. 『OO은 평형을 스스로 잡아 주는 자이로 센서 기술이 적용된 {전동 휠} 선보이고 있으며, OO는 서서 타는 전동 스쿠터의 원조 격인 기업이다. 《데이터넷 2015년 4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120>

중고나라 론(中古나라<영>**loan**) (한+고)_영 「구」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중고 물품을 이용해 사기를 쳐 돈을 버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중고나라 론’이란} 단어를 검색하자 중고 물품 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부산일보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9>

증거 중독(證據中毒) 한_한 「구」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에 집착하는 병적 상태. 『소비자들이 ‘{증거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경제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85>

증거 중독자(證據中毒者) 한_한 「구」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에 집착하는 사람.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비교하는 소비자를 주로 가리킨다. 『제품 설명서 없는 물건은 도통 구입하려 하지 않는 ‘{증거 중독자’들도} 기업을 곤혹스럽게 하는 존재들이다. 《아시아경제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16>

지여인(地女人) 한+한+한 [지여인] 「명」 『사회』 ‘지방대 출신의 여자 인문대생’을 줄여 이르는 말. 『30대 그룹 인사 담당 임원을 만날 때마다 ‘{지여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 2015년 4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8>

지옥불^반도(地獄불半島) (한+고)^한 『사회』 지옥의 불이 있는 반도라는 뜻으로,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금 여긴 헬조선, {지옥불 반도다}. 《국민일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8>

진지-충(眞摯蟲) 한+한 [진지충] 「명」 모든 일에 진지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대부분 실명을 사용하고 오프라인에서 마주치는 지인들과 얹혀 있는 페이스북에서 ‘{진지충’이나} ‘김치녀’로 비난당하는 게 두려운 누군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아이즈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4>

짤-줍 고+고 [짤줍] [짤줍만[짤줍만]] 「명」 다른 사람이 게시한 그림 파일을 내려받음. 또는 그런 일. 『OOO은 “단체 채팅방에…사진만 올라오면 다들 ‘{짤줍}’이라면서} 다 퍼갔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4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1>

찍먹-계(찍 먹界) 고+한 [찍먹계/찍먹계] 「명」 탕수육을 먹을 때에 튀긴 소고기나 돼지고기 위에 소스를 부어 먹는 것에 반하여, 튀긴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 사람들의 부류. 『“바삭바삭한 식감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찍먹계의} 주장이다. 《국민일보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11>

大

차애(次愛) 한 [차애] 「명」 두 번째로 사랑하고 아낌. 『나에게 {차애란}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애들은 다 예쁜데 어떻게 {차애를} 만들 수가 있어? 《톱스타뉴스 2015년 3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11>

창위랍토르(<영>changyuraptor) 영 「명」 『동물』 백악기 전기에 살던, 하늘을 나는 육식 공룡. 몸길이는 1.3m 정도이며, 온몸이 긴 깃털로 덮여 있다. 무게는 4kg 정도이며, 꼬리가 매우 길다. 하늘을 나는 공룡 중에서 몸집이 큰 편에 속한다. 『긴 날개를 가졌다는 뜻의 중국어를 따서 ‘{창위랍토르}’라 명명된 이 공룡은 마치 복엽기처럼 몸 양옆에 한 쌍씩의 날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2014년 7월》 [←changyu[長羽]+raptor]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0>

철벽^소비자(鐵壁消費者) 한^한 『경제』 물건을 구매할 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구매하는 소비자. 『전문가나 다름없는 {철벽 소비자}, 자칭

타칭 ‘컨슈니어’라고 불리는 이들의 소비 생활은 아주 특별하다. 《헤럴드경제 2015년 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6>

청순 보스(淸純<영>boss) 한_영 「구」 매우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청순하기가 보스(boss) 급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그의 청순하면서도 남자다운 이중적 매력에 시청자들은 ‘{청순 보스’라는} 애칭까지 새롭게 만들어 내며 그의 매력을 콕콕 짚어 내고 있다. 《한국경제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17>

출근 휴가(出勤休暇) 한_한 「구」 직장에서 휴가 기간에 휴가를 가지 않고 출근하는 일. 『OOO는 희망퇴직 등 구조 조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사장단 인사설까지 흘러나오면서 하계휴가에 들어간 임원들은 ‘{출근 휴가}’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5>

취업 강패(就業强牌) 한_(고+한) 「구」 취업에 유리하거나 취업을 잘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요즘 공대생을 ‘{취업 강패’라고} 부른다. 《동아일보 2015년 2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92>

취켓팅(取<영>←ticketing) 한+영 「명」 다른 사람이 취소한 차표나 입장권 따위의 표를 삼.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공연계에서는 {취켓팅이} 벌어지는 콘서트가 진짜 인기 공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뉴스24 2014년 11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2>

치킨-각(<영>chicken角) 영+한 「명」 치킨을 시켜 먹으며 시청해야 할 정도로 재미있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 『당초 ‘{치킨각’이라고} 불렸던 이 게임이 예상과는 다르게...30분가량 빠르게 진행됐다. 《형그리앱 2015년 5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5>

친구-느님(親舊느님) 한+고 [친구느님] 「명」 친구를 높여 이르는 말. 『OO 개 그우면 OOO가 알미운 {친구느님으로} 변신했다. 《엑스포즈뉴스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6>

칠포^세대(七拋世代) 한^한 『사회』 생활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을 포기한 세대. 연애, 결혼과 출산,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의 다섯 가지를 포기한 ‘오포 세대’가 취업과 희망도 포기한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많은 청년이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얻지 못해 이른바 ‘{칠포 세대’가} 되고 있다. 《문화일보 2015년 4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110>

ㄱ

카레-국(<영>←curry國) 영+한 「명」 ‘인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도의 대표 음식인 ‘카레’에 나라를 의미하는 한자어 ‘국(國)’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이외에 중국은 대륙, 미국은 천조국, 러시아 불곰국, 캐나다 단풍국, 인도 {카레국}, 네덜란드 풍차국 등 대부분 음식, 건물, 국기 등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붙여진 별명이다. 《텐아시아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3>

카스-썰(▼←Kakao Story說▼) 영+한 「명」 ‘카스설’을 변형한 말로,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스토리(Kakao Story)’에서,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의 생각을 남에게 알려 주는 말. 주로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내어 ‘카카오스토리(Kakao Story)’에 게재하는 글을 가리킨다. 『그룹 OO이 주인공인 {카스썰의} 작가 OOO 양은 “예전에는 글짓기 연습을 해도 평가받을 기회가 없어 내게 소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카스썰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4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27>

카툰(<영><←camera툰) 영+고 「명」 카메라의 렌즈가 툰 튀어나오게 디자인함. 또는 그런 디자인의 핸드폰. 『올 하반기 스마트폰 디자인의 최대 이슈는 ‘{카툰}’다』. 《조선비즈 2014년 10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59>

카페인^우울증(<영><←Kakao Service Facebook Instagram憂鬱症) 영^한 『의학』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주로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서 드러나는 다른 사람의 긍정적 상황과 자신의 부정적 상황을 비교해서 생기는 우울증이다. ‘카페인’은 대표적인 누리 소통망 서비스인 ‘카카오 서비스(Kakao service),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첫머리 글자에서 유래한 말이다. 『카카오 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카페인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부산일보 2015년 5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5>

카하이-오일(kahai<영>oil) 영 「명」 카카이(cacay) 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최근 아마존의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카하이오일} 기존 아르간오일의 아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화장품 원료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경제 2015년 2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31>

칼-업데이트(칼<영><←update) 고+영 「명」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로 하는 업데이트. 『OO 연재 소식에 네티즌들은 “OO,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OO, {칼업데이트} 베일 뻔.” “OO, 기다린 보람이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엔티뉴스 2014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3>

캐리-각(<영><←carry角) 영+한 「명」 게임이나 운동 따위에서, 팀 전체의 승리를 개인이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잇달아 OOO는 OOO가 6레벨을 찍자마자 다시 톱을 공략, 7분 만에 톱에서만 2킬이 나오면서 소위 ‘{캐리각}’을 만들어 낸다. 《헤럴드경제 2015년 5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5>

커엽다 고 [커엽파] [커여워[커여워], 커여우니[커여우니]] 「형」 ‘귀엽다’를

변형한 말로,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서 사랑스럽다. 『네티즌들도 253개의 추천과 함께 달린 88개의 댓글 속에서 “{커엽다}.”, “처진 눈이 인상적이다.”, “병아리인 줄 알았다.”라며 대체적으로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다. 《헤럴드경제 2015년 6월》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3>

커-퀴(<영><←couple퀴) 영+고 「명」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커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커플(couple)’의 첫 음절과 ‘바퀴벌레’의 두 번째 음절을 합한 말이다. 『이번에는 ‘{커퀴’에게} 당했습니다. 《문화일보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

커피 냅(<영>coffee nap) 영_영 「구」 낮에 커피를 마신 후에 20분 정도 짧게 자는 잠. 『영국의 OO 대학 OO 센터에서 성인 24명을 동원해 실험한 결과 {커피 냅을} 청한 사람들은…일을 실수 없이 해냈다고 전해졌다. 《한국경제 2015년 3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3>

컨슈니어(<영><←consumer engineer) 영+영 「명」 『경제』 물건을 구매할 때, 전문가 못지않은 자격이나 지식을 갖추고 물건의 성분과 품질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 『전문가 못지않은 기술과 의식으로 무장한 이들을 가리켜 ‘{컨슈니어’라고} 부른다. 《월간마이더스 2015년 3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34>

케미 짱패(<영><←chemistry짱패) 영_(고+한) 「구」 서로 매우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O OOO, 유부남들은 어떻게 ‘{케미 짱패’}가 됐나? 《뉴스엔 2015년 2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9>

코르스(<영><←Korea MERS) 영 「명」 중동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이 한국에서 확산된 것을 이르는 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에서 중동을 의미하는 엠이(ME) 대신 한국을 의미하는 케이오(Ko)를 합성한 말로, 2014년 5월 20일 첫 환자가 확진을 받았다. 『메르스 단어에서 ‘중동’이란 뜻의 약어 엠이(ME)를 떼고 한국이라는 약어를 붙여서 ‘{코르스’로} 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티브이조선 2015년 6

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5월 신어】
<2015년 빈도: 267>

코스멀틱(<영>▼←cosmetic multi) 영+영 「명」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 ¶{코스멀틱으로} 화장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노하우를 살펴보자. 《아시아투데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7>

쿡-방(<영>cook放) 영+한 「명」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여 주는 방송. ¶냉장고를 소재로 ‘{쿡방}의’ 신기원을 이끄는 관전 포인트 세가지를 공개한다. 《티브이리포트 2014년 11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3240>

크로스^쇼퍼(<영>cross shopper) 영^영 『경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파워와 같이 서로 다른 환경이나 영역을 넘나들며 물건을 사는 사람.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쇼핑을 즐기는 {크로스 쇼퍼가} 증가하면서 유통 채널 간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주간동아 2014년 12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23>

키즈시즘(<영>▼kids←racism) 영+영 「명」 사회적 편견 때문에 특정한 연령의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일. ¶또한 사회적으로 {키즈시즘}, 더 나아가 어린이 혐오 풍조가 조성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있다. 《경상일보 2015년 8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4>



타이거 티처(<영>tiger teacher) 영_영 「구」 학생들을 매우 엄하게 가르치는 선

생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타이거 티치는} 타이거 맘과 유사하지만 주체가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닌 아이를 가르치는 강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크로펜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4>

탄산-남(炭酸男) 한+한 [탄: 산남] 「명」 탄산음료를 마신 것처럼,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남자. 『OOO의 냉장고에는 그의 별명 ‘{탄산남’에} 걸맞게 탄산음료가 가득해 시선을 끌었다. 《오에스이엔 2014년 10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213>

택배 버뮤다(宅配Bermuda) 한_영 「구」 배송 과정에서 택배물이 사라지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그런 지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최근 인터넷상에 ‘{택배 버뮤다’라는} 신조어가 퍼지고 있다. 《뉴시스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

퇴직^크레바스(退職<영>crevasse) 한^영 『사회』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상황을 빙하의 표면에 생긴 깊은 균열인 크레바스에 비유한 말이다. 『향후엔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크레바스’를} 해소하고, 노후 생활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는 플랜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2015년 9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5>

튀-맥(튀麥) 고+한 [튀맥] [튀맥만[튀맹만]] 「명」 튀김과 맥주를 아울러 이르는 말. 『‘치맥’이 ‘{튀맥’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4년 10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24>

트윈노믹스(<영>▼←twins economics) 영+영 「명」 『경제』 쌍둥이와 관련된 경제 활동이나 전략. 쌍둥이를 의미하는 ‘트윈스(twins)’와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쌍둥이 출산을 역대 최고…‘{트윈노믹스’가} 뜬다. 《세계일보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7>

II

파티스트(<영>▼←party artist) 영+영 「명」 파티의 기획, 연출, 진행 따위의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국내 최초의 {파티스트} 000이…국내 1호 {파티스트로} 웨딩업계 및 우리나라 전체에 파티 문화를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되었다. <한국경제티브이 2015년 5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22>

패스트 리빙(<영>fast living) 영_영 「구」 유행이나 계절에 따라 거실 따위의 공간을 빠르고 간편하게 바꾸어 장식하는 일. 또는 그런 용품. 『합리적인 금액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스트 리빙’이}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2015년 7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75>

패터니스타(<영>patternista) 영 「명」 옷감의 무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 대중의 선망을 받으며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패턴’에 한층 더 힘을 준 이번 시즌 주력 제품들을 잘 활용한다면 필드 위 ‘{패터니스타’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오에스이엔 2015년 3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6>

패테(<영>▼←fashion terrorist) 영+영 「명」 ‘패션 테러리스트’를 줄여 이르는 말. 『어설픈 20~30대를 따라 했다간 일명 ‘{패테’만} 되기 십상이다. <문화일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

펠비지(<영>pelvage) 영 「명」 골반과 그 주위의 오목하게 팬 부분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골반을 뜻하는 펠비스(pelvis)와 가슴골을 뜻하는 클리비지

(cleavage)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OOO는 물론 OO의 OOO까지, 이들이 {펠비지를} 드러내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보그 2015년 2월》 【←pelvis+cleavage】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펫 부머(<영>pet←baby boomer) 영_영 「구」 애완동물에 관심이 있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베이비 붐 세대. 주로 은퇴한 후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베이비 붐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펫 부머}’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머니위크 2014년 8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편도-족(便道族) (한+고)+한 [편도족] [편도족만[편도종만]] 「명」 ‘편의점 도시락족’을 줄여 이르는 말.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생긴 말이다. 『1인 가구 증가 같은 인구 구조 변화 및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편도족}’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일보 2015년 5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30>

포레듀케이션(<영>←forest education) 영+영 「명」 숲 따위와 같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교실에서 행해지는 교육보다 신체 발달이 더 잘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이나 사회성도 더 키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교육 방식이다. 『교실 안에서만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자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나 사회성, 창의성 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숲과 교육의 합성어인 ‘{포레듀케이션}’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비에스시엔비시티브이 2015년 9월》 【2014년 9월 신어】 <2015년 빈도: 17>

포텐 가전(<영>←potential家電) 영_한 「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가전제품. 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기능이 있거나 기대보다 성능이 더 좋은 가전제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 {포텐 가전}으로 OO 청소기 OO가 꼽힌다. 《메트로신문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0>

푸드-테크(<영>food tech) 영+영 「명」 음식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꾀하는 일. ¶이 제품은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소와 칼로리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회사 측은 임베디드, 웹, 모바일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푸드테크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에이빙뉴스 2015년 3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14>

프리콘(<영>free←concert) 영+영 「명」 콘서트를 이용하는 관객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콘서트. ¶보컬리스트 OOO이 화이트데이 특별 공연인 ‘{프리콘’을} 예고했다. 《스포츠서울 2015년 3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124>

프리트밀봉(<영>frit密封) 영+한 「명」 『공업』 두 개의 판 사이에 넣은 유리를 레이저로 녹여서 두 개의 판을 단단히 붙여 꼭 봉함. ¶기존에는 전통적인 오엘이디(OLED) 밀봉 방식으로…{프리트 밀봉과} 에지(edge) 밀봉이 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박막 밀봉과 접착 필름 밀봉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디넷코리아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1>

플레세트-탄(<프>flechett彈) 프+한 「명」 『군사』 많은 수의 작은 화살을 큰 탄알 속에 넣어 만든 포탄. 큰 탄알이 폭발하면 작은 화살이 튀어 나가서 살상·파괴의 범위가 넓어진다. ¶22일 OO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OO이 OO를 공격할 때 집속탄의 일종인 ‘{플레세트탄’을} 사용해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다. 《경향신문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34>

피딩-족(<영>FEEDing族) 영+한 「명」 『사회』 손주를 돌볼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육아를 즐기며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조부모. 또는 그런 무리. ¶OO 백화점이 2월을 맞아 ‘손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근 ‘{피딩족’의} 구매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구매가 명절 시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2015년 2월》 【FEED: financial, enjoy, energetic, devoted】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130>

피캉스-족(皮<프><-vacance族) (한+프)+한 「명」 『사회』 피부과 병원에서 피부 치료를 받으며 여름휴가를 보내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바캉스 대신 피부과로 바캉스를 떠나는 ‘{피캉스족}이’ 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2>

ㅎ

한복 여행가(韓服旅行家) 한_한 「구」 한복을 입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요즘 한복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모아면서 한복을 입고 여행을 떠나는 {한복 여행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케이티브이국민방송 2015년 7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6>

한큐 가전(한<영>cue家電) (고+영)_한 「구」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가전제품. 주로 기능은 많지만 사용법이 간단한 가전제품을 이르는 말이다. ¶{한큐 가전}이란 버튼을 누르면 음식 조리부터 빨래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등 간편한 사용법과 빠른 작동 시간을 강점으로 내세운 가전제품을 말한다. <스포츠조선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8>

항-메르스(抗<영>MERS) 한+영 「명」 『의학』 메르스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그 바이러스를 죽임. ¶OO 메르스에 대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OO 메르스, 전국으로 퍼지나?”, “OO 메르스, 메르스 전파 무서워.”, “OO 메르스, {항메르스의} 효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남일보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8>

항메르스^물질(抗<영>MERS物質) (한+영)^한 『의학』 메르스를 유발하는 바이

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한국에서는 메르스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중 합동 연구팀이 {항메르스 물질}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매일경제 2015년 6월》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4>

해먹-남(해먹男) 고+한 [해명남] 「명」 음식을 직접 해서 먹는 남자. 주로 조리 과정이 단순하지 않은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남자를 의미한다. 『라면을 끓여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냉동식품을 데워 먹는 수준에 그쳤던 ‘혼자 먹는 남자’들이 {‘해먹남’으로} 진화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15>

해먹-방(해먹放) 고+한 [해먹방] 「명」 음식을 직접 해서 먹는 행위를 보여주는 방송. 『‘먹방’을 넘어 {‘해먹방’이} 뜨고 있는 지금, OO와 OO는 ‘먹방’을 관통하는 문화 코드를 분석해 봤다. 《머니투데이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핵-공감(核共感) 한+한 [핵공감] 「명」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매우 크게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배우 OOO이 OO 드라마 OO에서 매회 시청자들의 {‘핵공감’을} 이끌어 내는 ‘명대사 제조기’가 되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5월》 【2014년 8월 신어】 <2015년 빈도: 14>

핵-귀염(核귀염) 한+고 [핵귀염] 「명」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서 매우 사랑스러움. 『OOO 셰프의 골무 모자 선물 소식에 네티즌들은 “쌍둥이 모자인 줄 몰랐을 듯.”...“골무 쓴 쌍둥이 {핵귀염}~.”, “OOO 셰프 같은 남자 사람 친구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부산일보 2015년 7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

핵-노답(核<영>no答) 한+(영+한) 「명」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거나 아예 없음. 또는 그런 일. 『관객들의 외면을 받아도 {핵노답’으로} 일관할지 지켜볼

일이다. 《매일경제 2015년 4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13>

핵-노잼(核<영>no잼) 한+(영+고) 「명」 매우 재미가 없음. 또는 그런 일. 『동생 000과 00에 동반 출연한 000이 일명 ‘{핵노잼}’을 걱정해 눈길을 끈다. 《티브이리포트 2015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151>

핵-잼(核잼) 한+고 [핵잼] 「명」 매우 재미가 있음. 또는 그런 일. 『‘꿀벅지’를 통해 잘 알려진 ‘꿀’, ‘개이득’을 통해 알려진 ‘개’, ‘{핵잼}’을 통해 알려진 ‘핵’ 등은 동사와 명사를 가리지 않고 접두어로 사용된다. 《머니투데이 2015년 3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57>

핵-존심(核尊心) 한+한 [핵존심] 「명」 어떤 일에 대해 절대로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화장은 ‘{핵존심}’을 사수하는 방법이라는 여고생들의 변(辯)을 들어 본다. 《중앙일보 2015년 10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969>

허특-법(許特法) 한+한 [허특법] [허특법만[허특법만]] 「명」 『법률』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이 유지되는 동안에 다른 복제약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 한 의약품에 각각 따로 적용되어 온 허가과 특허에 대한 행정 절차를 서로 연계하여,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 회사는 {허특법}을 통해 높은 약값을 유지하며 제네릭약을 견제할 수 있다. 《한국경제 2015년 8월》 【2015년 2월 신어】 <2015년 빈도: 3>

험블브래그(<영>humblebrag) 영 「명」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함. 또는 그런 일. 『지난해 옥스퍼드 사전에 오른 신조어 가운데 {험블브래그라는} 단어가 있다. 《중앙일보 2015년 8월》 【2014년 11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헬-조선(<영>hell朝鮮) 영+한 「명」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결합하여 만든 말로,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 『입시 지옥, 취업 지옥, 생계 지옥을 겪는 젊은 세대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한 지 꽤 되었다. <경향신문 2015년 8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8>

혁신^기러기(革新기러기) 한^고 『사회』 혁신 도시에 거주하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 주로 공공기관이 혁신 도시로 이전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된 공공기관 근무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많은 ‘{혁신 기러기}’를 양산하고 있다. <일요신문 2015년 6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3>

현-눈(現눈) 한+고 [현 : 눈] 「명」 ‘현실 눈물’을 줄여 이르는 말. ‘ππ’ 따위를 타자로 입력하여 눈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흘리는 눈물을 가리킬 때 쓰인다. 『방송이 끝난 후 누리꾼들은 에스엔에스 등을 통해…“OOO 진짜 짠내 나서 {현눈} 났음.” 등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한국경제티브이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7>

현미(現美) 한+한 [현 : 미] 「명」 ‘현실 미모’를 줄여 이르는 말. 방송이나 사진으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모습이 매우 아름다울 때 쓰는 말이다. 『스튜디오에 등장한 줄임말을 쓰는 친구들은…“OOO 언니는 가까이서 보니 {현미} 돋는다.”라며 “말을 줄여서 쓰는 게 정말 편하다. 할 말이 많으니 말을 줄이는 거다.”라고 밝혔다. <엑스포즈뉴스 2015년 1월> 【2015년 1월 신어】 <2015년 빈도: 3>

현실 소름(現實소름) 한_고 「구」 현재 실제로 발생하는 소름. 갑작스러운 일이나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매우 놀랐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OOO의 ‘심멧’ 명장면을 접한 시청자들은…“OOO, 주사기 누르라고 소리 지를 때 {현실 소름}! 명품 연기 돋았다!”…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티브이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3>

호러툰(<영>horror←cartoon) 영+영 「명」 죽음, 귀신, 괴물, 살인마 따위를 소재로 하여 두렵고 무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만화. 『스마트폰으로 호러툰,

{호러툰}, 웹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케이비에스티브이 2015년 6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3>

호모^솔리타리우스(<라>homo solitarius) 라^라 『사회』 외로운 인간이라는 뜻으로, 핵가족화나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에 혼자 살게 된 현대인을 이르는 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생겨나고 있는 {호모 솔리타리우스는}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다. <경남일보 2015년 4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3>

혼밥-남(혼 밥男) 고+고+한 [혼밥남] 「명」 ‘혼자 밥을 먹는 남자’를 줄여 이르는 말. ¶그는 화장실의 {혼밥남’에서부터} 대학생들이라면 공감할 팀 프로젝트, 고학력 인문학도들의 고단한 취업난 등 다양한 소재를 잘 버무려 냈다. <엑스포츠뉴스 2015년 4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26>

혼-술 고+고 [혼술] 「명」 ‘혼자 먹는 술’을 줄여 이르는 말. ¶이 유형의 사람들 다수는 혼밥의 자유로움, 혼밥의 편함 등을 내세우면서 혼밥의 고독을 {‘혼술’로} 감당해 가고 있다. <한국일보 2015년 8월> 【2015년 4월 신어】 <2015년 빈도: 13>

홈마(<영>▼←homepage master) 영+영 「명」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의 운영자. ¶{홈마들은} 팬클럽 회원들을 이끈다. <한국일보 2014년 7월> 【2014년 7월 신어】 <2015년 빈도: 4>

화석 선배(化石先輩) 한_한 「구」 졸업을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졸업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남아 있는 선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실제로 대학생 10명 중 6명은 {화석 선배를} 보며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 2015년 3월> 【2015년 3월 신어】 <2015년 빈도: 69>

효과툰(效果<영>←cartoon) 한+영 「명」 소리나 영상 따위로 그 장면에 알맞은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실감이 나게 만든 만화. ¶OO는 최근 선보인 ‘웹

툰 효과 에디터'라는 저작 도구로 만들어진 웹툰을 '{효과툰'이라} 이름 붙였다. 《블로터 2015년 9월》 【2015년 6월 신어】 <2015년 빈도: 11>

히든 시티(<영>hidden city) 영_영 「구」 히든 시티 티케팅을 할 때,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실제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인 경유지를 이르는 말.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바로 '{히든 시티'입니다}. 《시선뉴스 2015년 8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9>

히든 시티 티케팅(<영>hidden city ticketing) 영_영_영 「구」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에 하차하지 않고 경유지에 하차함으로써 더 싼 값에 항공권을 구매하는 방법. 실제 목적지로 바로 가는 항공권보다 실제 목적지를 경유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항공권이 더 쌀 때 후자를 선택하여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은 편도 티켓에 한해서 실제 목적지로 가는 티켓을 구입하는 대신 실제 목적지를 경유지로 하는 좀 더 싼 티켓을 구입한 후 경유지에서 다음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 '{히든 시티 티케팅}' 전략으로 인터넷 항공 티켓 중개를 맡아 왔다. 《라디오코리아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9>

힘-희롱(힘戲弄) 고+한 [힘히롱] 「명」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 또는 그런 행위. 『{힘희롱을} 저지른 주체는 대부분 '높은 사람', '배운 사람'이었다. 《조선비즈 2015년 1월》 【2014년 12월 신어】 <2015년 빈도: 12>

힙-쩨이(<영>←hiphop쩨이) 영+고 「명」 힙합을 하며 지질하게 못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힙합 음악에 맞춰 그루브를 타는 모습을 보니, 13년 차 {힙쩨이의} 가슴 속에 이내 뿌듯함이 밀려온다. 《시사인라이브 2014년 10월》 【2014년 10월 신어】 <2015년 빈도: 4>

Ⅱ. 2005 · 2006년 신어 사용 추이 조사

2005·2006년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

1.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목적

해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들의 수집과 정리’라는 주요 과업과는 별도로 신어와 관련된 쟁점 중 하나는 해마다 수집되는 신어가 어떤 사용 추이를 보이고 있느냐이다. 매년 300~500여 개 정도로 수집되는 신어가 모두 동등한 중요도와 가치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된 신어의 얼마만큼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신어를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할 것인가 등은 현재의 신어 조사와는 별개인 통시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한국어에서 신어의 사용 추이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빈도와 분포를 분석한 시도는 본 사업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본 사업에서는 2005년과 2006년에 조사된 신어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여 년간의 사용 추이를 조사하고, 개별 항목들의 사용 추이의 유형을 공통적인 경향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5·2006년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개요>

- ㄱ. 조사 대상 신어: 2005년 신어(408개), 2006년 신어(530개)
- ㄴ. 사용 추이 조사의 대상 기간: 조사 당해 연도(2005년, 2006년)~현재
(2015년 6월 기준)
- ㄷ. 사용 추이 조사의 대상 매체: 160개 내외의 언론 매체

2.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본 사업에서는 2005년, 2006년에 수집된 신어 목록을 기반으로 웹 크롤링 말뭉치를 구축하고, 개별 항목의 동형어, 띄어쓰기 등의 변이를 고려한 재분석의 과정을 거쳐 신어의 사용 추이를 분석하였다.

- (1) ㄱ. 1차 조사 대상: 2005년 신어(408개), 2006년 신어(530개)
 ㄴ. 2차 조사 대상: 2005년 신어(403개), 2006년 신어(515개)
- (2) 사용 추이 조사의 범위: 조사 당해 연도(2005년, 2006년)~현재(2015년 6월 기준)
- (3) 조사 방법 및 절차
 - ㄱ. 938개 신어 각각에 대한 검색 결과에 대한 웹 크롤링
 - 일치 연산자(“”) 사용, 같은 웹 주소로 연결된 기사는 하나만을 수집
 - ㄴ. 동형어 및 부분 형태 일치어 재분석
 - ㄷ. 연도별 빈도 산출

(1ㄱ)의 1차 조사 대상은 2005년에 조사된 신어 408개, 2006년에 조사된 신어 530개로, 총 938개의 신어 항목으로 구성된다. (1ㄴ)의 2차 조사 대상은 1차 조사 대상 중에서 2015년 현재(6월 기준) 웹상에서 용례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대상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는 신어들로, 본 조사의 실제적인 조사 대상이 된다. (1ㄴ)은 (1ㄱ)의 938개 신어에서 동형어 변별 등 현실적으로 사용 추이 분석이 불가능한 신어 20개를 제외한 918개이다. 2005·2006 신어 사용 추이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우선 2005·2006년 신어 총 938개 각각에 대한 검색 결과를 웹 크롤링하여 말뭉치로 구축했다. 웹 크롤링의 대상이 된 자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카테고리 내 [언론사 뉴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160개 내외의 언론 매체이다.

- (4) 네이버 뉴스 웹 크롤링 말뭉치의 구성(2015년 6월 기준)

강원일보, 게임메카, 경향신문, 골닷컴, 골프다이제스트, 국민일보, 기자협회보, 김형준 칼럼, 내셔널리그, 내일신문, 네이버 TV연예, 네이버스포츠, 넥센 히어로즈, 노컷뉴스, 뉴스1, 뉴스엔, 뉴시스,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데일리스포츠, 데일리안, 동아일보, 디스이즈게임, 디스패치, 디지털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레이디경향, 로드FC, 로이터, 롯데자이언츠, 루키, 마니아리포트, 마이데일리,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 매일신문, 머니위크, 머니투데이, 모비스피버스 뉴스, 몬스터집, 무비위크, 문화일보, 미디어오늘, 바스켓코리아, 박동희 칼

럽, 베스트일레븐, 부산아이파크, 부산일보, 블로터, 삼성 썬더스, 삼성화재 블루팡스, 서울경제, 서울신문, 서형욱 칼럼, 서호정 칼럼, 성호준 칼럼, 세계일보, 소년한국일보, 손대범 칼럼, 송산의 돌직구, 수원삼성, 스타뉴스,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타임스, 스포츠한국, 스포탈코리아, 스포티비뉴스, 시사IN LIVE, 신동아, 신화사 연합뉴스, 씨네21, 아시아경제, 아이뉴스24, 아이즈 ize, 앳스타일, 야구친구, 야큐 리포트, 엑스포츠뉴스, 엠파이트, 여성신문,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염용근칼럼, 오리온스 뉴스, 오마이뉴스, 울산현대, 월간 산, 이덕규 칼럼, 이데일리, 이영미 칼럼, 이창섭 칼럼, 이코노미스트, 인벤, 인천유나이티드, 인터풋볼, 일간스포츠, 일다, 재해재난속보, 전북현대, 전자신문, 점프볼, 조석 카툰, 조선비즈, 조선일보, 조세일보, 조이뉴스24,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중앙SUNDAY, 중앙일보, 참세상, 채널A, 축구전문가 박문성,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코메디닷컴, 쿠키뉴스, 테니스코리아, 텐아시아, 티브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팝뉴스, 포모스, 포포투, 포항스틸러스, 풋볼리스트, 프레시안, 프로농구연맹, 하키뉴스 코리아, 한겨레, 한겨레21, 한경비즈니스, 한국경제,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헬스조선, AP연합뉴스, EPA연합뉴스, JTBC TV, KBS TV, MBC TV, MBN, MBN, rksgksrnr주, SBS, SBS CNBC, SBS CNBC TV, SBS TV, TV조선, YTN, YTN TV, ZDNet Korea

다음으로, 사용 추이의 조사를 위한 빈도 분석에서 동형어의 가능성이 있는 예들에 대해서는 규칙을 주거나 수작업을 통해 정제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주로 용례가 너무 많아 동형어 변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즉 ‘롤링, 디비’ 등 2음절 신어나 ‘슈퍼선데이, 파랑새’와 같은 동형어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사용 추이 조사에서 배제된 신어는 2005년 신어 중 5개, 2006년 신어 중 15개로 전체 938개 중 20개에 해당한다. 조사에서 배제된 신어의 구체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5) 사용 추이 조사에서 배제된 신어

- ㄱ. 2005년 신어: 미자, 빅맨, 새들이, 수법범죄, 시큐
- ㄴ. 2006년 신어: 갈비, 대출, 디비, 롤링, 맞대결, 슈퍼선데이, 엿보기, 유테크, 잇걸, 작렬, 코메리카, 특공, 특공대, 파랑새, 핑크파워

마지막으로 빈도 계산의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다동이 가족’이나 ‘사건 집중 검토제’와 같은 구 단위 신어의 계산에서 띄어쓰기가 선택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띄어쓰기가 수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규칙을 통해 계수하였다.

3. 2005 · 2006년 신어의 사용 추이 분석

3.1. 임시어로서의 신어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의 구분

2장에서 제시한 분석 절차에 따라 2005·2006년 신어의 연도별 사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연도별 빈도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2005년, 2006년도 신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신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	조술합론	0	0	0	0	0	1655	1191	88	10	10	4	19	5	2	1	16	3001
2	스물물리스	10	1	0	0	0	1100	127	100	141	28	66	176	738	244	71	49	2851
3	소버자피해주의보	0	0	0	0	0	153	194	213	32	202	212	443	434	297	287	227	2694
4	다동이가족	0	0	0	0	0	83	125	67	104	545	322	220	146	150	267	256	2285
5	열한류	0	0	0	0	0	342	242	86	147	138	110	260	419	112	151	66	2073
6	좁마물라	0	0	0	0	0	98	135	41	450	433	290	131	59	40	74	158	1909
7	탈기중	0	0	0	0	0	63	53	142	103	31	134	117	202	347	391	165	1748
8	개동녀	0	0	0	0	0	665	375	122	99	62	88	51	76	38	19	20	1615
9	공시족	0	0	0	0	0	41	45	130	314	135	86	44	41	132	139	85	1192
10	세금복탄론	0	0	0	0	0	38	123	43	31	4	5	99	30	216	12	323	924
11	육아데이	0	0	0	0	0	115	432	239	18	30	10	7	4	4	9	0	868
12	수투위	0	0	0	0	0	771	14	0	0	0	0	0	0	0	0	0	785
13	남김치	0	0	0	0	0	661	17	4	11	1	3	0	1	0	2	0	700
14	위버해수열	0	0	0	0	0	193	151	46	17	81	23	83	10	47	21	3	675
15	추모족	0	0	0	0	0	30	66	47	28	189	47	66	28	7	55	12	575
16	덜녀	0	0	0	0	0	456	91	21	3	2	0	0	0	0	0	0	573
17	안심학시	0	0	0	0	0	29	43	22	5	41	28	74	31	118	146	35	572
18	기상중김치	0	0	0	0	0	414	49	11	41	8	6	1	5	4	3	0	542
19	생활경제고통지수	0	0	0	0	0	137	14	165	137	44	27	8	0	0	0	0	532
20	비화본	0	0	0	22	2	411	3	0	0	1	0	0	4	1	26	0	470

<그림 1> 2005년 신어의 사용 빈도_고빈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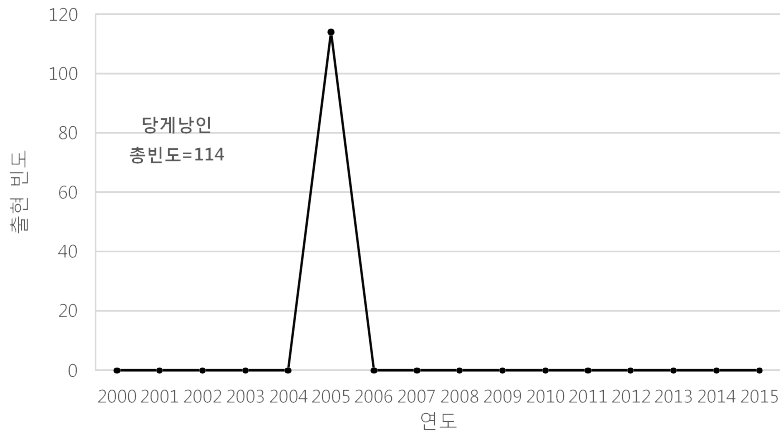
순위	신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	종남	0	0	41	26	76	18	333	820	2562	2828	2848	3161	3712	4560	3583	3121	27689
2	골드미스	0	0	0	0	0	0	45	1188	2412	5303	4416	1770	1443	2158	3781	736	23252
3	프리허그	0	0	0	0	0	0	236	1043	407	322	681	670	1614	10064	6072	2140	23249
4	버블세븐	0	0	0	0	1	1	3726	3224	4349	3641	1575	589	1513	836	743	374	20572
5	기프트콘	0	0	0	0	0	0	59	354	626	1312	1929	1455	2638	2662	2134	2172	15341
6	반강아프	0	0	0	0	6	6	3816	5189	1028	940	357	785	342	187	124	117	12897
7	아이돌보미	0	0	0	0	0	0	167	556	830	1948	1153	819	665	1299	1206	297	8940
8	똥장녀	0	0	0	0	0	0	1705	703	634	356	917	811	1241	1055	702	328	8452
9	뽕알	0	0	0	0	0	0	1081	1190	959	625	745	764	533	609	868	761	8135
10	종녀	0	0	0	0	0	0	14	76	86	65	217	611	939	2434	1953	869	7264
11	성동성	10	61	44	62	105	54	1400	984	1614	695	366	420	302	281	415	135	6948
12	방소년	0	0	0	0	0	1	1909	1232	432	238	80	45	12	61	179	604	4793
13	손수재작물	0	0	0	0	0	0	216	1795	724	544	248	101	118	79	107	53	3985
14	완소남	0	0	0	0	0	0	57	1563	657	419	240	173	140	87	171	83	3590
15	꼭지점단스	0	0	0	0	0	0	2222	68	58	51	34	12	45	412	150	57	3109
16	얼뜨녀	0	0	0	0	0	0	240	35	140	161	1196	112	58	86	284	16	2328
17	엑소	0	0	0	0	0	0	86	104	130	172	339	218	458	316	226	116	2165
18	황금당지피	0	0	0	0	0	0	280	415	47	34	42	82	21	71	1129	40	2161
19	농민사관학교	0	0	0	0	0	0	41	64	135	174	315	221	387	221	305	159	2022

<그림 2> 2006년 신어의 사용 빈도_고빈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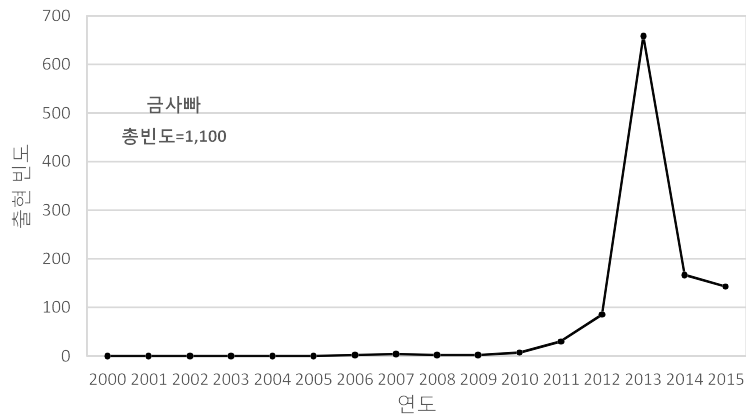
일부 신어의 경우 조사 당해 연도에 앞서 사용된 경우(위 ‘훈남’과 ‘생동성’)도 있었는데, 이는 2005·2006년 신어 조사 사업에서 사용된 제한된 양의 말뭉치와 본 분석 대상에서 사용한 웹 크롤링 말뭉치의 범위와 양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 신어의 10여 년 동안의 빈도를 분석했을 때 특징적인 사실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약 10년 동안의 총빈도와 연도별 빈도는 비례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총빈도로서 고빈도가 연도별 고빈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5년과 2006년 신어 중에서 각각 3001회와 27689회의 빈도를 보이며 각각 1위를 차지한 ‘초슬림폰’, ‘훈남’은 각각 사용 빈도에 있어서 하강곡선과 상승곡선을 이루어 대비를 이루는 등 다양한 사용주기를 보이며, 2005년 신어의 총빈도 순위 12위, 19위의 ‘수투위’(785회), ‘생활 경제 고통 지수’(532회)는 각각 최근 8년 간, 최근 4년 간 단 1회도 검색되지 않았다.

둘째, 신어 조사의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는 단 1회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분석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해당 조사 연도에 한두 번 출현하여 일시적으로만 쓰였지만, ‘당게 낭인’(2005년, 114회), ‘파일보기폰’(2005년, 81회) ‘황제 공천’(2006년 17회), ‘망치녀’(2006년, 22회)와 같이 해당 연도에 10회 이상 쓰이다가 다음 해부터 아예 사라진 예들도 있다. 해당 연도에만 쓰인 신어의 특성은 주로 일시적 사건이나 현상 등을 가리키거나 일시적 유행어로 쓰이다가 생명력을 상실한 경우이다. 반면에 볼매(2006년, 4회), 금사빠(2006년, 2회), 재능봉사(2006년, 2회)는 해당 연도에는 5회 이하의 빈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 간 사용빈도가 급상승하여, 총 1,000회 넘는 고빈도로 나타나 총빈도로 30위 권 내에 들었다.



<그림 3> ‘당게 낭인’의 사용 추이



<그림 4> ‘금사빠’의 사용 추이

이러한 현상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해당 연도의 빈도가 신어의 생산성, 신어 사용의 지속성 여부를 결코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어의 생명주기와 관련하여, 신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데에는 해당 신어의 빈도, 형태의 생산성, 표기 형태의 안정성 등과 같은 언어 내적 요인 외에도 언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듯하다. 따라서 신어의 신어 사용 추이의 예측이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 내적 요인과 더불어 언어 외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어의 정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빈도’의 기준은 총빈도뿐만 아니라 연도별 분포 역시 별개의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신어가 하나의 어휘로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빈도 이상으로 사용되어 생명력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신어의 어휘 정착의 기준 가운데 ‘빈도’의 기준은 현재의 지속적인 사용을 전제한 빈도여야 하므로, 일시적인 사용 이후 사멸되지 않았고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조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의 ‘총빈도’뿐만 아니라 ‘연도별 사용 분포’, 그리고 빈도가 높더라도 제한된 텍스트에서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사 건수’의 기준을 마련하여, 1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신어들로 한정하여 그 구체적인 사용 추이의 양상을 살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6)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의 판별 기준

- ㄱ. 총빈도: 20회 이상 출현
- ㄴ. 기사 건수: 10건 이상의 기사에 출현
- ㄷ. 연도별 분포: 5개 연도 이상에 분포

(6)의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와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를 대상으로 4장에서 사용 추이에 따라 세부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조사 대상 전체 신어 918개 유형 가운데 (7)에서 제시한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의 유형이 664개 유형으로 약 72%에 달한다. 연도별로 조사되는 신어의 2/3 가량이 조사 시기를 전후로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소멸되는 임시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7) ㄱ. 2005년 신어 중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총 295개, 가나다순)

가상체험폰, 가운데머리, 가육류, 가족나들이족, 갯난로, 강남아줌마론, 건강중독증, 건테크, 걸기돈, 검경언, 검력, 게임머니깡, 결혼주례업, 경로도우미, 경

완탈대, 경쟁특별시, 경제다걸기론, 고래버거, 고시파식배팅법, 고층빌딩족, 곡학아통, 골뱅이족, 골프폰, 곰형투자자, 공시족병, 공작병, 정책대화, 공포행상인, 관고민저, 관광조깅, 관민비, 관작지상주의, 괴물쌀, 괴음진시, 교육이기주의, 교직낭인, 구석방폐인족, 국가자폐증, 권방, 귀때기, 귀족빈대, 그린주차제, 그림족, 그물마킹, 그물친구, 금속증, 기궤병, 기억사, 기적둥이, 길떡거리, 김치도시락족, 꽃장, 나무장, 낚시걸이, 냉트릭, 녹차만능론, 녹차카폐족, 누크콩, 늑장주의보, 늦발기, 다두화, 다모음, 다중커피, 당계낭인, 대기벨트, 대리배달제, 대중명곡, 땃말, 똥녀, 데스크디네이터, 도끼피칭, 도심호텔휴양족, 독생자녀동거족, 동창회증후군, 돼지떼형투자자, 뒤집음말, 등산로족, 땅배, 떡밥글, 떨남, 라이스캔디, 랙티브즘, 리필족, 말짱족, 매미춤, 맵시가꿈이, 먹짱, 먹토, 모맹, 모자이크족, 모협불이, 목청맨, 몰래뽕, 몰상남, 몸보신족, 무지개꿀, 문화괴서족, 물결자막, 물벨트, 미끼정치, 미니갈비집, 바쁨공화국, 박단주, 반도칭, 반풍쟁이, 발열웃, 발열친, 밥터디족, 범심, 법령사전상담제도, 법원선의주의, 벼랑굴, 벽비, 변화맹, 보신집착증, 복회하다, 봉활, 부비댄스족, 부과라치, 불독불타, 불여일착, 빈비부락, 사과피로증후군, 사발효과, 사순이, 사이버폭력죄, 산모택시, 살해견, 삼순체, 새싹비누, 색깔병, 생똥녀, 생리휴강제, 서울시파라치, 석방심사제도, 선택맹, 성숙통, 세다이어트, 세라믹두드락, 세라믹침, 세비정치, 세탁바, 셀카폰, 셀프작명소, 소비자기쁨지수, 속수무동, 속식, 송아지바람, 쇼핑폰, 수도지키키투쟁위원회, 수랭법, 수투위, 순대렐라, 송김통일꾼, 송김파, 스노족, 스펙족, 스포츠카폰, 스포남, 스포녀, 스포매니저, 스포카페, 시혼족, 신기러기족, 신잔혹주의, 신토불이증, 신평편문화, 실버택시, 실파라치, 싱커족, 쌀캔디, 씹지무선망, 아들당, 악플폐인, 안개문서, 안돼공화국, 안방편드, 안티화이트데이족, 알뜰문자족, 알뜰점심족, 애견산책사, 애견산책업, 애견통역기, 애미파, 애인국가, 야식증, 얄체쓰레기여행족, 어중치기, 에고서프, 에고서핑, 에너지집착증, 엘파라치, 연속빵경기, 열탕현상, 영퇴족, 영품족, 영화해살꾼, 오락실빨리, 오블로모프병, 오일테크, 온진품, 올빼미헬스족, 우리나라리즘, 우박혼, 우승지킴이, 운동편식, 응글응글, 월광병, 유라시아니즘, 유민착소, 육한일온, 윤반병, 은족병, 의생자, 이별대행업, 인뽕, 인텔리데이팅, 일석양득, 임종봉사자, 입남시키다, 자부엄모, 장롱모피, 전봇대춤, 점심시간족, 정거장족, 정랭, 제단시, 조산조해, 주경조독, 주차장대학, 주치점, 중고폰족, 즈엄집, 지르가슴, 지아르티, 지파라치, 직립견, 직테크족, 집광형조리기, 집권삼년차증후군, 집필족, 짹별남, 채어육, 청계천조깅족, 청계천족, 청취견, 체인지족, 체테크, 초미니폰, 초혼, 최상위연맹, 추접남, 출산기피족, 칠한이온, 카테크, 칼통제, 캔들족, 캡처꾼, 케이티엑스부부, 케이티엑

스통근족, 코레니즘, 콘트라섹슈얼족, 쿠폰깡, 클린타임제도, 탈강남러시, 태평방송, 토마피, 톱플스테이, 투괴, 틈새폰, 파일보기폰, 펼칠남, 평양둥이, 평일부부, 폐출수, 표준웃차림, 품재기, 풍선치료법, 프로기즘, 하이퍼리치, 학대사관, 한계정신, 한일동주, 허무형휴학생, 허무휴학, 현대이즘, 협한류, 혼검, 화채주, 환경덜두리, 황소형투자자, 회색자금, 휴근명령제, 휴대누리망, 휴먼인디케이터

ㄴ. 2006년 신어 중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총 369개, 가나다순)

가족하숙, 가족하숙족, 각색실화, 감동되살이, 강남명품론, 개풍녀, 건강산업지수, 검찰신고보상금제도, 검토실명제, 껌파라치, 계층균형선발제도, 계획심리제도, 고추장녀, 고추장아저씨, 골문어림차기, 공인베이비시터제, 교수퇴출제, 교식주, 교차공제, 구글스토킹, 국빠, 국악퀴터제, 그린계약서, 금실체조, 금융암체족, 금짜식, 기술병학점은행제, 까까족, 껄껄족, 꽃띠문학, 나노콘칩, 나무박기, 나이역할놀이, 낙서화풍, 낚시등록증, 날씬족, 너크포크볼, 네스트리언, 네오텍스트, 노노가족, 노모어영클족, 노새로봇, 노신흔, 노웨이트트랜짓, 노인수발보험법, 노화기피증, 논영수, 뉴마초이즘, 다큐지킬, 단가치기, 단품슬라이드제도, 닭장숍, 대사관녀, 대중참여제도, 댄스퀸, 댕파라치, 더블스탠딩, 데모장, 독서채팅, 독수리족, 돌옴연주, 동물음성번역시스템, 동안병, 똘장아줌마, 디사이즈숍, 디큐스립다, 따라들기, 판죽문화, 떠돌이족, 라오싼제세대, 런치쌍꺼풀, 레즈비언맘, 렉족, 롤링업, 리워드사이트, 만액연금자, 맛글, 망치녀, 매관매직게이트, 머릿결영양제, 머슴남, 머슴행정, 머짱, 먼지오염지도, 멀피, 메링시스템, 명파라치, 모바일홈리스, 모슬렘공포증, 무대할당제, 무지개매너, 무한폭격기족, 문신중독증, 문턱증후군, 물결준법, 믹스테입섹슈얼, 민격, 바다게이트, 바이탈섹슈얼맨, 반노이즘, 반짝공원, 발문화체험, 발테크, 밤스터디족, 밤터족, 방따, 배꼽내시경, 배틀빙, 백쭈녀, 버징컴, 보떼슈머, 보산분리, 보조출판, 보험왕따, 복분자수박, 봉투같이, 봉투잠금, 부츠족, 부향쇼, 불빛우산, 불편쥐, 블랙슬림룩, 비비탄치기, 비비탄꼭치기, 비빔밥펀드, 비온드보디족, 빌랜스로피, 뽕뽕데이, 뽕차, 사건적시처리제도, 사이버저스티스, 산책승마, 삼차일반, 상경투기족, 상조망, 새누리촌, 생스, 생애독신룰, 생애독신자, 생체입국감시시스템, 생태부동산, 생활형중독, 섹셋요금제, 성인지적공과교육시스템, 세colari즘, 세대쥐, 소리독자, 소리사냥법, 속여들기, 손바닥족, 손수갑기, 수면전진증후군, 수상스포츠족, 수집강박증, 수깅, 수퍼댓글족, 순간족, 숨결정치, 쉼터근로자, 스마트스폰, 스쿨세이프티엔젤, 스크린댐, 스키텔, 스피센, 슬렌더요가, 시간제근로전환청구제도, 시라코포비아, 시청녀, 식생명, 신로고주의, 실버머니, 실버스타넷, 실속파족, 싫증기간, 심기경호꾼,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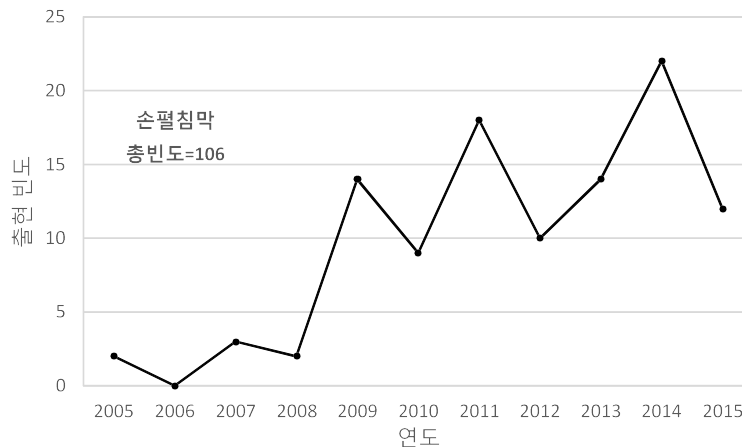
토머, 싹겉살, 싹장남, 쓰레기땃글, 아르빌증후군, 아이디송, 아이업개, 악성샷,
 안구웰빙, 안티테크족, 앞금, 애걸복걸족, 애서광증, 애프터유족, 애플댄스, 애
 플족, 양끄, 양파라치, 양파쌀, 어울참, 어줍남, 어천아배, 얼굴맹, 엑스트라매
 니저, 엑스편족, 엠앤드에프편드족, 여성전용콜제도, 연예고시생, 연휴심장증
 후군, 연휴체증증가증후군, 열과특보, 열활, 염전투어, 영혼마케팅, 오분대기
 녀, 온돌족, 완전연공제, 외동맘, 외톨족, 우주방사선방호기능식품, 우주인배
 출사업단, 운동과잉증후군, 울트라땃글족, 위크스쿨, 원격조문시스템, 윈맨파
 티시스템, 윈타임스탠드, 윈트세대, 월드컵아르바이트, 월드컵응원증후군, 웰
 시족, 웰시피프티, 위키피디아홀리즘, 윈도미디어포토, 윈터발, 음성생성바코드,
 이별에이전시, 이자테크, 이주피로감, 인턴비자제도, 인포러스트, 일교일촌운
 동, 일부확정등록제, 임대료쿠폰, 입삭, 자동거리조절시스템, 자연액자, 자외
 선체크카드, 자위봉, 자이타민, 자캐, 잠전들기, 잠타들기, 잡딜, 장마스트레스,
 장이족, 재가바우처, 저기녀, 저아밀로오스쌀, 저알레르겐쌀, 저잔삼, 적층곡
 목기법, 전문가그룹폴제, 전문놀이도우미, 전의경실명제, 전자명찰제도, 전자
 여행카드, 전장스트레스증후군, 전장증후군, 전파라치, 정보빼내기프로그램,
 정치임용제, 정크픽션, 제사도우미, 제품이력관리시스템, 켄병족, 족보사기,
 족보사기법, 좌우대칭놀이, 주머니차, 주정차위반족, 줌마로그, 중매마케팅,
 즉퇴, 지각출산, 지역순번제, 지역혁신지수, 지위비, 집피방, 짝수효과, 짬짜미
 파라치, 짬파라치, 쪽바지, 쪽방텔, 쪽좌석, 차등보증제도, 차박기, 차숙, 창업
 트랙제도, 책임수사관서제, 책처방, 처가살이족, 척추월요병, 청비홍, 청춘족,
 체단금제도, 체제쇼핑시대, 체조택, 체중공포증, 초경증후군, 초고속족, 최고
 할인보호제도, 치어저널리즘, 치우녀, 치즈포딩, 친이민법, 캔디코드, 캔서레
 트, 캡슐모자, 커리어맘, 커플자판기, 김친세대, 케세라세라족, 킥백형, 키티족,
 테마팅, 텔레클로닝, 토플권, 통합광고제, 투글족, 특임관리관, 텀팅테스트, 파
 더콘, 파업코드, 팩농산물, 펀토피아, 페어런츠, 펭귄족, 펴미, 포맷문화, 포토
 러킹, 폴리티켓, 푸드쿠폰제, 프리캐리아트, 프티어덜트, 플래시토피아, 피규
 어체조, 피시시, 핀셋예보, 하비홀릭, 학숙사, 한방특성화고교, 한입털이, 핵맹,
 헛소문족, 헬기부모, 헬기키즈, 헬리콥터키즈, 홈스파족, 화이트가운증후군,
 환경교육의무제, 환경오게, 환승족, 환애통, 황제공천, 황제보증반, 후견교사
 제, 후이즘, 훈련계좌카드, 휴대전화스왑트랩시스템, 휴대폰음성보안서비스,
 호느낌족, 흡연경보기, 흉돋움이

3.2.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의 사용 추이

2차 조사 대상 가운데 (6)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를 제외한 2005년 신어 108개와, 2006년 신어 146개를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254개의 신어 목록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5년 6월에 이르기까지의 사용 추이에 따라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등으로 하위 구분한다.

1)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좌저우고형의 빈도 추이로 나타나는 신어들을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 ‘손떨침막’의 출현 빈도 추이

최초 출현일을 전후하여 상대적으로 저빈도로 나타나던 신어들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유형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 신어 가운데 77개의 항목이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그 목록을 제시하면 (8)과 같다.

(8) ㄱ. 2005년 신어 중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총 29개,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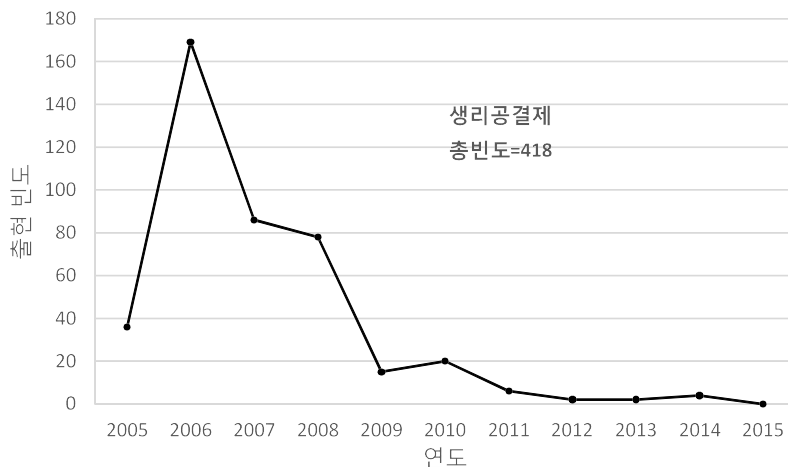
경찰률, 고고익선, 공시족, 공시촌, 낚시글, 다둥이가족, 달팽이족, 먹사, 무꺼풀, 바다장, 밥터디, 부비부비춤, 빙면, 빗가림, 세금폭탄론, 소비자피해주의보, 손필침막, 수불사업, 안심택시, 알파메일, 오삼데이, 젓가락데이, 줌마렐라, 차치지칭, 취뽕, 털기춤, 토피스, 헌집증후군, 홍색여행

ㄴ. 2006년 신어 중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총 48개, 가나다순)

골드미스터, 금사빠, 금연순찰대, 기부마라톤, 기프트콘, 노무족, 농민사관학교, 뉴럴네트워크, 달리미, 대포아이디, 댓글마케팅, 더위주의보, 동물조련이벤트과, 동안성형수술, 된장남, 뒷금, 머스트시, 볼매, 선택요일제, 실버마크, 썰얼, 썩소, 아나테이너, 아이돌보미, 안습, 어포더블럭서리, 에코맘, 오감브랜딩, 오크녀, 자립홈, 자출, 장면갈무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능봉사, 주택바우처제도, 지식콘서트, 지역약물감시센터, 척추피로증후군, 츄릅, 커플개그, 클린로드, 폭염대피소, 푸터니즘, 프리허그, 한글패션, 헬리콥터부모, 훈남, 훈녀

2)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둘째로 아래 그림과 같이 좌고우저형의 빈도 추이로 나타나는 신어들을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6> ‘생리공결제’의 출현 빈도 추이

최초 출현일을 전후하여 상대적으로 고빈도로 나타나던 신어들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유형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 신어 가운데 111개의 항목이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그 목록을 제시하면 (9)와 같다.

(9) ㄱ. 2005년 신어 중 감소 추이를 보이는 신어(총 51개, 가나다순)

개똥녀, 건달정부, 계획휴가제, 고성불패, 금융고시, 기생충김치, 깔때기홀, 남김치, 네카시즘, 대학동지족, 드레스카페, 디지털코쿤족, 떨기춤, 떨녀, 뭉디커플, 마술병, 맨주먹정신, 면창족, 물래제보꾼, 문화부족, 불봉, 불임휴직, 불임휴직제, 사건집중검토제, 생리공결제, 생활경제고통지수, 생활스터디, 석유조기경보지수, 수립장, 스쿨폴리스, 실버뮤지컬, 애국베티, 위버섹슈얼, 유포터, 육아데이, 지행장, 직테크, 초슬립폰, 추모목, 추어데이, 트로트학과, 파빙지려, 파파데이, 포스트디지털세대, 편홀요법, 향한류, 험한류, 협약학과, 홀로주연, 흥가포르, 황빠

ㄴ. 2006년 신어 중 감소 추이를 보이는 신어(총 60개, 가나다순)

가족목, 고추장남, 골드미스, 귀족녀, 그린슈머,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금연치약, 껌기번호관, 나우족, 노래텔, 누드항공기, 된장녀, 마이크로포레이터, 맨슈머, 땃돌춤, 명인강좌, 모범납세자카드, 반값아파트, 버블세븐, 보건기상지수, 비행척추피로증후군, 새로마지플랜, 새싹플랜, 생동성, 셀디, 손수제작물, 수면부위마취, 시장학교, 쌍춘년, 에듀시티, 엘프녀, 연량감, 영파라치, 온누리안, 와인트레인, 완소남, 완소녀, 왕남폐인, 외모지수, 워드신드롬, 유시시, 유티프로젝트, 육아휴직할당제, 이모부대, 이중배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장수축하수당, 적토미, 참공약선택하기, 체어마사지, 칩릿, 코스피의개, 쿨링센터, 크로스섹슈얼, 키터맘, 트윈슈머, 파파쿼터제, 프라브족, 프로추어, 흔들녀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의 유형들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신어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사용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소멸의 징후를 보이는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임시어 후보군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 다만, 아래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동성’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빈도의 출현을 보이는 신어들의 경우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세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최저 200회 이상의 빈도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¹⁾. 증가형 추이를

1) 2015년의 출현 빈도는 135회에 머무르지만, 이는 2015년 6월 현재까지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100회 미만의 출현을 보이는 신어에 비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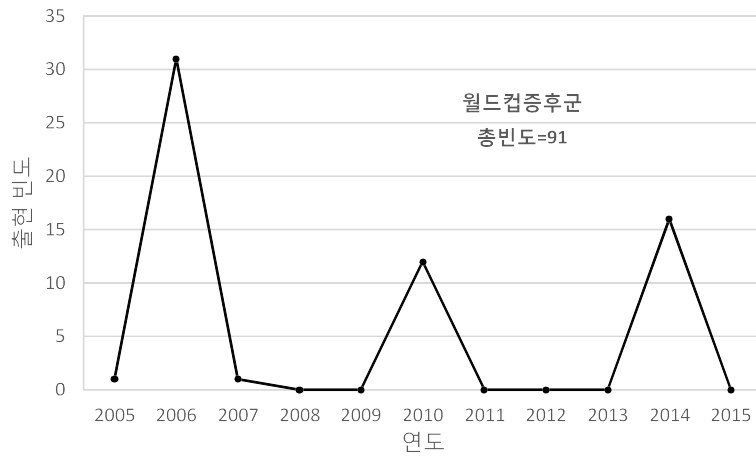


<그림 7> ‘생동성’의 출현 빈도 추이

3)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마지막 유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증가와 감소가 교차되는 패턴을 일정 기간 사이에 되풀이하는 추이를 나타내는 신어들을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구분할 수 있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0회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월드컵중후군’의 출현 빈도 추이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들은 대체로 <그림 8>과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증가와 감소 패턴이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파동의 모양과 같이 극단적으로 되풀이되는데, ‘월드컵중후군’, ‘꼭짓점댄스’ 등과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사건과 관련된 어휘들이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며, ‘비만소대’, ‘김치지수’ 등과 같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비정기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어휘들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10) ㄱ. 2005년 신어 중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총 28개, 가나다순)

고공족, 광부병, 김치지수, 껌치기, 노풍당당, 맛깔장, 바텐더로봇, 배터리족, 부비댄스, 비화폰, 소변인, 손배개, 수중뮤지컬, 신파라치, 쌀파라치, 어울모임, 에스컬레이터족, 에어로바틱, 역계절진폭, 월급고개, 자백감형제도, 자활꿈터, 잔토희물, 장원방, 젓가락의날, 추어탕데이, 캐변기, 트웍스터

ㄴ. 2006년 신어 중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총 38개, 가나다순)

가위치기, 공중의견제출제도, 군복무크레디트, 귀족소금, 그린택시, 꼭짓점댄스, 나옴이족, 녹토미, 모녀마케팅, 뮤직스타일리스트, 미드족, 비만소대, 비싱, 살조, 수그리족, 스포슈머, 시민거버넌스, 쌤장녀, 역기리기아빠, 연예고시, 월드컵중후군, 웨딩알바, 윈드쉬어, 인형체험방, 졸업세, 출국여부확인시스템, 톱건함, 틱타알릭, 팔팔데이, 뽕한류, 피부교감, 뽕비, 하늘섬터, 학교안전수호천사, 학교춘지근절법, 한방고, 한뽕바지, 황금돼지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의 사용 추이의 전체적인 추세와 출현 빈도의 절댓값을 통해 어휘적 안정성 획득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는 잠정적으로 어휘적 안정성을 획득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가운데 출현 빈도의 절댓값이 높은 유형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소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과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들은 어휘적 안정성 획득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기적인 사건과 관련된 유형의 경우 향후의 사용 추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4. 2005·2006년 신어의 사용 분야에 따른 특징

여기서는 2005·2006년 신어의 사용 분야를 분류하여 신어가 어떤 분야에서 자주 나타나고 사용되는지를 2005·2006년 전체 신어와 250여 개 생존 신어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특히 앞서 사용 추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신어의 사용 분야에 따른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약 10년 동안의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한국인의 관심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어의 사용 분야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신어 조사 사업에서 사용 분야는 주로 ‘전문어’에 한정되어 분석된 경향이 있고 전문어 외에 일반어의 경우는 신어의 사용 분야에 별도로 분석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5년과 2006년 신어 조사 당시에는 『표준』의 전문분야 체계를 활용하여 신어가 나타나는 ‘주제 영역’을 분류하였고, 그 대상을 전문어와 상당 부분의 일반어를 함께 포함하게 된다. 그 결과 특정 ‘주제 영역’으로 분류된 신어가 2005년 310개, 2006년 477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005년 신어 98개와 2006년 신어 53개는 특정 ‘주제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주제 영역의 분류는 전문어와 일반어를 나눈 분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도 분

류되지 않는 어휘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신어의 사용 분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사업팀에서는 신어를 대상으로 ‘전문어’와 ‘일반어’를 구분하는 것과 별도로, 모든 신어가 특정 사용 분야로 분류되어 사용 영역에 따른 신어 생성 주도 분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신어가 특정 사용 분야로 분류되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체 신어의 사용 분야 분류를 위해서는 제한된 전문어 분류 체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미 분류 체계가 필요한데, 앞서 2015년 일반어 신어의 분류에서도 이용한 국립국어원(2014)의 의미 범주 체계를 일부 수정·활용하였다.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인간	유형	사람의 종류, 신체 부위
	상태	체력 상태, 감각, 용모, 감정, 성격, 태도, 능력
	행위	신체 행위, 신체에 가하는 행위, 생리 현상, 인지 행위, 소리
삶	유형	친족, 가족 행사, 여가 도구, 여가 시설
	상태	삶의 상태, 병과 증상
	행위	삶의 행위, 일상 행위, 치료 행위, 여가 활동
식생활	유형	음식, 채소, 곡류, 과일, 음료, 식재료, 조리 도구, 식생활 관련 장소
	상태	맛
	행위	식사 및 조리 행위
의생활	유형	옷, 착용물, 의생활 관련 장소
	상태	의복 착용 상태
	행위	의복 착용, 미용 행위
주생활	유형	건물 종류, 주거 형태, 주거 지역, 가구, 가전제품, 일상용품, 주택 구성
	상태	주거 상태
	행위	주거 행위, 집안일
사회생활	유형	인간관계, 소통 수단, 교통수단, 교통 이용 장소, 매체, 직장, 직위, 직업, 사회 행사
	상태	사회생활 상태

	행위	사회생활 행위, 교통 이용 행위, 직장 생활, 언어 행위
경제 생활	유형	경제 행위 주체, 전공과 교과목, 교육기관, 학교 시설, 학습 관련 사물, 학문 용어
	상태	경제 상태
	행위	경제 행위
교육	유형	교수 학습 주체, 전공과 교과목, 교육기관, 학교 시설, 학습 관련 사물, 학문 용어
	상태	-
	행위	교수 학습 행위, 학문 행위
종교	유형	종교, 종교 장소, 종교인, 종교어, 종교 대상, 종교 사물
	상태	-
	행위	종교 행위
문화	유형	문화 활동 주체, 무형 문화, 유형 문화, 문화생활 장소
	상태	-
	행위	문화 활동
정치와 행정	유형	공공 기관, 사법 및 치안 주체, 무기
	상태	정치 치안 상태
	행위	정치 및 행정, 사법 치안
자연	유형	지형, 지표면 사물, 천체, 자원, 재해
	상태	기상 및 기후
	행위	-
동식물	유형	동물, 곤충, 식물, 동물의 부분, 식물의 부분
	상태	-
	행위	동식물 행위, 소리
개념	모양과 성질	모양, 성질, 속도
	빛과 색	밝기, 온도, 색깔
	수와 양	수, 세는 말, 양, 정도, 순서, 빈도
	시간과 위치	시간, 시간 단위, 위치 및 방향, 지역
	지시	지시, 접속, 의문, 인칭

통신 및 게임	통신	인터넷 활동, 휴대전화, 에스엔에스(SNS)
	게임	게임 활동, 게임 아이템

<표 1> 신어의 사용 분야 분류

위의 범주를 활용하여 2005년 신어 408개, 2006년 신어 530개를 분류하여 2005·2006년 신어의 등장 빈도가 높은 영역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2006년	합	비율(%)	누적 비율(%)
사회생활	164	182	346	36.89	36.89
정치와 행정	42	55	97	10.34	47.23
경제생활	34	57	91	9.70	56.93
삶	27	57	84	8.96	65.88
문화	29	37	66	7.04	72.92
통신 및 게임	25	34	59	6.29	79.21
인간	19	39	58	6.18	85.39
식생활	29	21	50	5.33	90.72

<표 2> 2005·2006년 신어의 사용 분야별 빈도

위 표를 보면 15개의 범주들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는 ‘사회생활, 정치와 행정, 경제생활, 삶, 문화, 통신 및 게임, 인간, 식생활’의 8개 분야에서 2005·2006년 신어의 약 90%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7개의 분야에서 10% 미만의 신어가 출현하고 있다. 각 사용 분야에서 나타난 신어의 대표적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2005년 신어

- ㄱ. 공시족, 룡디커플, 젓가락의날 (사회생활)
- ㄴ. 건달정부, 껌치기, 차치지칭 (정치와 행정)
- ㄷ. 경활률, 김치지수, 세금폭탄론 (경제생활)
- ㄹ. 문화부족, 부비부비춤, 수중뮤지컬 (문화)
- ㅁ. 기생충김치, 오삼데이, 추어탕데이 (식생활)
- ㅂ. 손베개, 핀홀요법, 헌집증후군 (삶)
- ㅅ. 낚시글, 네카시즘, 비화폰 (통신 및 게임)

- . 떨녀, 무꺼풀, 위버섹슈얼 (인간)
- (12) 2006년 신어
 - ㄱ.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핼비 (사회생활)
 - 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새로마지플랜, 시민거버넌스 (정치와 행정)
 - ㄷ. 반값아파트, 스포슈머, 주택바우처제도 (경제생활)
 - ㄹ. 꼭짓점댄스, 왕남폐인, 커플개그 (문화)
 - ㅁ. 기생충김치, 오삼데이, 추어탕데이 (식생활)
 - ㅂ. 생동성, 월드컵 증후군, 척추피로증후군 (삶)
 - ㅅ. 대포아이디, 순수제작물, 수그리죽 (통신 및 게임)
 - ㅇ. 썬얼, 엘프녀, 황금돼지띠 (인간)

한편, 앞서 조사 시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속적인 쓰임을 보이는 신어들을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와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지속적인 사용 추이를 보이는 신어 254개를 사용 분야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 분야	2005년	2006년	합	비율(%)	누적 비율(%)
사회생활	48	50	98	38.58	38.6
경제생활	9	19	28	11.02	49.6
정치와 행정	11	11	22	8.66	58.3
문화	11	8	19	7.48	65.7
인간	4	17	21	8.27	74.0
삶	6	12	18	7.09	81.1
식생활	8	4	12	4.72	85.8
통신 및 게임	5	7	12	4.72	90.6
교육	3	8	11	4.33	94.9
주생활	2	2	4	1.57	96.5
자연	0	4	4	1.57	98.0
동식물	1	2	3	1.18	99.2
의생활	0	2	2	0.79	100.0
합계	108	146	254	100	200

<표 3>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2006년 신어의 사용 분야별 빈도

위 표를 보면, 약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의 대략 80%에 해당하는 어휘가 ‘사회생활(98개), 경제생활(28개), 정치와 행정(22개), 문화(19개), 인간(21개), 삶(18개)’의 6개 사용 분야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바로 아래에 10개 이상의 유형이 나타나는 ‘식생활, 통신 및 게임, 교육’ 영역을 합칠 경우 전체 9개 사용 분야의 비중은 95% 가까이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 중에서 6개 사용 분야로 분류된 어휘를 대표적인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사용 분야	2005년	2006년
사회 생활	개똥녀, 계획휴가제, 고고익선, 고공족, 고성불패, 공시족, 금융고시, 노풍당당, 다등이가족, 달팽이족, 대학등지족, 롱디커플, 마술병, 맨주먹정신, 먹사, 먼창족, 몰래제보꾼, 바다장, 바텐더로봇, 밥터디, 배터리족, 불임휴직, 불임휴직제, 빗가림, 생활스터디, 손떨침막, 수립장, 신파라치, 쌀파라치, 안심택시, 어울모임, 역계절진폭, 육아데이, 자활꿈터, 젓가락데이, 젓가락의날, 줌마렐라, 직테크, 취뽕, 토피스, 트웝스터, 파파데이, 포스트디지털세대, 향한류, 험한류, 홍가포르, 홍색여행, 황빠	콜드미스, 콜드미스터, 귀족녀, 그린슈머, 그린택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금연순찰대, 금연치약, 기부마라톤, 꺾기번호판, 나옴족, 나우족, 노래텔, 노무족, 누드항공기, 뉴럴네트워크, 된장남, 된장녀, 미드족, 비만소대, 선택요일제, 썰디, 실버마크, 아나테이너, 아이돌보미, 에코맘, 역기리기아빠, 연예고시, 영파라치, 오크녀, 온누리안, 외모지수, 워드신드롬, 웨딩알바, 육아휴직할당제, 이모부대, 인형체험방, 자출, 장면갈무리, 장수축하수당, 재능봉사, 쿨링센터, 크로스섹슈얼, 클린로드, 파파쿼터제, 펴한류, 폭염대피소, 프로추어, 프리허그, 뽕비
경제 생활	경활률, 김치지수, 생활경제고통지수, 석유조기경보지수, 세금폭탄론, 소비자피해주의보, 애국배팅, 월급고개, 지행장	공중의견제출제도, 군복무크레디트, 댓글마케팅, 뒋금, 맨슈머, 모녀마케팅, 모범납세자카드, 반값아파트, 버블세븐, 스포슈머, 씹장녀, 어포더블럭서리, 오감브랜딩,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주택바우처제도, 출국여부확인시스템, 코스피의개, 트윈슈머, 프라브족
정치와 행정	건달정부, 껌치기, 불봉, 사건집중검토제, 생리공결제, 소변인, 수불사업, 스쿨폴리스, 자백감형제도, 차치지청, 파병지려	가위치기, 새로마지플랜, 새싹플랜, 시민거버넌스, 시장학교, 유턴프로젝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참공약선택하기, 톱견함, 푸티니즘, 학교춘지근절법
문화	드레스카페, 떨기춤, 문화부족, 부비댄스, 부비부비춤, 수중뮤지컬, 실버뮤지컬, 에어로바틱, 장원방, 털기춤, 홀로주연	꼭짓점댄스, 땃돌춤, 머스트시, 뮤직스타일리스트, 왕남폐인, 유시시, 칙릿, 커플개그
인간	떨녀, 무꺼풀, 알파메일, 위버	고추장남, 금사빠, 동안성형수

	섹슈얼	술, 볼매, 썬얼, 썬소, 안습, 엘 프너, 연량감, 완소남, 완소녀, 키티맘, 피부교감, 황금돼지띠, 훈남, 훈녀, 흔들녀
삶	광부병, 깔때기홀, 디지털코쿤 족, 손베개, 핀홀요법, 헌집증 후군	달리미, 비행착취피로증후군, 생동성, 수면부위마취, 쌍춘년, 와인트레인, 월드컵증후군, 이 중배아, 지역약물감시센터, 척 추피로증후군, 채어마사지, 헬리콥터부모

<표 4>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2006년 신어의 고빈도 사용 분야와 예

이상을 통해 2005·2006년 신어가 어떤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고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어는 그것이 생성되고 사용되는 분야에서 결코 균질적인 분포를 보이지 않으며 특정 분야 혹은 영역에 편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새로운 말의 출현이 새로운 제도나 현상, 범주 등을 지칭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어의 생성 분야와 생존 신어의 사용 분야의 분석은 언중의 관심사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를 제공한다. 더 많은 신어에 대한 장기적인 사용 추이의 분석과 사용 분야의 분석이 이러한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록〉

<부록1> 표제어 찾아보기

ㄱ			
개노답	84, 111	냥심	89, 116
개노잼	102, 111	냥집사	78, 116
개이득	64, 111	노이해	83, 116
개저씨	73, 111	노키즈 존	64, 117
걸크러시	80, 111	노푸	56, 117
겨터파크	71, 111	노푸족	69, 117
경포감	79, 112	놀죽	92, 117
고답이	92, 112	놈 코어 룩	56, 117
골목길 순례자	85, 112	뇌섹	58, 118
골반 깡패	70, 112	뇌섹 남녀	64, 118
곰맘	68, 112	뇌섹녀	55, 118
공간혼	92, 113	뇌섹인	76, 118
공감툰	94, 113	뇌섹 지수	102, 118
구타혼	94, 113	뉴 노멀 붐	86, 119
굿즈덕	102, 113	ㄴ	
궁예질	79, 114	다람쥐족	78, 119
귀염사	78, 114	단짠단짠	96, 119
그로서런트	85, 114	달관 세대	56, 119
길 과장	85, 114	담배 재테크	66, 120
길 국장	88, 114	당천 영화	102, 120
길끼빠빠	83, 115	덕무룩	64, 120
ㄴ		덕페이스	77, 120
나레기	99, 115	덩키 킥	89, 121
남혐	95, 115	등짐 들살이	60, 121
낫닝겐	73, 115	딘치족	67, 121
내로남불	96, 116	딤빡	92, 121
내적 댄스	86, 116	팔통법	65, 121
냥무룩	96, 116	땅콩 리턴	55, 122
		똥덕후	94, 122

ㄹ

래시 카드 룩	67, 122
래시 팬츠	95, 123
랜선 맘	66, 123
랜선 이모	77, 123
런피스너	99, 123
렌트 리치	92, 123
리너기스트	77, 124
리얼터 테크	96, 124
립쿼드	63, 124

ㄴ

만루 변태	96, 124
맛깁패	58, 125
맥세권	89, 125
맨스플레인	60, 125
머슬너	56, 125
메뚜기족	66, 125
메르스 불황	57, 126
메르스 폐기물	75, 126
메르스 피난민	84, 126
메신저 강박증	65, 126
메신저 증후군	56, 127
메신저 피로 증후군	68, 127
메이비족	89, 127
모루밍	70, 127
몽실	103, 127
문구덕	103, 128
문구부심	89, 128
문송	67, 128
문송하다	77, 128
물뽕	76, 128

밀프랩	86, 129
-----	---------

ㄷ

반퇴 세대	70, 129
반퇴 시대	59, 129
반퇴자	75, 129
반퇴 자산	86, 130
발 셀카	72, 130
배낭 도보 여행	63, 130
백수 오덕	103, 130
밴드 게이트	58, 130
뱅머신 측정법	77, 130
베이그부커	93, 131
베이그북	97, 131
복세편살	99, 131
본 네이처 가전	103, 131
부먹계	90, 131
블라팅	103, 132
블랙 컨테이너	104, 132
빙수 한류	97, 132

ㄸ

사바사	79, 132
사이다남	74, 133
사이다녀	69, 133
삼한 사미	70, 133
샐러리데이팅	75, 133
샹쥐	74, 133
서상커	71, 134
선배부심	99, 134
설명충	67, 134
성덕	104, 134

세이프슈머	76, 134
세젤귀	97, 134
센송	80, 135
셀고	86, 135
셀카 고자	75, 135
셀카 렌즈	58, 135
셀카 봉	55, 135
셀프기프팅족	79, 136
섬니	104, 136
세프테이너	57, 136
소취	104, 136
소품덕	104, 136
숲세권	57, 136
쉐깅스	87, 137
섬포족	62, 137
섬표 마케팅	100, 137
스웨그 룩	66, 137
스펙 캉패	67, 137
시맨틱 머신	97, 138
실물 캉패	72, 138
심멧 주의	80, 138
심장 폭행	65, 138
심쿵녀	72, 138
심쿵사	80, 139
심쿵 유발자	61, 139
심폭	93, 139
셀만화	75, 139
섬맥	95, 139
슬로몬	62, 140
썹덕사	97, 140



아웃플래킷	105, 140
-------	----------

안전 이별	83, 140
애슬레저 룩	59, 141
애정템	90, 141
앵까다	90, 141
야누스족	63, 141
어번 그래니	60, 141
어번 그래니족	87, 142
얼굴 몰아주기	59, 142
얼빠몸빠	105, 142
엄지맘	60, 142
엉덩이턱	90, 142
엔분의 일 잡	87, 143
엔터타이징	100, 143
여덕몰이	74, 143
여자여자	69, 143
여자여자하다	81, 143
여혐	70, 144
여혐혐	93, 144
연애고자	62, 144
연애썰	73, 144
연필 거지	62, 144
온라인 카니발라이제이션	144
완피	98, 145
왕면봉	60, 145
외발 전동 휠	69, 145
외발형 전동 스쿠터	90, 145
요리사노바	91, 145
요섹남	57, 145
욕밍아웃	105, 146
욕커	70, 146
우버링	88, 146
우버 태그	100, 146
우버화	72, 146

우젤귀	100, 147
우젤예	105, 147
욱질	63, 147
원원 페이지	75, 147
의경 고시	68, 147
인구론	57, 147
인생샷	84, 148
인생템	72, 148
인셉서니즘	105, 148
인테리어남	93, 148
인텔리슈머	83, 148
임팩트볼 측정법	71, 149
잉글리시 푸어	68, 149
잉문학	100, 149

ㅌ

전동 휠	61, 149
중고나라 론	67, 149
증거 중독	63, 150
증거 중독자	78, 150
지여인	91, 150
지옥불 반도	91, 150
진지충	100, 150
짤줍	83, 151
찍먹계	83, 151

ㄷ

차애	84, 151
창위랍토르	85, 151
철벽 소비자	95, 151
청순 보스	76, 152
출근 휴가	98, 152

취업 강패	63, 152
취켓팅	81, 152
치킨각	98, 152
친구느님	95, 152
칠포 세대	62, 153

ㅋ

카레국	105, 153
카스썰	72, 153
카톡튀	65, 154
카페인 우울증	98, 154
카하이오일	71, 154
칼업뎃	106, 154
캐리각	98, 154
커업다	106, 154
커귀	106, 155
커피 냅	106, 155
컨슈니어	69, 155
케미 강패	88, 155
코르스	58, 155
코스멀틱	94, 156
쿡방	55, 156
크로스 쇼퍼	74, 156
키즈시즘	101, 156

ㅌ

타이거 티처	101, 156
탄산남	59, 157
택배 버뮤다	106, 157
퇴직 크레바스	99, 157
튀맥	73, 157
트위노믹스	94, 157

II

파티스트	74, 158
패스트 리빙	59, 158
패터니스타	95, 158
패테	101, 158
펠비지	82, 158
펫 부머	82, 159
편도족	71, 159
포레듀케이션	76, 159
포텐 가전	85, 159
푸드테크	61, 160
프리콘	61, 160
프릿 밀봉	84, 160
플레세트탄	69, 160
피딩족	61, 160
피캥스족	82, 161

III

한복 여행가	78, 161
한큐 가전	91, 161
항메르스	91, 161
항메르스 물질	101, 161
해먹남	79, 162
해먹방	82, 162
핵공감	80, 162
핵귀염	107, 162
핵노답	81, 162
핵노잼	60, 163
핵잼	65, 163
핵존심	55, 163
허특법	107, 163

험블브래그	82, 163
헬조선	91, 163
혁신 기러기	81, 164
현눈	94, 164
현미	107, 164
현실 소름	107, 164
호러툰	107, 164
호모 솔리타리우스	108, 165
혼밥남	73, 165
혼술	81, 165
홈마	101, 165
화석 선배	64, 165
효과툰	84, 165
히든 시티	88, 166
히든 시티 티케팅	88, 166
힘희롱	82, 166
힙짬이	102, 166

<부록2> 표제어 역순 찾아보기

ㄱ		요색남	57, 145
		인테리어남	93, 148
한복 여행가	78, 161	커피 냅	106, 155
출근 휴가	98, 152	블랙 컨테이너	104, 132
캐리각	98, 154	세프테이너	57, 136
치킨각	98, 152	뇌섹 남녀	64, 118
핵공감	80, 162	사이다녀	69, 133
경포감	79, 112	뇌섹녀	55, 118
낫닝겐	73, 115	런피스녀	99, 123
부먹계	90, 131	머슬녀	56, 125
찍먹계	83, 151	심쿵녀	72, 138
셀고	86, 135	현눈	94, 164
카레국	105, 153	어번 그래니	60, 141
메신저 피로 증후군	68, 127	섬니	104, 136
메신저 증후군	56, 127	친구느님	95, 152
맥세권	89, 125		
숲세권	57, 136	ㄴ	
세젤귀	97, 134	앵까다	90, 141
우젤귀	100, 147	택배 버뮤다	106, 157
험블브래그	82, 163	커엽다	106, 154
우버 태그	100, 146	문송하다	77, 128
혁신 기러기	81, 164	여자여자하다	81, 143
나레기	99, 115	개노답	84, 111
얼굴 몰아주기	59, 142	핵노답	81, 162
ㄴ		달관 세대	56, 119
사이다남	74, 133	반퇴 세대	70, 129
해먹남	79, 162	칠포 세대	62, 153
혼밥남	73, 165	반퇴 시대	59, 129
탄산남	59, 157	문구턱	103, 128
		성덕	104, 134

백수 오덕	103, 130
굿즈덕	102, 113
소품덕	104, 136
칼업뎃	106, 154
지옥불 반도	91, 150
증거 중독	63, 150
립퀴드	63, 124
개이득	64, 111

ㄹ

밀프랩	86, 129
인구론	57, 147
중고나라 론	67, 149
힘회롱	82, 166
스웨그 룩	66, 137
래시 가드 룩	67, 122
냥무룩	96, 116
덕무룩	64, 120
놈 코어 룩	56, 117
애슬레저 룩	59, 141
빙수 한류	97, 132
창위랍토르	85, 151
현실 소름	107, 164
우버링	88, 146

ㄴ

흙마	101, 165
곰맘	68, 112
랜선 맘	66, 123
엄지맘	60, 142
썸맥	95, 139
튀맥	73, 157

펫 부머	82, 159
인텔리슈머	83, 148
세이프슈머	76, 134
랜선 이모	77, 123
슬로몬	62, 140
메르스 폐기물	75, 126
삼한 사미	70, 133
현미	107, 164
메르스 피난민	84, 126
모루밍	70, 127

ㄷ

요리사노바	91, 145
해먹방	82, 162
국방	55, 156
화석 선배	64, 165
임팩트볼 측정법	71, 149
뱅머신 측정법	77, 130
딸통법	65, 121
허특법	107, 163
안전 이별	83, 140
왕면봉	60, 145
프릿 밀봉	84, 160
셀카 봉	55, 135
베이그북	97, 131
내로남불	96, 116
뉴 노멀 붐	86, 119
패스트 리빙	59, 158
얼빠몸빠	105, 142
길끼빠빠	83, 115
딤빡	92, 121
물뽕	76, 128

^

썸덕사	97, 140
사바사	79, 132
귀염사	78, 114
냥집사	78, 116
심쿵사	80, 139
반퇴 자산	86, 130
복세편살	99, 131
인생샷	84, 148
헬조선	91, 163
너섹	58, 118
온라인 카니발라이제이션	
144	
포레듀케이션	76, 159
문송	67, 128
센송	80, 135
너섹 지수	102, 118
혼술	81, 165
쉐깅스	87, 137
내적 댄스	86, 116
항메르스	91, 161
코르스	58, 155
트위노믹스	94, 157
퇴직 크레바스	99, 157
청순 보스	76, 152
호모 솔리타리우스	108, 165
덕페이스	77, 120
의경 고시	68, 147
겉크러시	80, 111
시맨틱 머신	97, 138
몽실	103, 127
냥심	89, 116
문구부심	89, 128

선배부심	99, 134
핵존심	55, 163
카스썰	72, 153
연애썰	73, 144
개저씨	73, 111

○

차애	84, 151
컨슈니어	69, 155
잉글리시 푸어	68, 149
핵귀염	107, 162
우젤예	105, 147
욕밍아웃	105, 146
심멧 주의	80, 138
고답이	92, 112
여덟몰이	74, 143
등짐 들살이	60, 121
힙썰이	102, 166
원원 페이지	75, 147
맨스플레인	60, 125
너섹인	76, 118
지여인	91, 150
카하이오일	71, 154

ㄸ

연애고자	62, 144
셀카 고자	75, 135
증거 중독자	78, 150
골목길 순례자	85, 112
심쿵 유발자	61, 139
철벽 소비자	95, 151
여자여자	69, 143

반퇴자	75, 129
엔분의 일 잡	87, 143
길 과장	85, 114
길 국장	88, 114
개노잼	102, 111
핵노잼	60, 163
핵잼	65, 163
본 네이처 가전	103, 131
한큐 가전	91, 161
포텐 가전	85, 159
메뚜기족	66, 125
놀족	92, 117
어번 그래니족	87, 142
편도족	71, 159
피딩족	61, 160
메이비족	89, 127
야누스족	63, 141
피캥스족	82, 161
다람쥐족	78, 119
딘치족	67, 121
셀프기프팅족	79, 136
섬포족	62, 137
노푸족	69, 117
노키즈 존	64, 117
짤줍	83, 151
샵쥐	74, 133
셀카 렌즈	58, 135
인셉서니즘	105, 148
키즈시즘	101, 156
메신저 강박증	65, 126
카페인 우울증	98, 154
연필 거지	62, 144
펠비지	82, 158
항메르스 물질	101, 161

궁예질	79, 114
옥질	63, 147
엔터타이징	100, 143
단짠단짠	96, 119

大

타이거 티처	101, 156
설명충	67, 134
진지충	100, 150
소취	104, 136
래시 팬츠	95, 123
렌트 리치	92, 123

ㄱ

발 셀카	72, 130
베이그부커	93, 131
서상커	71, 134
욕커	70, 146
프리콘	61, 160
커퀴	106, 155
푸드테크	61, 160
담배 재테크	66, 120
리얼터 테크	96, 124
겨터파크	71, 111
덩키 킥	89, 121
아웃플래킷	105, 140

ㅁ

패터니스타	95, 158
프레세트탄	69, 160
만루 변태	96, 124

외발형 전동 스쿠터	90, 145
엉덩이턱	90, 142
땅콩 리턴	55, 122
패테	101, 158
인생템	72, 148
애정템	90, 141
공감툰	94, 113
효과툰	84, 165
호러툰	107, 164
카툰튀	65, 154
그로서런트	85, 114
리너기스트	77, 124
파티스트	74, 158
밴드 게이트	58, 130
히든 시티	88, 166
코스멀틱	94, 156
블라팅	103, 132
샐러리데이팅	75, 133
섬포 마케팅	100, 137
히든 시티 티켓팅	88, 166
취켓팅	81, 152

II

맛깡패	58, 125
실물 깡패	72, 138
케미 깡패	88, 155
골반 깡패	70, 112
취업 깡패	63, 152
스펙 깡패	67, 137
크로스 쇼퍼	74, 156
심폭	93, 139
노푸	56, 117
완피	98, 145

ㅎ

잉문학	100, 149
노이해	83, 116
배낭 도보 여행	63, 130
심장 폭행	65, 138
남혐	95, 115
여혐	70, 144
여혐혐	93, 144
썰만화	75, 139
우버화	72, 146
당천 영화	102, 120
메르스 불황	57, 126
땃덕후	94, 122
전동 휠	61, 149
외발 전동 휠	69, 145
공간혼	92, 113
구타혼	94, 113

<부록3> 표제어 빈도순 찾아보기

※ 괄호 안은 빈도

(4956)셀카 붕	55, 135	(145)왕면붕	60, 145
(3637)땅콩 리턴	55, 122	(137)어번 그래니	60, 141
(3240)쿡방	55, 156	(132)심쿵 유발자	61, 139
(1471)뇌섹녀	55, 118	(130)피딩족	61, 160
(969)핵존심	55, 163	(124)프리콘	61, 160
(822)눔 코어 룩	56, 117	(120)전동 휠	61, 149
(807)노푸	56, 117	(114)푸드테크	61, 160
(698)달관 세대	56, 119	(110)칠포 세대	62, 153
(652)메신저 증후군	56, 127	(103)연필 거지	62, 144
(533)머슬녀	56, 125	(101)쉽포족	62, 137
(443)인구론	57, 147	(96)쓸로몬	62, 140
(422)세프테이너	57, 136	(94)연애고자	62, 144
(370)메르스 불황	57, 126	(92)취업 강패	63, 152
(349)숲세권	57, 136	(85)증거 중독	63, 150
(344)요섹남	57, 145	(84)립퀴드	63, 124
(327)밴드 게이트	58, 130	(84)배낭 도보 여행	63, 130
(322)뇌섹	58, 118	(80)욱질	63, 147
(267)코르스	58, 155	(70)야누스족	63, 141
(263)셀카 렌즈	58, 135	(69)화석 선배	64, 165
(238)맛강패	58, 125	(67)덕무룩	64, 120
(213)탄산남	59, 157	(66)개이득	64, 111
(202)반퇴 시대	59, 129	(64)뇌섹 남녀	64, 118
(196)얼굴 몰아주기	59, 142	(59)노키즈 존	64, 117
(194)애슬레저 룩	59, 141	(59)심장 폭행	65, 138
(175)페스트 리빙	59, 158	(59)카툰튀	65, 154
(156)맨스플레인	60, 125	(58)팔통법	65, 121
(152)엄지맘	60, 142	(57)핵잼	65, 163
(151)핵노잼	60, 163	(52)메신저 강박증	65, 126
(147)등짐 들살이	60, 121	(48)랜선 맘	66, 123

(48)메뚜기족	66, 125	(28)우버화	72, 146
(48)스웨그 룩	66, 137	(27)카스썰	72, 153
(45)담배 채테크	66, 120	(26)개저씨	73, 111
(43)래시 카드 룩	67, 122	(26)혼밥남	73, 165
(40)딘치족	67, 121	(25)연애썰	73, 144
(39)중고나라 론	67, 149	(24)낫닝겐	73, 115
(38)문송	67, 128	(24)튀맥	73, 157
(38)설명충	67, 134	(23)사이다남	74, 133
(38)스펙 강패	67, 137	(23)크로스 쇼퍼	74, 156
(38)잉글리시 푸어	68, 149	(22)샷쥐	74, 133
(37)곰맘	68, 112	(22)여덱몰이	74, 143
(37)의경 고시	68, 147	(22)파티스트	74, 158
(36)메신저 피로 증후군	68, 127	(20)반퇴자	75, 129
(35)노푸족	69, 117	(20)샐러리데이팅	75, 133
(35)사이다녀	69, 133	(19)샐카 고자	75, 135
(35)여자여자	69, 143	(19)썰만화	75, 139
(34)외발 전동 휠	69, 145	(19)원원 페이	75, 147
(34)컨슈니어	69, 155	(18)메르스 폐기물	75, 126
(34)플레세트탄	69, 160	(18)물뽕	76, 128
(33)골반 강패	70, 112	(18)세이프슈머	76, 134
(33)욕커	70, 146	(17)청순 보스	76, 152
(32)반퇴 세대	70, 129	(17)포레듀케이션	76, 159
(32)여힘	70, 144	(16)뇌섹인	76, 118
(31)모루밍	70, 127	(16)덕페이스	77, 120
(31)삼한 사미	70, 133	(16)랜선 이모	77, 123
(31)임팩트볼 측정법	71, 149	(16)리너기스트	77, 124
(31)카하이오일	71, 154	(16)문송하다	77, 128
(30)편도족	71, 159	(16)뱅머신 측정법	77, 130
(29)겨터파크	71, 111	(16)증거 중독자	78, 150
(29)서상커	71, 134	(16)한복 여행가	78, 161
(29)인생템	72, 148	(15)귀염사	78, 114
(28)발 썰카	72, 130	(15)냥집사	78, 116
(28)실물 강패	72, 138	(15)다람쥐족	78, 119
(28)심쿵녀	72, 138	(15)사바사	79, 132

(15)셀프기프팅족	79, 136	(9)골목길 순례자	85, 112
(15)해먹남	79, 162	(9)그로서런트	85, 114
(14)경포감	79, 112	(9)길 과장	85, 114
(14)궁예질	79, 114	(9)내적 댄스	86, 116
(14)센송	80, 135	(9)뉴 노멀 붐	86, 119
(14)심멧 주의	80, 138	(9)밀프랩	86, 129
(14)핵공감	80, 162	(9)반퇴 자산	86, 130
(13)걸크러시	80, 111	(9)셀고	86, 135
(13)심쿵사	80, 139	(9)쉐깅스	87, 137
(13)여자여자하다	81, 143	(9)어번 그래니족	87, 142
(13)핵노답	81, 162	(9)엔분의 일 잡	87, 143
(13)혁신 기러기	81, 164	(9)온라인 카니발라이제이션	87, 144
(13)혼술	81, 165	(9)우버링	88, 146
(12)취켓팅	81, 152	(9)케미 깡패	88, 155
(12)펠비지	82, 158	(9)히든 시티	88, 166
(12)펫 부머	82, 159	(9)히든 시티 티켓팅	88, 166
(12)피캥스족	82, 161	(8)길 국장	88, 114
(12)해먹방	82, 162	(8)냥심	89, 116
(12)힘블브래그	82, 163	(8)덩키 킥	89, 121
(12)힘회롱	82, 166	(8)맥세권	89, 125
(11)낄끼빠빠	83, 115	(8)메이비족	89, 127
(11)노이해	83, 116	(8)문구부심	89, 128
(11)안전 이별	83, 140	(8)부먹계	90, 131
(11)인텔리슈머	83, 148	(8)애정템	90, 141
(11)짤줍	83, 151	(8)앵까다	90, 141
(11)찍먹계	83, 151	(8)영덩이턱	90, 142
(11)차애	84, 151	(8)외발형 전동 스쿠터	90, 145
(11)프릿 밀봉	84, 160	(8)요리사노바	91, 145
(11)효과툰	84, 165	(8)지여인	91, 150
(10)개노답	84, 111	(8)지옥불 반도	91, 150
(10)메르스 피난민	84, 126	(8)한큐 가전	91, 161
(10)인생샷	84, 148	(8)항메르스	91, 161
(10)창위랍토르	85, 151	(8)헬조선	91, 163
(10)포텐 가전	85, 159	(7)고답이	92, 112

(7)공간흔	92, 113	(5)캐리각	98, 154
(7)놀죽	92, 117	(5)퇴직 크레바스	99, 157
(7)딛빡	92, 121	(4)나레기	99, 115
(7)렌트 리치	92, 123	(4)런피스너	99, 123
(7)베이그부커	93, 131	(4)복세편살	99, 131
(7)심폭	93, 139	(4)선배부심	99, 134
(7)여협협	93, 144	(4)섬표 마케팅	100, 137
(7)인테리어남	93, 148	(4)엔터타이징	100, 143
(7)코스멀틱	94, 156	(4)우버 태그	100, 146
(7)트위노믹스	94, 157	(4)우젤귀	100, 147
(7)현눈	94, 164	(4)잉문학	100, 149
(6)공감툰	94, 113	(4)진지충	100, 150
(6)구타흔	94, 113	(4)키즈시즘	101, 156
(6)뎃덕후	94, 122	(4)타이거 티처	101, 156
(6)래시 팬츠	95, 123	(4)패테	101, 158
(6)썸맥	95, 139	(4)항메르스 물질	101, 161
(6)철벽 소비자	95, 151	(4)홈마	101, 165
(6)친구느님	95, 152	(4)힙짚이	102, 166
(6)패터니스타	95, 158	(3)개노잼	102, 111
(5)남협	95, 115	(3)굿즈덕	102, 113
(5)내로남불	96, 116	(3)뇌섹 지수	102, 118
(5)냥무룩	96, 116	(3)당천 영화	102, 120
(5)단짠단짠	96, 119	(3)몽실	103, 127
(5)리얼터 테크	96, 124	(3)문구덕	103, 128
(5)만루 변태	96, 124	(3)백수 오덕	103, 130
(5)베이그북	97, 131	(3)본 네이처 가전	103, 131
(5)빙수 한류	97, 132	(3)블라팅	103, 132
(5)세젤귀	97, 134	(3)블랙 컨테이너	104, 132
(5)시맨틱 머신	97, 138	(3)성덕	104, 134
(5)썹덕사	97, 140	(3)섬니	104, 136
(5)완피	98, 145	(3)소취	104, 136
(5)출근 휴가	98, 152	(3)소품덕	104, 136
(5)치킨각	98, 152	(3)아웃플래킷	105, 140
(5)카페인 우울증	98, 154	(3)얼빠몸빠	105, 142

(3)욕망아웃	105, 146
(3)우젤예	105, 147
(3)인셉서니즘	105, 148
(3)카레국	105, 153
(3)칼업텃	106, 154
(3)커엽다	106, 154
(3)커퀴	106, 155
(3)커피 냅	106, 155
(3)택배 버뮤다	106, 157
(3)핵귀염	107, 162
(3)허특법	107, 163
(3)현미	107, 164
(3)현실 소름	107, 164
(3)호러툰	107, 164
(3)호모 솔리타리우스	108, 165

〈부록4〉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년 신어의 사용 빈도

신어	기사 건수	총빈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동녀	989	1,615	665	375	122	99	62	88	51	76	38	19	20
건달정부	77	126	89	21	12	1	-	1	2	-	-	-	-
경찰룰	17	81	7	1	-	6	-	-	3	1	13	41	8
계획휴가제	17	31	23	-	4	2	-	1	-	-	-	-	-
고고익선	23	32	1	-	2	-	1	1	2	14	3	3	4
고공족	20	39	2	-	13	10	1	-	-	-	-	9	4
고성불패	60	89	30	2	11	16	7	8	3	2	5	5	-
공시족	648	1,192	41	45	130	314	135	86	44	41	132	139	85
공시촌	85	102	8	16	4	2	-	5	7	28	19	5	8
광부병	22	22	9	1	-	3	-	-	-	7	-	-	-
금융고시	103	167	28	65	24	6	7	8	-	7	4	15	2
기생총김치	417	542	414	49	11	41	8	6	1	5	4	3	-
김치지수	140	457	13	4	4	1	3	1	-	38	180	207	6
칼때기홀	123	183	8	7	56	1	21	28	12	21	14	4	11
껌치기	16	23	13	7	-	1	-	-	-	2	-	-	-
냥시글	226	301	14	44	61	9	15	12	24	35	50	20	17
납김치	511	700	661	17	4	11	1	3	-	1	-	2	-
네카시즘	34	55	29	2	8	7	2	2	-	3	-	2	-
노풍당당	30	34	2	9	1	4	-	2	5	5	1	1	4
다둥이가족	1,370	2,285	83	125	67	104	545	322	220	146	150	267	256
달팽이족	26	46	-	3	2	-	1	2	6	-	-	12	20
대학동지족	36	50	28	11	7	2	-	-	-	2	-	-	-
드레스카페	38	69	6	9	26	12	2	9	2	1	-	2	-
디지털코쿤 족	14	33	9	1	3	1	7	4	1	1	6	-	-
떨기춤	59	60	20	3	6	6	1	6	6	3	7	2	-
떨녀	199	573	456	91	21	3	2	-	-	-	-	-	-
롱디커플	12	36	-	-	1	17	3	1	-	-	1	12	1
마술병	77	114	15	1	49	18	8	3	7	4	4	3	2
맛깔장	14	23	8	2	-	-	-	-	-	-	1	4	8

맨주먹정신	16	20	7	-	3	1	2	-	2	2	2	1	-
먹사	43	53	6	1	4	10	1	3	11	5	3	8	-
면창족	31	43	27	2	5	1	2	2	-	-	4	-	-
몰래제보꾼	44	60	9	13	12	6	13	1	2	2	2	-	-
무꺼풀	18	25	-	-	-	4	1	-	3	10	1	6	-
문화부족	23	40	27	-	-	-	2	4	2	1	4	-	-
바다장	61	150	7	-	1	-	1	41	4	36	28	24	8
바텐더로봇	25	34	16	10	1	-	-	1	2	-	4	-	-
밥터디	93	147	3	28	25	2	12	17	1	10	12	27	10
배터리족	25	57	13	23	14	5	-	-	-	-	-	-	-
부비댄스	26	46	11	5	-	2	-	-	-	-	3	25	-
부비부비춤	106	125	23	9	3	6	9	4	15	7	40	6	2
불봉	13	29	-	2	2	1	17	2	-	-	3	-	2
불임휴직	284	260	60	14	38	2	1	45	14	23	19	23	20
불임휴직제	91	219	150	13	-	-	14	6	4	8	5	18	-
비화폰	130	470	411	3	-	-	1	-	-	4	1	26	-
빙면	170	201	7	3	6	2	6	34	28	7	28	71	1
빛가림	49	48	7	2	2	8	3	1	6	3	8	2	5
사건집중검토제	26	56	11	33	8	-	-	-	1	-	3	-	-
생리공결제	106	418	36	169	86	78	15	20	6	2	2	4	-
생활경제고통지수	173	532	137	14	165	137	44	27	8	-	-	-	-
생활스터디	83	170	-	46	14	4	28	23	24	5	10	13	2
석유조기경보지수	194	313	188	49	32	17	25	2	-	-	-	-	-
세금폭탄론	570	924	38	123	43	31	4	5	99	30	216	12	323
소변인	63	86	51	32	-	-	1	-	-	-	-	1	1
소비자피해주의보	2,025	2,694	153	194	213	32	202	212	443	434	297	287	227
손베개	32	80	-	-	3	-	-	-	1	-	73	2	1
손펼침막	94	106	2	-	3	2	14	9	18	10	14	22	12
수림장	47	119	54	29	9	4	5	10	1	-	3	2	-
수불사업	64	356	42	25	23	8	3	-	15	130	61	16	33
수중뮤지컬	115	193	6	10	4	30	7	-	-	-	132	4	-
스쿨폴리스	1,274	2,851	1,100	127	100	141	28	66	176	738	244	71	49
신파라치	26	31	14	6	2	1	-	2	-	5	-	-	-

실버뮤지컬	67	43	-	-	8	23	7	3	2	-	-	-	-
쌀파라치	76	104	21	12	1	-	68	1	-	-	-	-	1
안심택시	332	572	29	43	22	5	41	28	74	31	118	146	35
알파메일	149	237	9	-	3	2	6	19	32	9	21	100	33
애국베티	147	238	4	61	28	14	16	26	10	23	29	13	14
어울모임	29	59	3	1	-	11	-	17	24	-	-	-	3
에스컬레이터족	43	46	16	1	-	-	24	4	-	-	-	-	-
에어로바틱	59	95	16	1	-	-	-	26	5	16	30	-	1
역계절진폭	21	23	3	-	-	-	5	2	-	4	-	7	2
오삼데이	24	40	4	3	-	1	7	8	4	3	-	1	9
월급고개	134	432	-	-	19	60	3	-	12	114	157	60	7
위버섹슈얼	377	675	193	151	46	17	81	23	83	10	47	21	3
유포터	149	206	77	85	25	16	-	-	-	-	3	-	-
육아데이	332	868	115	432	239	18	30	10	7	4	4	9	-
자백감형제도	22	23	4	-	2	6	3	-	1	-	5	1	1
자활꿈터	19	21	6	-	-	-	3	-	3	2	7	-	-
잔토희물	35	112	10	7	-	-	11	5	57	-	-	9	13
장원방	23	31	-	-	-	-	1	2	1	8	1	5	-
젓가락데이	84	153	10	2	3	1	3	1	19	14	11	89	-
젓가락의날	39	84	50	2	3	-	-	-	7	-	3	-	19
쭈마헬라	1,053	1,909	98	135	41	450	433	290	131	59	40	74	158
지행장	216	405	70	62	37	55	37	13	8	21	16	80	6
직테크	47	142	-	7	20	13	17	33	27	20	4	1	-
차치지청	33	50	5	2	1	3	4	5	-	2	2	6	20
초슬림폰	1,494	3,001	1,655	1,191	88	10	10	4	19	5	2	1	16
추모목	247	575	30	66	47	28	189	47	66	28	7	55	12
추어데이	34	92	5	16	21	19	8	2	4	-	13	4	-
추어탕데이	27	40	16	1	-	2	1	-	1	1	1	15	2
취보	89	208	9	1	3	9	3	3	6	6	98	55	11
쾌변기	43	108	5	66	32	2	-	-	-	-	3	-	-
털기춤	1,332	1,748	63	53	142	103	31	134	117	202	347	391	165
토피스	150	228	29	5	22	12	38	14	59	19	2	16	2
트로트학과	44	61	30	8	-	-	6	9	1	2	2	3	-

트윅스터	15	38	23	-	-	-	-	-	-	3	7	4	1
파빙지려	22	25	7	-	2	6	2	1	2	-	5	-	-
파파데이	32	51	8	6	9	7	18	-	-	-	1	-	2
포스트디지털세대	76	139	107	22	4	1	1	-	2	2	-	-	-
핀홀요법	17	30	1	17	1	1	-	-	-	2	2	1	5
항한류	47	75	35	9	3	7	6	7	1	-	-	7	-
헌집증후군	165	245	31	10	17	17	4	25	60	7	14	20	40
혐한류	1,159	2,073	342	242	86	147	138	110	260	419	112	151	66
협약학과	263	429	55	233	69	18	12	13	9	12	1	3	4
홀로주연	16	21	8	1	2	1	5	-	-	1	3	-	-
홍가포르	67	91	33	26	14	7	1	3	-	-	5	1	1
홍색여행	100	155	10	18	-	3	3	-	9	-	9	12	91
황빠	138	299	26	201	15	4	15	2	9	18	2	3	3

〈부록5〉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6년 신어의 사용 빈도

신어	기사 건수	총빈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워치기	12	20	-	-	-	1	-	8	-	3	4	-	4
가족목	66	127	-	3	1	-	80	19	6	4	2	9	3
고추장남	75	159	-	116	10	4	13	3	5	2	-	4	2
골드미스	13,673	23,252	-	45	1,188	2,412	5,303	4,416	1,770	1,443	2,158	3,781	736
골드미스터	509	911	-	21	6	148	144	108	70	100	122	94	98
공중의견제출 제도	167	209	-	67	133	-	4	-	3	2	-	-	-
군복무크레디 트	76	95	-	19	23	4	1	7	1	5	15	12	8
귀족녀	105	195	-	125	23	8	9	14	2	2	7	2	3
귀족소금	19	48	-	16	-	22	-	1	2	-	1	-	6
그린슈머	56	84	5	17	2	17	18	9	1	10	5	-	-
그린택시	59	83	-	39	28	2	3	-	-	2	5	2	2
근로자능력개 발카드	253	385	-	153	68	28	84	14	29	9	-	-	-
금사빠	607	1,100	-	2	4	2	2	7	30	85	658	167	143
금연순찰대	32	66	-	5	11	2	-	17	-	31	-	-	-
금연치약	93	112	-	8	3	21	14	44	13	8	1	-	-
기부마라톤	71	86	-	-	8	11	1	2	8	7	26	12	11
기프트콘	11,634	15,341	-	59	354	626	1,312	1,929	1,455	2,638	2,662	2,134	2,172
껌기번호판	80	224	-	172	-	5	6	-	31	-	10	-	-
꼭짓점댄스	1,490	3,109	-	2,222	68	58	51	34	12	45	412	150	57
나오미족	55	115	-	14	7	12	41	7	-	5	1	6	22
나우족	77	148	-	13	55	20	18	6	2	4	21	4	5
노래텔	25	30	-	8	6	2	5	-	-	4	4	1	-
노무족	300	590	-	89	100	22	63	52	17	40	94	73	40
녹토미	40	49	-	7	-	4	12	9	1	5	1	1	9
농민사관학교	920	2,022	-	41	64	135	174	315	221	387	221	305	159
누드항공기	20	45	2	25	3	4	4	1	2	2	2	-	-
뉴럴네트워크	38	81	-	2	1	3	-	-	3	2	4	9	57
달리미	40	57	2	1	4	10	13	12	-	1	-	7	4
대포아이디	42	62	-	9	-	3	4	7	2	7	25	2	3

닷컴마케팅	32	42	1	2	7	8	2	-	2	2	11	-	7
더위주의보	41	59	-	21	2	-	1	2	3	5	9	4	5
동물조련이벤트과	166	226	-	30	26	17	39	12	22	23	15	32	10
동안성형수술	20	22	-	-	-	-	1	2	3	1	8	4	3
된장남	562	903	-	86	71	35	31	47	108	128	251	96	50
된장녀	4,805	8,452	-	1,705	703	634	356	917	811	1,241	1,055	702	328
뒷금	45	136	-	5	1	3	32	5	2	7	21	35	25
마이크로포레이터	117	248	-	77	40	84	39	3	-	2	2	1	-
맨슈머	48	100	-	8	38	2	4	-	2	19	4	5	18
멧돌춤	407	633	-	223	139	55	60	9	1	34	47	56	9
머스트시	73	78	-	1	2	5	3	15	9	8	11	14	10
명인강좌	58	66	-	5	1	22	19	7	1	-	11	-	-
모녀마케팅	16	35	-	5	12	-	14	3	1	-	-	-	-
모범납세자카드	85	149	-	62	14	40	-	-	17	-	11	5	-
뮤직스타일리스트	39	52	4	30	4	1	-	12	-	-	1	-	-
미드족	141	273	-	37	168	37	6	11	2	2	2	7	1
반값아파트	5,697	12,897	6	3,816	5,189	1,028	940	357	785	342	187	124	117
버블세븐	9,446	20,572	1	3,726	3,224	4,349	3,641	1,575	589	1,513	836	743	374
보건기상지수	58	88	-	16	19	2	2	17	1	-	12	7	12
볼매	1,063	1,235	4	4	14	21	40	90	108	148	225	418	163
비만소대	73	137	70	7	-	-	-	-	-	1	3	-	56
비싱	17	29	-	8	12	-	3	-	-	-	2	4	-
비행척추피로증후군	37	100	-	23	4	5	3	41	18	2	1	3	-
살조	18	39	1	13	4	2	1	1	-	2	15	-	-
새로마지플랜	339	445	-	192	84	32	23	53	3	38	8	12	-
새싹플랜	43	66	-	41	12	-	7	2	1	1	2	-	-
생동성	1,963	6,948	54	1,400	984	1,614	695	366	420	302	281	415	135
선택요일제	296	847	1	83	7	42	422	86	59	18	48	38	43
셀디	145	410	-	88	160	35	44	4	72	3	3	1	-
손수제작물	3,768	3,985	-	216	1,795	724	544	248	101	118	79	107	53
수그리족	30	66	-	1	3	2	-	-	-	16	39	2	3
수면부위마취	68	197	-	9	9	28	60	30	42	4	7	8	-
스포슈머	118	318	-	102	18	-	4	65	14	-	8	78	29

시민거버넌스	82	95	-	31	6	-	8	5	1	6	8	23	7
시장학교	125	244	-	41	2	54	73	25	39	5	4	1	-
실버마크	216	507	-	51	19	83	94	24	27	41	27	128	13
쌈장녀	35	53	-	10	1	-	-	-	3	4	35	-	-
쌈춘년	2,960	4,793	1	1,909	1,232	432	238	80	45	12	61	179	604
쌈얼	4,748	8,135	-	1,081	1,190	959	625	745	764	533	609	868	761
씩소	1,410	2,165	-	86	104	130	172	339	218	458	316	226	116
아나테이너	923	1,616	-	13	88	460	159	85	199	144	201	139	128
아이돌보미	3,996	8,940	-	167	556	830	1,948	1,153	819	665	1,299	1,206	297
안습	1,119	1,422	-	79	142	91	78	100	96	396	220	130	90
어포더블럭서리	41	63	-	7	-	-	10	4	7	7	8	15	5
에듀시터	56	142	-	59	35	1	5	13	9	7	3	9	1
에코맘	923	1,781	-	3	-	143	127	291	275	337	254	241	110
엘프녀	1,176	2,328	-	240	35	140	161	1,196	112	58	86	284	16
역기러기아빠	16	25	-	20	2	-	-	-	1	-	-	1	-
연랑감	111	124	-	12	5	37	28	27	-	13	-	-	-
연예고시	28	25	-	4	2	-	1	2	5	1	-	10	-
영파라치	97	319	-	242	45	6	19	-	-	1	-	4	2
오감브랜딩	177	302	-	47	11	1	-	-	28	-	133	73	9
오크녀	54	86	-	5	-	-	2	12	-	9	25	13	20
온누리안	99	204	-	111	65	24	-	-	-	1	3	-	-
와인트레인	420	802	-	94	304	86	130	61	44	18	28	27	10
완소남	2,708	3,590	-	57	1,563	657	419	240	173	140	87	171	83
완소녀	311	408	-	9	144	42	40	48	35	21	44	21	4
왕남페인	92	119	-	113	-	-	1	2	2	-	-	-	1
외모지수	47	52	-	1	4	1	3	-	28	6	5	2	2
워드신드롬	73	103	-	94	3	-	1	3	1	-	-	1	-
월드컵중후군	63	91	1	31	1	-	-	12	-	-	-	16	-
웨딩알바	41	78	-	34	19	2	-	-	-	3	2	16	2
윈드쉬어	43	88	-	43	19	-	-	10	2	-	12	2	-
유시시	330	698	-	80	298	69	50	32	48	24	55	35	7
유타프로젝트	245	335	1	155	88	49	23	11	2	1	-	1	4
육아휴직할당제	176	216	-	15	27	4	2	46	45	38	14	16	9

이모부대	29	48	-	1	-	23	-	5	13	2	1	3	-
이중배아	77	237	-	39	4	178	7	-	9	-	-	-	-
인형체험방	92	225	-	74	48	1	2	2	80	14	1	3	-
임금피크제보 전수당제도	81	93	-	53	13	21	1	1	-	1	3	-	-
자립홈	54	96	-	1	-	14	10	21	7	5	4	32	2
자출	239	537	-	50	44	121	56	19	27	24	38	133	25
장면갈무리	20	22	-	4	1	-	-	-	-	1	6	5	5
장수축하수당	30	51	-	15	25	8	1	-	-	-	2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891	1,079	-	379	7	42	4	13	63	247	7	257	60
재능봉사	1,077	1,436	-	2	2	1	19	54	157	250	377	377	197
적토미	74	197	28	41	2	18	31	50	6	12	2	6	1
졸업세	18	31	-	4	1	-	8	11	6	-	-	-	1
주택바우처제 도	1,256	1,674	-	44	78	79	168	60	254	250	531	197	13
지식콘서트	930	1,362	-	10	19	5	6	46	125	275	427	212	237
지역약물감시 센터	213	389	-	9	47	16	92	54	119	32	13	6	1
참공약선택하 기	288	344	-	233	78	20	2	6	2	2	-	1	-
척추피로증후 군	116	345	-	29	4	8	18	71	28	45	60	56	26
체어마사지	28	57	-	28	14	9	3	1	1	1	-	-	-
출국여부확인 시스템	48	91	-	56	15	2	-	15	-	2	-	-	1
츄름	38	53	-	12	1	1	-	2	-	1	3	13	20
척릿	791	1,508	-	102	172	387	403	114	195	46	20	65	4
커플개그	72	111	-	8	5	7	6	-	1	8	27	37	12
코스피의개	15	28	-	8	2	12	-	2	-	-	4	-	-
쿨링센터	59	99	1	39	16	18	4	10	3	4	3	1	-
크로스섹슈얼	295	524	-	290	65	23	14	18	15	9	58	25	7
클린로드	212	448	2	53	39	15	24	61	51	27	92	35	49
키티맘	47	199	-	162	1	6	14	5	3	-	7	1	-
토크건함	45	71	-	11	4	-	-	17	30	2	3	3	1
트윈슈머	99	201	38	82	24	10	14	13	7	-	2	11	-
틱타알릭	56	165	-	60	-	15	52	-	2	5	7	11	13
파파쿼터제	123	232	23	95	18	3	14	30	32	8	5	4	-
팔팔데이	30	63	-	-	9	-	24	-	-	1	25	4	-
편한류	13	22	-	11	-	2	-	1	-	6	-	2	-

폭염대피소	171	219	-	50	13	23	6	30	4	17	68	3	5
푸티니즘	32	67	-	2	3	4	-	-	2	10	4	35	7
프라브족	62	189	-	41	68	11	5	2	4	17	3	29	9
프로추어	219	412	-	62	155	38	28	37	24	21	14	32	1
프리허그	9,357	23,249	-	236	1,043	407	322	681	670	1,614	10,064	6,072	2,140
피부교감	21	25	-	15	-	-	2	1	-	3	2	1	1
핍비	41	59	9	8	4	2	1	-	14	-	4	1	10
하늘썬터	20	31	-	14	-	-	-	11	1	3	2	-	-
학교안전수호 천사	23	50	-	37	5	-	-	2	5	1	-	-	-
학교촌지근절 법	63	72	-	40	2	-	28	1	-	-	-	-	1
한글패션	476	692	-	82	87	78	65	24	19	21	201	108	7
한방고	32	62	-	16	-	-	11	8	1	10	13	3	-
한뼘바지	31	41	-	17	4	-	-	-	14	-	5	1	-
헬리콥터부모	169	398	27	31	122	23	30	42	19	25	30	15	34
황금돼지띠	1,122	2,161	-	280	415	47	34	42	82	21	71	1,129	40
훈남	19,314	27,689	18	333	820	2,562	2,828	2,848	3,161	3,712	4,560	3,583	3,121
훈녀	5,596	7,264	-	14	76	86	65	217	611	939	2,434	1,953	869
흔들녀	111	201	-	182	4	9	2	4	-	-	-	-	-

연구책임자:	남길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덕호(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안미애(동국대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연구보조원:	서은영(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안주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수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최준(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홍미주(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현영희(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담당연구원:	위진(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2015년 신어

발 행 인 국립국어원장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77

인 쇄 일 2015년 12월 10일

발 행 일 2015년 12월 10일

인 쇄 경대디지털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15년 신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